

을유세계문학전집

1~108



실제로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훌륭한 시였고,  
그런 시를 다시 낭독할 사람은 없을 줄 알았지. 시를 읽어  
내려가자 단어들이 울리는 마술로 변했고, 나는 도취될 수밖에  
없었지. 그것은 진정한 하나의 기념비 같았고, 돌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

—『현란한 세상』

을유세계문학전집 1~108

발행일  
2020년 12월 1일

펴낸이. 정무영  
펴낸곳. (주)을유문화사

창립일. 1945년 12월 1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6길 52-7  
전화. 02-733-8153  
팩스. 02-732-9154  
홈페이지. [www.eulyoo.co.kr](http://www.eulyoo.co.kr)

1959년 을유세계문학전집은 모든 세계문학전집의 기초가 되는 한국 출판사상 가장 중요한 출판물 중 하나다. 이후 50년 만인 2008년 새로운 전집을 선보이기 위해 출판사는 거의 신화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구 전집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편집위원들은 새로운 세계문학전집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고의 역자들을 모았고 번역은 아주 철저한 방식으로 검증되어 왔다. 드디어 새로운 을유세계문학전집이 100권을 맞이하였다. 부디 본 전집이 2백 권을 넘어 3백 권까지 계속 출간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김영준(열린책들 편집이사)

내가 세계문학 고전의 열정적 독자가 될 수도 있었을 십 대 후반 및 대학 학부생 시절은 한국 출판 역사에서 세계문학전집 출판의 암흑기에 해당하는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저명한 고전인데도 번역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한두 종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던 때였다. 한 작품을 온전히 읽어 내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수십 년 전 번역본 여러 권을 모두 펼쳐 놓고 대조하며 읽는 수고를 치러야 했다.

상황은 1990년대 후반부터 달라져서 2000년대 중후반에는 세계문학전집 붐이 일어났다. 새로운 시대의 언어 감각을 장착한 개선된 번역본들이 쏟아졌고, 이름만 들어온 전설의 작품들이 ‘한국어 초역’ 마크를 달고 나왔다. 나는 읽기 위해 샀고 사기 위해 읽었다. 신화 속 에리직톤은 아무리 먹어도 허기를 면할 수 없어 제 살까지 뜯어 먹었지만, 나는 아무리 읽어도 점점 늘어나는 읽을거리 때문에 괴로웠다.

이제 여러 출판사의 전집들이 서점의 중요한 자리에 꽂혀 있다. 진부한 리스트로 구색만 갖춘 전집들을 보고 있으면 비슷한 것들이 저렇게나 많아야 하나 싶어 오히려 피로감이 느껴지니 1990년대와는 격세지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렷한 개성을 가진 세계문학전집이 독서 시장에서 응분의 주목을 받기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 을유세계문학전집 100권 발간이 내게 각별히 신나는 일인 것은 그 때문이다.

을유세계문학전집의 개성을 나는 최상의 존경을 담아 이렇게 요약한다. ‘이것은 연구자들을 만족시키는 전집이다.’ 첫째, 판매가 보장되는 유명 타이틀을 눈치 보며 집어넣은 흔적이 없거니와, 우리에게는 낯선 해당 국가의 고전들을 초역해서 눈치 없이 들이밀기 일쑤다. 둘째, 역자로는 전문 번역가보다 전공 학자들이 선호되는 것이 특기할 만한데, 번역 검토도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하듯 한다니 대단하다. 그래서인지 이 전집과 나 사이에는 좋은 추억들이 많다. 브론테 자매의 『제인 에어』와 『워더링 하이츠』를 중후한 현대문학으로 되살려 낸 두 영문학자의 역량에 감탄했고, 볼라뇨와 제발트를 일찍이 리스트에 포함시킨 편집위원단의 선견지명에는 한참 후에야 놀랐으며, 여타의 전집들과는 달리 보토 슈트라우스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등의 에세이가 기나긴 소설 목록들 속에서 반짝이는 것도 반가웠다.

을유세계문학전집 각 권의 맨 끝에는 그동안 출간된 작품들이 원저의 출간 순으로 정리돼 있는데, 연도가 적혀 있어 일종의 세계문학사 연표 역할을 한다. 이십 년 전에 비슷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나는 지금도 이런 연표를 보면 설렌다. 이 설렘을 많은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다. ‘연구자들을 만족시키는 전집’이란 연구자들만을 위한 전집인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실망할 수 없게 만드는 전집이기 때문이다.

— 신형철(문학평론가)

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책꽂이에 의젓하게 꽂혀 있던 녹색 표지의  
 을유문화사 세계문학전집을 기억한다. 『백경』, 『백치』, 『권력과  
 영광』, 『데카메론』, 『제인 에어』 등을 거거서 골라 읽었다. 지금  
 내 집에 고스란히 와 있다. 번역도 제본도 튼튼한 이 책들은 내  
 성품과 작품 세계에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옆에 고동색  
 표지의 신전집이 하나씩 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무척이나 보람 있는 일이다. 특히 『옛보는  
 자』를 읽는 경험이란! 해수면에 반사된 햇빛의 일렁임에 눈이  
 멀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낫 놓고 바라보는 사람처럼 문장이  
 하염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읽었다. 2045년에 300권 완간이  
 목표라고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기 계획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다만 300권 가지고야 성이 차겠나. 나는 안 찬다.  
 세계문학‘전’집 아닌가. 세계문학은 방대하고 영원히 계속될 텐데  
 이 전집에 ‘완’간이 어디 있나.

— 박찬욱(영화감독)

세계문학은 번역문학이다. 번역은 각 국민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필수조건이다. 우리가 아는  
 세계문학은 따라서 한국어로 번역된 문학에 한정된다.  
 을유세계문학전집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전집에서만 읽을  
 수 있거나 이 전집에 의해 대표되는 작품들이 웅변한다.  
 토마스 만의 『마의 산』과 로렌스의 『사랑에 빠진 여인들』을  
 나는 을유세계문학전집을 통해서 비로소 읽을 수 있었다.  
 내게 친숙한 러시아문학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강의에서  
 읽을 때 내가 애용하는 번역본이 을유문화사판이며, 고골의  
 『죽은 혼』과 오도예프스키의 『러시아의 밤』, 플라토노프의  
 『체벤구르』, 나보코프의 『사형장으로의 초대』와 『재능』 외  
 많은 작품을 오직 을유세계문학전집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한국에서 러시아문학이 세계문학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을유세계문학전집에 크게 빛지고 있는 셈이다.

— 이현우(로자, 서평가)

---

정통 문학 전집의 부활

1959년 국내 최초로 세계문학전집을 선보였던 을유문화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50년 만에 새롭게 부활한, 정통 문학 전집입니다.

---

전문 편집위원단과 편집부의 작품 선정

세계 주요 언어권별로 전문 편집위원과 편집부가 함께 논의해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공자를 섭외해 진행합니다.

---

클래식한 장정과 디자인

을유세계문학전집은 클래식한 장정과 판형, 디자인으로 중후한 깊이를 보여 주며 오랫동안 소장할 만한 가치가 돋보이는 전집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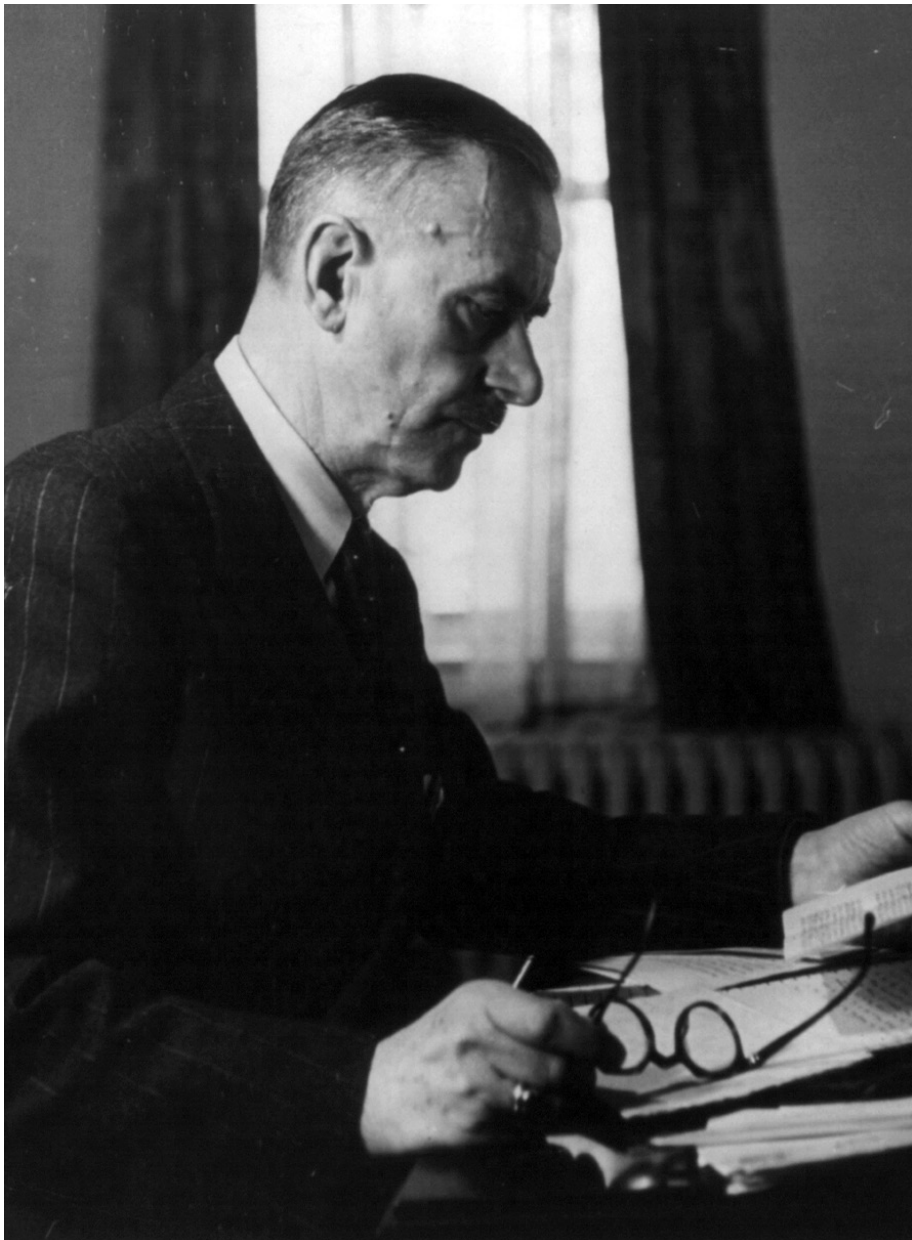
깊이 있는 해설

작가를 연구한 전문 역자의 친절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작품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의의,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판본 중 엄선한 정본 소개

해당 작품의 판본 소개를 통해 기존에 나왔던 여러 판본의 특징을 비교·설명하면서 동시에 정본으로 인정되는 판본을 선보여 번역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1·2

마의 산

DER ZAUBERBERG

토마스 만 지음

홍성광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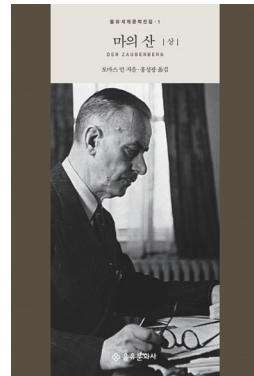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는 토마스 만이다.  
— 죄르지 루카치

나는 토마스 만의 『마의 산』과 괴테의 『친화력』보다  
더 나은 독일어 장편 소설을 알지 못한다.  
— 마르셀 라이히 라니츠키

20세기 문학의 가장 높은 산  
평생을 『마의 산』 연구에 천착한  
홍성광 박사의 깊이 있는 번역

토마스 만의 대표작 『마의 산』은 원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과 짝을 이루는 단편으로 기획된 작품이었지만 점점 방대해져서 12년 후에 1,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 되었다. 작가는 1913년 집필을 시작했지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여러 차례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사이 토마스 만은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글을 발표하며 점점 사회·정치적인 상황에 발을 깊이 들여놓기 시작한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21년 5월 이미 쓴 것까지 고쳐서 절반가량을 마쳤으며 유명한 6장의 「눈」은 1923년 초에 썼고, 1923년 말에 7장의 「페퍼코른」을 쓰고 1924년 9월 27일에 집필을 마쳤다. 그 결과, 이 책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정치 및 사회의식이 대전환점을 맞이한 11년간의 시간 동안 토마스 만이 작가로서 자신의 정신적 삶의 궤적을 기록한 소설이 되었다.

이 작품은 특히 소설 속 인물들을 동화나 신화 속



각 권 664, 772면 / 각 권 15,000원

1929년 노벨문학상 수상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  
연세대 필독 도서 200선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 도서  
101선

토마스 만  
**Thomas Mann**  
 루카치는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누구를 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토마스 만을 지목했다. 20세기 초반의 독일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토마스 만은 1901년 발표한 장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로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을 시작점으로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 『독일 공화국에 관해서』 등 정치적 주제를 건지한 글을 썼으며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옹호하는 강연 활동을 꾸준히 벌였다. 주요 작품에는 『트리스탄』, 『대공 전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요셉과 그의 형제들』, 『바이마르의 로테』, 『파우스트 박사』 등이 있다.

역자 홍성광: 서울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토마스 만의 장편 소설 『마의 산』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역서로는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카프카의 『변신』, 헤르만 헤세의 『싯타르타』, 미카엘 엔데의 『마법의 숲』, 하이네의 『독일. 겨울동화』, 『철학의 정원』, 레마르크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등이 있다.

인물들로 비유하면서 작품 무대를 신비로운 분위기가 깃든 곳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예를 들면 베렌스 고문관은 염라대왕인 ‘라다만토스’로 요양원을 군림하는 인물이고, 윈트겐실은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이며, 카스토르프는 ‘오디세우스’로 임시 방문객이라는 식이다.

이처럼 신화적이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마의 산』은 여러 평론가들로부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유럽 문명 세계의 정신적 총체”라고 평가받았다. 이는 토마스 만 스스로 삼연성(三連星)이라고 지칭한 쇼펜하우어, 니체, 바그너의 영향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다. 19세기 이래의 유럽 소설 기법을 집대성해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를 능가할 수도, 추종할 수도 없으며 오로지 그를 비판할 수만 있을 뿐이다.”

본문 중에서:

“그가 지금껏 숨 쉬어 본 적이 없고, 전혀 사람이 살지 않으며,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생활 조건이 아주 척박한 고산 지대에 올라와 보니, 그의 마음은 흥분되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고향과 일상의 질서는 멀리 사라져 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밑 수천 길 아래에 있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저 위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한 것들과 미지의 세계 사이에 떠 있으면서, 저 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 보았다.” (상권 15~16쪽)

### 3 리어 왕·맥베스 KING LEAR · MACB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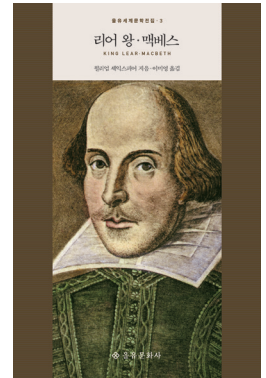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이미영 옮김

신과 같은 눈을 가진 작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가장 가까운 이가 셰익스피어라고 생각한다.  
 — 로런스 올리비에

셰익스피어는 한 시대가 아닌 영원에 속하는 작가다.  
 — 벤 존슨

인간 심연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빛나는  
 가장 셰익스피어다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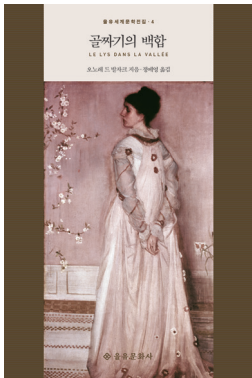
『리어 왕』과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작가적 기량과 인생에 대한 원숙한 시선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셰익스피어는 풍성한 상징과 은유로 고뇌, 갈등, 절망, 복수, 야심, 질투, 죽음 같은 인생의 어두운 뒤안길을 극적이고도 시적으로 그렸다.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선과 악, 고귀함과 비천함, 지혜와 어리석음, 도덕과 부도덕, 사랑과 증오, 운명과 자유의지 간의 갈등과 긴장을 발견하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가장 악한 인물도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가장 도덕적인 인물도 인간적 결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증법적 사물관은 우리를 삶의 양면성과 인간 운명의 비극성에 대한 성찰로 이끌어 간다. 그러기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구체적인 상황에 뿌리박고 있으면서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울림을 선사한다.



348면 / 10,000원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년 영국 스트랫 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비교적 유복하게 보냈지만 13세 되던 해 집안이 몰락하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1580년 중후반 무렵 런던으로 가 배우 겸 극작가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아 갔다. 1616년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역자 이미영: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영어과 교수다. 논문으로 『셰익스피어의 『겨울 이야기』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자에는 자로』: 권위를 문제 삼은 『문제극』, 『『친절이 죽인 여자』: 가부장적 결혼의 문제에 대한 탐구』 등이 있고, 저서로는 『다시 배우는 영문학사』(공저), 『헛소동』이 있다.



416면 / 12,000원

## 4 골짜기의 백합 LE LYS DANS LA VALLÉE

오노레 드 발자크 지음  
정예영 옮김

발자크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으뜸이었고,  
최고 중의 최고였다.  
— 빅토르 위고

나는 발자크가 뛰어난 관찰자로서  
명성이 높다는 점에 매번 놀란다.  
— 보틀레르

발자크는 예견자가 아니다.  
그는 근대 세계의 창조자이다.  
— 블레즈 상드라르

발자크의 대표작이자  
프랑스 연애 소설에 영향을 준 명작

『골짜기의 백합』은 발자크가 36세에 집필한 소설로 발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90여 편의 방대한 『인간극』 중에서 그의 대표작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에서부터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문학사의 주요 걸작들의 모델이 되었다. 발자크의 낭만적 성향이 최고도로 발휘된 이 작품은 플라토닉한 연애 소설이자 한 인간의 내적 성숙을 묘사한 성장 소설이며, 왕정복고기의 사회와 인간 군상을 날카롭게 묘사한 사회 소설이기도 하다. 결말부의 거둬되는 반전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독해를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은 당대 현실과 사회의 보편적 원리에 대한 발자크의 날카로운 통찰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선보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여러 모습은 왜 발자크가 리얼리즘 소설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를 잘 보여 준다.

“발자크의 『인간극』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축소시켜 놓은 ‘하나의 세계’이며, 인물들이 살아 숨 쉬고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미덕, 악덕 등을 펼치는 무대이다. 이 거대한 작품 세계 속에서 사실주의적인 사회 묘사, 심리극, 연애 소설, 추리 소설, 환상 소설 등 소설의 온갖 장르들이 총망라된다. 그중에서 「골짜기의 백합」은 작가의 낭만주의적인 색채가 가장 짙은 소설로 간주되고 있으며, 프랑스 문학사에서 연애소설의 전범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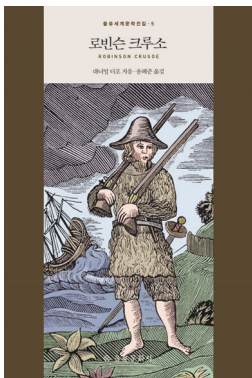
오노레 드 발자크

**Honore de Balzac**

1799년 투르에서 태어났다. 1819년 집필한 희곡 『크롬웰』을 읽은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인 앙드레외는 발자크에게 작가의 꿈을 접으라고 충고하기도 했는데, 그는 꿈을 접지 않고 계속 창작에 몰두해 10년 뒤인 1829년 비로소 첫 작품인 『올빼미 당원』을 출간했다. 이후 20여 년간 초인적인 집필 능력을 보이며 90여 편의 장편소설로 이루어진 방대한 『인간극』을 창조해 나갔다. 제목이 보여 주듯 단테의 『신곡』에 필적하면서 동시에 프랑스 호적부와 경쟁한다고 호언할 정도로 당대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려 했던 장대한 이 기획은 비록 미완에 그쳤으나 발자크를 문학사상 위대한 작가 가운데 하나로 남게 해 주었다.

역자 정예영: 서울대학교 불문과와 동대학원 불문과를 졸업했다. 2005년 파리 8대학에서 「발자크의 『인간극』에서의 이미지의 정신분석」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 불문과 교수이다. 논문으로는 「발자크와 20세기 음악」, 「환상문학을 둘러싼 해석들-모파상의 『오를라』를 중심으로」, 「발자크의 『양피 가족』에서의 우연과 놀이」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골짜기의 백합』 등이 있다.





462면 / 12,000원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도서  
101선

##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대니얼 디포 지음  
윤혜준 옮김

『로빈슨 크루소』는 근대 소설의 효시다.  
— 이언 와트

근대 사실주의 소설을 개척한

18세기 대표적인 고전소설

『로빈슨 크루소』는 대니얼 디포가 윈아홉 살 때인 1719년에 발표한 대표작으로 그보다 7년 늦게 출간된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로 꼽힌다. 대니얼 디포는 이 작품으로 18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발간 첫 해인 1719년에만 약 네 달 간격으로 5쇄에 들어갈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파격적이었다.

또한 당시 책시장의 관행대로 이 베스트셀러는 온갖 유령 판본들과 모조품들을 양산했고, 본인이 쓰지도 않은 ‘속편’들이 이미 시장에 돌아다녔다. 이에 저자는 『로빈슨 크루소』를 출간한 지 네 달 뒤에 속편 『로빈슨 크루소의 후속 여행』을 내놓았다. 『로빈슨 크루소』의 열기가 그다음 해까지 이어지자, 디포는 『로빈슨 크루소의 진지한 명상』이라는 교훈적인 명상록까지 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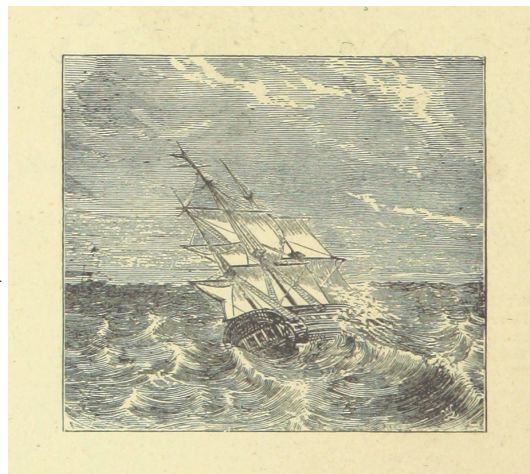
격동기 영국의 시대 분위기와 정신이 집약된 이 모험소설은, 1719년 초판이 나온 이래 오늘날에도 팬터마임, 오페라, 영화, 연극 등으로 각색되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디포와 그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그가 산 역사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산 역사에 태동된 사회, 경제, 정치적 제도와 이와 연관된 정서 및 사상,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만들어 낸 사실주의 소설 등의 문학 장르가 이후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디포는 ‘세계사적 개인’이기도 하다.”

대니얼 디포

**Daniel Defoe**

1660년 런던에서 양초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목사가 되기 위해 찰스 모턴 학원에 들어갔으나, 스물세 살 때 직물상을 개업하고 상인의 길을 간다. 그 후 윌리엄 3세 지지 논문을 발표하며 정치 평론가의 길을 걸었고, 「비국교도를 간편히 처치하는 법」이라는 논문으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윈아홉 살 때인 1719년 『로빈슨 크루소』를 발표하면서 일약 18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후 『로빈슨 크루소의 진지한 명상록』, 『왕당과 회고록』, 『던컨 캠벨의 생애』, 『싱글튼 선장의 생애와 모험과 해적 수기』, 『그 유명한 물 플랜더즈의 요행과 불행』 등을 발표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디포는 1731년 모어필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역자 윤혜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서로는 『Metropolis and Experience』, 『바로크와 나의 탄생』, 『블랙우즈 에든버러 매거진과 소설』 등이 있고, 최근 역서로는 『주석달린 크리스마스 캐럴』, 『내러티브』, 『로빈슨 크루소』 등이 있다.



844면 / 15,000원

## 6 시인의 죽음 詩人之死

다이허우잉 지음  
임우경 옮김

중국 현대 휴머니즘 문학의 기수,  
다이허우잉의 대표작

이 작품은 신중국 휴머니즘 문학의 기수이자 우리에게 『사람아 아, 사람아』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다이허우잉의 첫 작품이다. 주인공인 상난은 당과 혁명에 대한 낙관적 신뢰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반혁명분자로 몰려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른 작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인물이다. 그 밖에도 이 작품에는 역사의 격랑을 통과한 지식인들의 운명과 고뇌가 여러 인물들 속에 투사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작품은 문화대혁명을 관통한 지식인들의 생생한 역사적 자화상과도 같다.

격랑의 중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시인의 죽음』은 당시 지식인들이 치러야 했던 희생과 고뇌, 혁명의 상처, 정치적 광기 등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상흔 문학에 속한다.

이 작품은 반체제적 내용으로 인해 출간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는데, 다이허우잉은 이 작품을 시작으로 『사람아 아, 사람아』, 『하늘의 발자국 소리』를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격변기 중국 지식인의 운명을 그린 3부작을 완성했다.

“중국 문화 대혁명의 끝자락에서 작가  
다이허우잉이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었다.  
작가는 본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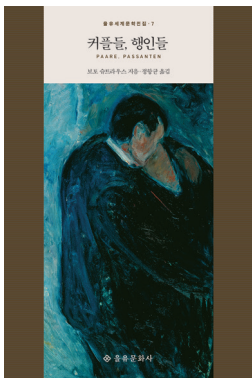
꿈꾸는 것이 혁명일진대 자신들의 혁명은 오히려  
인간다움을 박탈하고 모든 것을 계급성으로  
대체해 버렸다고 보았다. 작가의 이러한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정치화’가 아닌 ‘정치의  
인간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다이허우잉

**戴厚英**

1938년 중국 안후이성 잉상현에서 태어난 작가는 일찍부터 반우파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화대혁명 때에는 직장 혁명 지도 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검은 시인’으로 지목된 원계(聞捷)를 조사하면서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혁명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시인의 죽음』은 이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담은 것이다.

역자 임우경: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여성문학이론연구소 회원이며, 2008년 현재 베이징 칭와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 공간』, 『중국 문화의 주제 탐구』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제국의 눈』(공역)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세기말 중국 사상계의 분화: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여성과 민족/국가 상상」, 「민족의 경계와 문학사 쓰기: 타이완의 신문학사 편찬과 장애영 연구」 외 다수가 있다.



264면 / 10,000원

국내 초역  
1987년 장 파울 상 수상  
1989년 게오르크 뷔히너 상 수상  
2001년 함부르크 레싱 상 수상

## 7 커플들, 행인들 PAARE, PASSANTEN

보토 슈트라우스 지음  
정향균 옮김

슈트라우스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자신이 본 것을 아주 매력적인 언어로 표현하며 사라진 현실을 이론을 통해 되살려 놓는다. 이때 우리가 기적을 믿거나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 그저 작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경탄하는 것으로 족하다.  
— 요아힘 카이저

한트케, 엘리네크에 비견되는  
독일어권 문학의 가장 논쟁적 작가

현대 사회의 고독 속에서  
남녀 관계의 변질을 파헤치다

『커플들, 행인들』은 보토 슈트라우스의 사상 전반을 담은 대표작이다. 지난 30년간 천착해 온 그의 문학적 주제들을 독특한 형식으로 재현하는 에세이로 사랑, 고향, 문학, 회상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연작 형식으로 펼쳐 내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여섯 개의 장은 언뜻 보면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파편적인 문장에 부여된 일련의 내적 질서를 통해 이 책의 제목 ‘커플들, 행인들’이라는 주제를 향해 가고 있다. 맺어지지 못한 채 제 갈 길을 가는 커플은 서로에게 아무 의미가 되지 못하는 행인, 즉 타자와 다를 바가 없지만 작가는 타인들 간의 만남을 열어 주는 통로를 암시함으로써 커플이나 행인이 서로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상업화, 기계화, 인간의 고독을 다룬 이 작품은

20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현대인의 삶을 사유하는 문학적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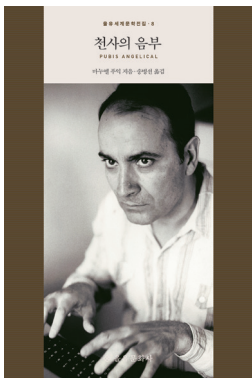
“『커플들, 행인들』은 보토 슈트라우스 사상 전반을 함축하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지만, 단순히 작가의 사상을 전달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이야기와 성찰이 혼재해 있는, 치밀하게 구성된 미학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토 슈트라우스

**Botho Strauß**

현대 독일어권 문학을 대표하는 1940년대생 작가로 분류되는 보토 슈트라우스는 1944년 나움부르크에서 태어났다. 뮌헨에서 독문학, 연극사, 사회학을 공부한 후 1967년부터 『테아터 호이테』에서 평론가 및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희곡은 물론 연극 평론, 소설, 시, 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의 문학을 구현해 왔다.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공연을 많이 올리는 극작가 중 한 명으로, 1972년 첫 희곡 작품인 「우울증 환자」가 초연되었다. 그 밖에 주요 작품으로 장편소설 『젊은 남자』, 에세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그』, 희곡 『마지막 합창』, 『이타카』, 『재회의 삼부작』, 『큰 세계와 작은 세계』 등이 있다.

역자 정향균: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독일 부퍼탈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 분야는 독일 사실주의 문학과 독일 현대 소설이다. 저서로는 『Dialogische Offenheit. Eine Studie zum Erzählwerk Theodor Fontanes』, 『므네모시네의 부활』, 『자본주의 사회와 인간 욕망』(공저)이 있고, 역서로는 『악마의 눈물』(공역)이 있다.



412면 / 12,000원

8  
천사의 음부  
PUBIS ANGELICAL

마누엘 푸익 지음  
송병선 옮김

SF, 첩보물, B급 영화, 포르노그래피가 혼재된  
라틴아메리카 현대 소설의 대표작!

『거미 여인의 키스』 작가 푸익의  
가장 ‘대중문화적인’ 작품!

1979년에 발표된 『천사의 음부』는 마누엘 푸익의 다섯 번째 소설로, 1970년대 멕시코, 1930년대 유럽, 그리고 먼 미래의 세 시점이 교차하면서 전개되는 환상적인 소설이다. 작품의 주제는 성과 정치, 무의식에 관한 것이며, 자신의 성(性)에 관해 사색하는 아니타와 그녀의 페미니스트 친구 베아트리스, 그리고 좌익 페론주의자인 포지가 등장한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아니타의 상태를 비롯해 페론 정권 아래의 아르헨티나 사회와 정치 상황을 재구성한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불행하고 배신당한 사랑과, 그런 사랑을 위해 이용되는 여자들을 그리면서 죽음, 모성애, 섹스 대상으로서의 여성, 아름답고자 하는 여자들의 욕망을 다루고 있다. 푸익은 늘 영화의 옹호자였으며, 『천사의 음부』는 그의 소설 중 이러한 대중문화 코드가 가장 많이 침투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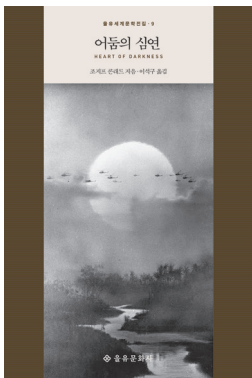
“남자들은 사치스러운 그녀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고, 그녀는 이런 남자의 말에 순종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라 왔지만, 이런 사회 규범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반기를 드는 것은 그녀의 의식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성기(性器)입니다. 불감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 마누엘 푸익, 인터뷰 중에서

마누엘 푸익

**Manuel Puig**

1932년 아르헨티나의 헤네랄 비에가스에서 태어났다. 중등 교육을 받기 위해 혼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갔고 건축을 공부하다가 1956년 로마로 가서 실험 영화 센터에서 공부했다.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로마에서 조감독으로 일하다가 1965년 뉴욕에서 첫 작품인 『리타 헤이워스의 배신』을 탈고했다. 1969년 『르몽드』는 『리타 헤이워스의 배신』을 1968년 최고의 소설로 평가했다. 아르헨티나를 떠나 뉴욕으로, 다시 멕시코로 거주지를 옮긴 뒤 1976년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거미 여인의 키스』를 출간했다. 이 작품은 할리우드에서 영화화되어 그에게 전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 주었다. 푸익은 1990년 아홉 번째 작품 『상대적인 습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다른 작품들로는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를』, 『열대의 밤이 질 때』 등이 있다.

역자 송병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했으며, 콜롬비아의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에서 석사 학위를, 하베리아나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이다. 저서로 『보르헤스의 미로에 빠지기』, 『영화 속의 문학 읽기』, 역서로 『거미 여인의 키스』, 『콜레라 시대의 사랑』,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칠 일 밤』, 『부에노스아이레스 어페어』, 『내일 전쟁터에서 나를 생각하라』, 『꿈을 빌려 드립니다』 등이 있다.



268면 / 10,000원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도서  
101선  
연세대 필독 도서 200선

## 9

### 어둠의 심연

#### HEART OF DARKNESS

조지프 콘래드 지음

이석구 옮김

콘래드의 펜에서 추하거나 쓸데없는 구절이  
흘러나오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 버지니아 울프

「어둠의 심연」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  
— 힐리스 밀러

식민주의의 전개와 그 종말까지 예견한 문제의 명작  
영화 「지옥의 묵시록」 원작으로 너무나 유명한 소설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텍스트인  
동시에, 심리 비평과 신화 비평 등 다양한 잣대로  
해석되는 이 작품은 1890년에 실제로 있었던 콘래드의  
콩고 강 운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둠의 심연」  
외에도 이 책에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단편소설  
「진보의 전초기지」, 『청춘과 다른 두 이야기』 작가  
노트, 『나르시스호의 검둥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주인공 말로는 아프리카의 강 상류에 위치한  
교역소에서 ‘전설의 인물’ 커츠를 만나게 된다. 유럽식  
교육의 수혜자이자 지식인의 한 명이었던 커츠는  
유럽으로 향하는 증기선에 올라탄 후에도 다시 정글로  
도망치는 등 야만적인 습속을 탐닉하고 싶은 욕구를  
떨쳐 내지 못하는데…….



조지프 콘래드

Joseph Conrad

문학평론가 프랭크 레이먼드 리비스는 영국 소설의 위대한 전통이 제인 오스틴에서 시작해 조지 엘리엇, 헨리 제임스, 조지프 콘래드를 거쳐 D. H. 로렌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프 콘래드는 폴란드 태생이었다. 그가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874년(17세) 선박 회사 취직 이후로, 당시 영어는 작가에게 외국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1894년 선원 생활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든 작품을 영어로 집필했다. 정치범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부모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유배 생활을 해야 했던 작가는 어릴 때부터 탐험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다. 결국 항해사가 되었고 바다 위에서의 생활은 소설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대표작인 『로드 짐』은 동남아시아 항해를 경험으로 한 것이며, 『노스트로모』는 1876년의 서인도 제도 항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밖에 주요 작품으로 『올메이어의 어리석음』, 『나르시서스호의 검둥이』, 『비밀요원』 등이 있다.

역자 이석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블루밍턴)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풀브라이트 연구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이다. 공저로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일곱 개의 강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다시 읽기: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화해와 공존으로』 등이 있다.

“말로는 강변에서 목격한 야만인들의 광란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야만적 습속에 자신도 점차 동화된다고 느낀다. 도망 간 커츠를 잡으러 나갔다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야만인들의 북소리를 동일시하는 순간이라든지, 정글 속에서 늑을 때까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말로는 유럽이 가르치고 주입시켰던 문명적 사유와 도덕적 가치를 버리게 된다. 그의 정신세계를 장악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명이 그토록 오랫동안 억압하려고 애써 온 야성적 본능이다.”

본문 중에서: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첫 번째 썰물을 놓쳐 버렸네.” 이사직을 맡은 이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머리를 들었다. 검은 구름의 독이 앞바다를 막고 있었고, 지구의 끝까지 뻗은 고요한 수로가 어두운 하늘 아래 음산하게 흐르다가, 거대한 어둠의 깊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167~168쪽)

10

도화선

桃花扇

공상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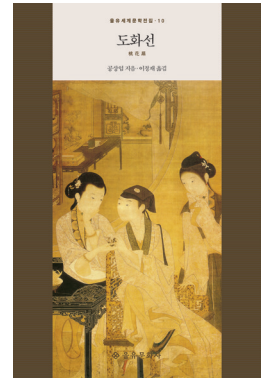
이정재 옮김

국내 최초로 완역 소개되는 중국 전통극의 최고봉 남녀 이합의 정을 빌려 역사의 흥망을 말하다

중국 전통 장편 희곡의 대표작인 『도화선』은 공자의 64대손인 공상임이 지은 것으로, 한 왕조의 흥망사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극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자결과 남명 왕조 초기 복왕 정권의 흥망을 배경으로, 젊은 선비 후방역과 남경 기생 이향군의 만남과 이별, 재회와 각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공상임은 남녀 이합의 정을 빌려 흥망의 감회를 말하고자 이 극을 썼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이합의 정’은 후방역과 이향군의 만남과 이별을, ‘흥망의 감회’는 남명 복왕 정권의 흥망 과정을 의미한다. 공상임은 후방역과 이향군의 이야기를 통해 명 왕조가 누구 때문에 패망했는지를 엄중하게 묻고 있다. 그는 명 패망의 일차적 원인은 패악한 권력 집단이며,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한 양문충이나 후방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다.

젊은 남녀의 비환이합(悲歡離合)이라는 낭만적인 주제와 역사에 대한 회환과 반성이 잘 어우러져 있는 『도화선』은 중국에서 역사극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완역본에서는 주석이 상세하고 오류가 비교적 적어 널리 보급된 왕계사 교주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684면 / 15,000원

『도화선』은 중국 전통극의 역사에서 예술적, 사상적으로 최고봉이라고 보아도 될 만큼 역사적 의의를 지닌 작품이다. 중국에서 연극의 역사는 매우 유구하지만, 명·청 왕조의 교체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성격의 극작품이 많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풍자, 비판이나 희로애락의 감정을 넘어 고통스러운 자기반성으로서의 역사극이 등장했는데, 『도화선』이 바로 그것이다.”

공상임

孔尙任

청 순치(順治) 5년 옛 노나라의 수도인 곡부에서 태어났다. 일생의 대부분을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한 강희제 치세기에 살았지만, 유가적 정통 왕조인 명나라의 신하임을 자임한 부친의 영향으로 전 왕조에 대해 회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 작품으로 『소홀뢰(小忽雷)』, 『호해집(湖海集)』, 『안당고(岸堂稿)』 등이 있고, 문집으로 『석문산집(石門山集)』이 있다. 강희 57년, 71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역자 이정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과정 중에 중국 산둥대학(山東大學)에서 유학했고, 귀국 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특별 연구원으로 있었다. 현재는 대구한의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조교수로 있다. 옮긴 책으로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중국 고대 극장의 역사』(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백박 잡곡 연구」, 「고사계강창 연구」, 「도화선의 이념적 지향」 등 다수가 있다.

## 11 휘페리온 HYPERION

프리드리히 뢰들린 지음  
장영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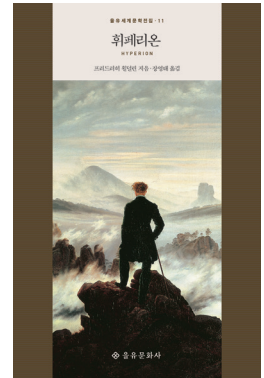
『빵과 포도주』의 시인으로 불리는 뢰들린의 서정적 교양 소설

신과 자연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고대 그리스적 세계에 대한 동경의 노래

터키의 압제 아래 있던 18세기 후반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주인공 휘페리온이 독일인 친구 벨라르민에게 보낸 서신과 연인 디오티마와 주고받은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편지에서 휘페리온은 황금시대인 유년기, 스승 아다마스와의 만남, 행동주의자 알라반다와 함께한 그리스 해방 전투, 이상적 세계의 상징인 디오티마와의 사랑과 이별, 알라반다와 디오티마의 죽음 등을 겪은 뒤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현재의 심경을 술회한다.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휘페리온의 자기 성찰과 의식의 형성 과정, 인간과 자연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근원적 세계에 대한 사무치는 동경, 휘페리온 안에 있는 불협화음의 해소 등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독일 교양 소설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 준다.

괴테, 실러와 동시대인이면서 생전에 그들처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평생을 정신 착란 속에서 불우한 삶을 살아야 했던 시인 뢰들린이 남긴 유일한 소설인 『휘페리온』에는 “그리스의 은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부제처럼 독자는 은자에게서



368면 / 12,000원



프리드리히 뢰를린

**Friedrich Hölderlin**

1770년 독일 라우펜에서 태어났다. 튀빙엔 신학교 시절 헤겔, 셸링 등과 교류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또한 프랑스 혁명을 지켜보면서 혁명의 이상에 심취하기도 했다. 뢰를린은 신이 사라져 버리고 자연과의 조화가 무너진 자신의 시대를 탄식하는 한편, 모순과 대립이 지양된 조화로운 전체에 대한 동경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무려 37년간이나 정신 질환에 시달리다 1843년 7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역자 장영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과 동 대학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뮌헨대학에서 수학하고, 『뢰를린의 시학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홍익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뢰를린 생애와 문학 사상』, 『지상에 척도는 있는가: 뢰를린의 후기 문학』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의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마렌 그리제바하의 『문학 연구의 방법론』, 디터 랄핑의 『서정시: 이론과 역사』, 케테 함부르거의 『문학의 논리』 등이 있다.

직접 현명한 가르침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슐레겔은 ‘완벽한 소설이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보다도 훨씬 더 낭만적인 예술 작품이어야 한다. 한층 더 현대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시적이고, 정치적이고, 자유롭고, 보편적이고, 사회적이어야만 한다’고 했다. 만약 그가 『휘페리온』을 읽었더라면 자신의 요구가 여지없이 실현되어 있는, 『빌헬름 마이스터』를 훨씬 능가하는 작품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12

루쉰 소설 전집

魯迅小說全集

루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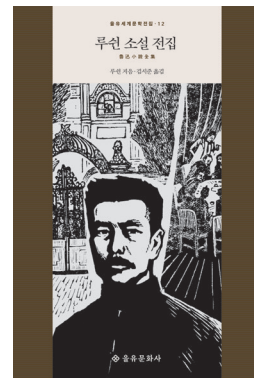
김시준 옮김

중국이 낳은 세계적 대문호

루쉰 문학의 결정판

이 책은 루쉰이 일생 동안 발표한 소설들을 엮은 소설집 『낙함』, 『방황』, 『고사신편』 등 3권에 수록된 33편을 번역한 완역본이다. 『아큐정전(阿Q正傳)』으로 대변되는 그의 소설은 중국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통하던 과도기에 중국인들이 체험하였던 고통과 혼란과 방황을 주제로 하고 있다. 루쉰은 봉건주의라는 전통 사회의 미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 계몽하여 봉건 윤리라는 미신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앞장서서 중국의 근대화에 공헌하였고, 강렬한 민족의식에 기반을 둔 작품을 통해 후대의 문학사조나 형식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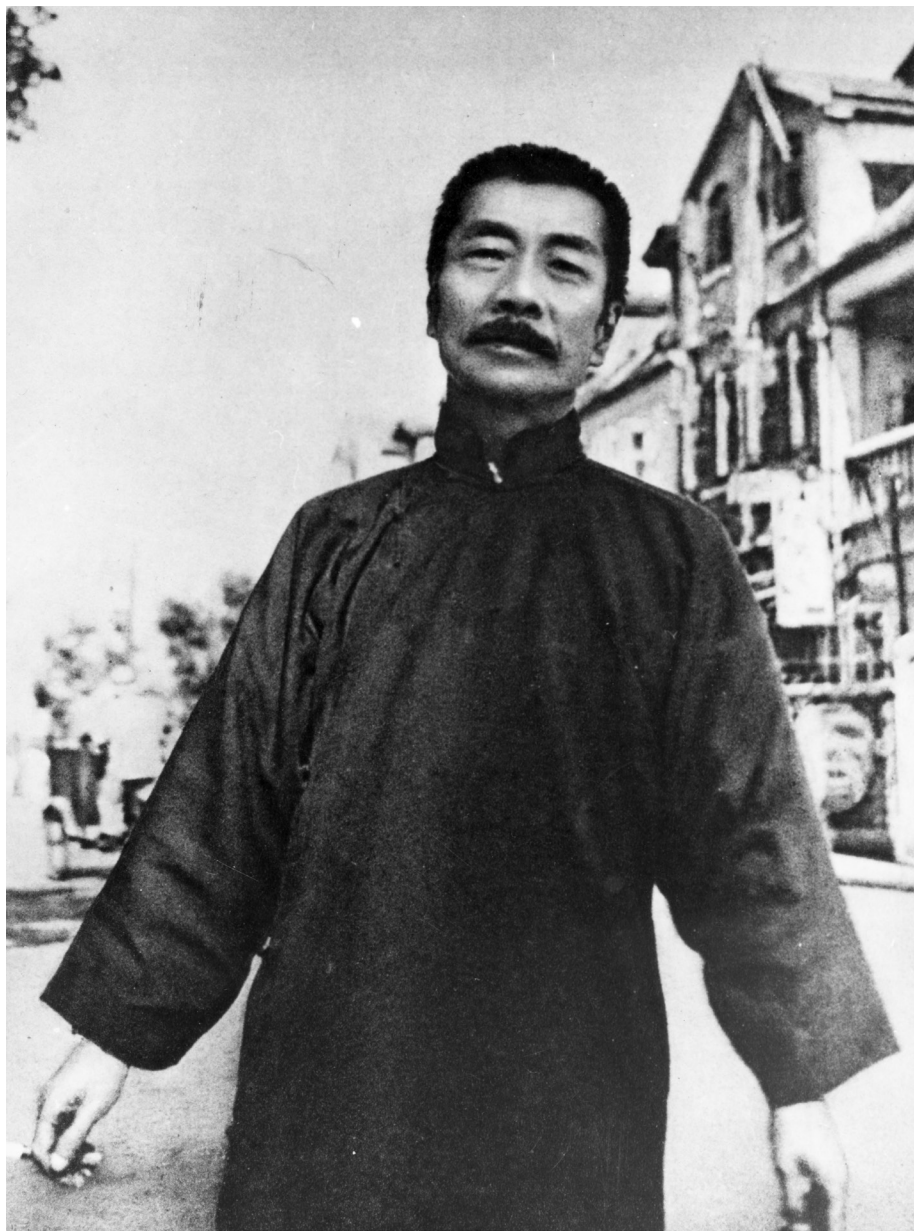
이 책에는 중국의 유교적인 가족 제도가 지니는 병폐와, 예절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인간을 얼마나 속박하는지를 미친 사람(광인)을 통해 들춰 보인 「광인일기(狂人日記)」, 중국이 역사적으로 계승하여 온 중화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자기만족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며 사는 정신 승리법과 우매성, 약점을 아큐에 집약하여 중국 국민적 성격의 전형성을 풍자한 대표작 「아큐정전(阿Q正傳)」이 수록되어 있다.



684면 / 15,000원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

연세대 필독 도서 200선



“루쉰은 고전 소설의 형식과 전통적 속문학의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새롭고 대담한 형식을 취했다. 또 형식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여태까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봉건 사회의 근간인 ‘예교(禮敎)의 타파’를 주장하는 주제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한 피해망상증 환자(광인)의 입을 빌려 ‘예교’는 사람을 잡아먹는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이 소설은 수천 년 동안 봉건사회에서 ‘예교’라는 사상에 속박되어 있던 중국 국민들의 기본 사상을 뒤흔들어 놓아 독자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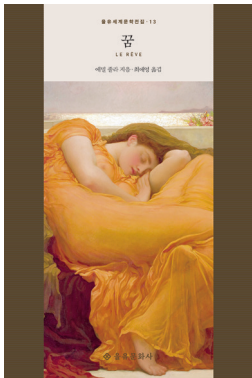
새로운 삶의 길은 아직 얼마든지 있다.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어떻게 해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지를 모른다. 때로는 마치 그 삶의 길이 한 마리의 회색빛 뱀처럼 스스로 꿈틀거리며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다리며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자 갑자기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419쪽)

루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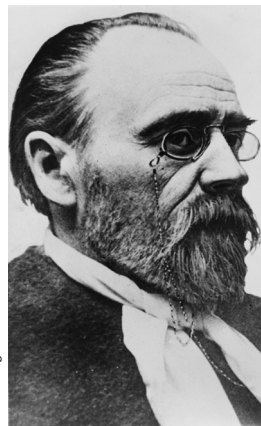
魯迅

청조가 쇠퇴하던 1881년에 태어나서 봉건 왕조가 붕괴하는 과정을 목도하며 격랑 속에서 유소년기를 보냈다. 1918년 중국에서 최초의 현대 소설인 「광인일기」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해 중국 현대문학의 선구자로 문학계를 이끌었다. 소설집으로 「납함」, 「방황」, 「고사신편」이 있고 산문집으로 「야초」, 「아침꽃을 저녁에 줌다」, 「열풍」 등을 남겼다. 1936년 10월 19일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역자 김시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대만대학 중국문화연구소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 『중국현대문학사』, 『중국현대문학론』, 『중국당대문학사조론연구』, 『중국당대문학사』, 『모시연구』, 『한반도와 중국3성의 역사문화』(공저), 『반도와 만주의 역사문화』(공저) 등이 있고, 번역서로 『노잔유기』, 『루쉰 소설선』, 『리가장의 변천』, 『샤오얼헤이의 결혼』, 『중국현대산문선』, 『안자춘추』, 『대학 중용』, 『소동파시선』, 『고문진보 후집』, 『초사』, 『벽위편』 등이 있다.



352면 / 12,000원



www.loc.gov

### 13 꿈 LE RÊVE

에밀 졸라 지음  
최애영 옮김

에밀 졸라의 가장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소설

국내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 작품은 『목로주점』, 『제르미날』 등으로 자연주의 문학을 확립한 에밀 졸라의 가장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앙젤리크’라는 한 고아 소녀가 경험하는 환영 같은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작품 전반에 걸쳐 원시 가톨릭교회의 신비주의적 색채가 주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루공-마카르가』 시리즈에서도 예외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꿈』에는 저 너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질문과, 신앙과 기도로 점철된 고요한 삶에 대한 이끌림과, 우리 내면에 도사린 힘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초자연적 믿음,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물론적인 설명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꿈이다. 우리 각자는 어떤 신기루를 만들어 낸 다음 사라져 버리는 어떤 겉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이 소설이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확장된 의미일 것이다.  
— 에밀 졸라의 작품 메모

“에밀 졸라는 주인공 앙젤리크의 운명을 설득력 있게 그리기 위해 수백 년간 삶이 정지해 버린 한 지방 소도시를 배경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으로는 그 의미가 이미 쇠퇴해 버린, 성직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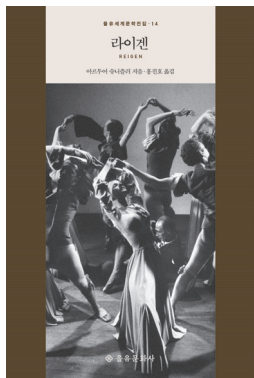
제례 의복에 수놓는 일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교육과 환경과 유전 간의 메커니즘으로 한 인간의 삶을 설명하려는 자연주의의 관점에 충실한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에밀 졸라

**Émile Zola**

1840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19세기 후반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유전과 생리학에 관한 글을 읽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과학적 결정론의 토대 위에 발자크의 『인간극』에 버금가는 작품을 쓰겠다는 야망을 갖고 19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에 대한 방대한 문학적 벽화를 그려 나갔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루공-마카르가』 시리즈다. 그는 한편 드레퓀스 사건을 거치면서 참여적 지식인의 대명사로도 각인되었다. 1902년 의문의 가스 질식사로 눈을 감았다.

역자 최애영: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파리8대학에서 정신 분석 문학 비평을 전공했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한국문화연구단에서 연구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아프리카인』, 『칼 같은 글쓰기』, 『사랑에 빠진 악마』, 『문학 텍스트의 정신 분석』 (공역) 등이 있다.



344면 / 12,000원

아르투어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

그의 작품은 인간 심리를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찰하듯 지극히 분석적인 시선으로 관찰하여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병원 검사 기록에 가깝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누구보다도 전환기의 시대정신을 잘 보여 준 슈니츨러는 『죽음』, 『아나톨』, 『꿈의 노벨레』 등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역자 홍진호: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4  
라이젠  
**REIGEN**

아르투어 슈니츨러 지음  
홍진호 옮김

슈니츨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심리 연구자다.  
— 지그문트 프로이트

19세기 후반 유럽의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작가이자 ‘문학계의 프로이트’라 불린 슈니츨러의 문제작

라이젠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춤의 형태로, 원형으로 둘러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추는 것이 특징이다. 슈니츨러는 이 춤의 형식에 착안해 『라이젠』을 집필했다. 모두 열 명의 인물이 차례로 연인을 바꾸어 가며 사랑을 나누는 열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작품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한 인물이 열 번째 에피소드에 다시 등장함으로써 라이젠 춤과 동일한 순환 구조를 보여 준다. 또한 각각의 에피소드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노골적으로 성을 주체화했다는 점, 엄격한 성 윤리에서 벗어나는 관계를 그렸다는 점, 성적 욕망을 도덕적으로 간단히 단죄할 수 없는 자연의 본능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당시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문제작이었다. 이후 『라이젠』은 빈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재평가받았다.

15  
로르카 시 선집  
**POEMAS**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지음  
민용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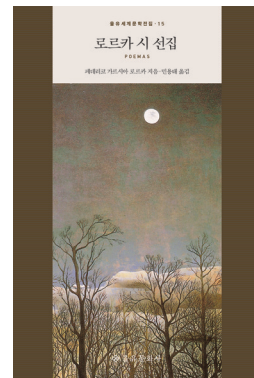
요절환 천재 시인 로르카의 매혹적 시 세계  
유려한 우리말 번역으로 완성된 로르카 시집의 결정판

이 책에 실린 시들은 로르카가 남긴 9권의 시집에서 가려 뽑은 것들로서, 이처럼 많은 분량의 로르카 시가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가 오늘 로르카 시를 번역하게 된 것은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하는 역자의 유려한 번역이 로르카를 한국어로 생생하게 되살리고 있다.

로르카는 생전에 이미 국민 시인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거의 신화가 된 그의 아까운 죽음은 그를 일종의 국민적 영웅, 좌절한 스페인의 양심 자리에 올려놓았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그의 명징한 시편들은 아직도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로르카의 문학 활동은 다방면에 걸쳐져 있고 특히 열정을 바쳤던 연극에서 로르카의 이름은 브레히트나 피란델로와 같은 개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그의 본령은 시에 있다.

“로르카의 죽음은 한 어린아이의 죽음이었다. 나이는 서른여덟이었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파한 것은 순수와 자연과 아름다움의 죽음, 즉 아이의 죽음이었다. 로르카는 첫 시집부터 동화의 세계, 도마뱀이나 거북이, 곤충의 세계를 많이 다루었다.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392면 / 12,000원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Federico García Lorca**  
 1898년 초등학교 여교사인  
 어머니와 부자 농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1921년 첫  
 시집 『시 모음』을 출간했다.  
 1928년 『집시 이야기 민요집』으로  
 스페인 국가 문학상을 받으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스페인  
 공화국이 수립되자 로르카는  
 자신의 극단을 조직하고 전국을  
 순회했다. 연극은 그의 시들  
 못지않게 대성공을 거두었다.  
 로르카 자신은 이데올로기를  
 의식하지 않았고 작품에 특별한  
 정치색을 입히지도 않았으나,  
 1936년 내전 발발과 함께  
 체포된 뒤 총살되었다. ‘소련의  
 스파이’라는 죄목이었다.

역자 민용태: 1943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다. 한국외대  
 서반어학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마드리드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명예  
 교수이다. 지은 책으로 『스페인  
 문학 탐색』, 『라틴아메리카 문학  
 탐색』, 『서양 문학 속의 동양을  
 찾아서』, 『스페인 중남미 현대시의  
 이해』, 『스페인 중세 황금 세기  
 문학』, 옮긴 책으로 마르케스의  
 『마마 그란데의 장례식』, 네루다의  
 『태양의 돌』, 세르반테스의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키호테』 등이 있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와 살바도르 델리, 1925. commons.wikimedia.org

또한 동시를 수없이 많이 썼다. 그만큼 로르카는  
 어린 시절을 순수과 아름다움의 모델로 살아온  
 시인이다.”

## 16 소송 DER PROZ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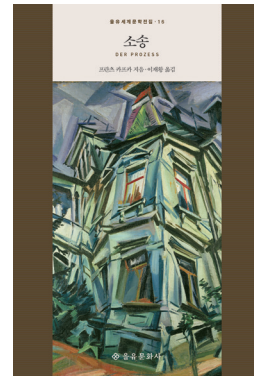
프란츠 카프카 지음  
 이재황 옮김

모든 것을 제시하지만 아무것도 확증하지 않는 것이  
 『소송』의 운명이자 위대함이다.  
 — 알베르 카뮈

카프카는 현대인의 정신 상황을 정밀하게 기록하는 지진계다.  
 — 헤르만 헤세

현대성의 본질과 운명을 통찰한  
 카프카 문학의 정수

『소송』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체제와 과학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을 향한 20세기의 여명기에  
 현대성의 본질을 통찰하고 인간 존재의 근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투영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더  
 이상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현대 세계’와 이질적이고 모순적이며  
 다층적인 ‘인간 주체’에 대한 이중의 인식을  
 그로테스크하게 그렸다는 점에서 현대 문학의  
 시원(始原)이 되고 있다.



386면 / 12,000원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1883년 체코 프라하에서 유대계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1년에 프라하대학에 입학하여  
 법학, 화학, 문학을 공부하면서  
 1906년 법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프라하의  
 국영 보험회사 ‘노동자 산재보험  
 공사’에서 14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글을 쓰는 일을  
 병행했다. 1917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1924년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결핵 요양소에서 사망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성』, 『변신』,  
 『실종자』, 『판결』, 『유형지에서』  
 등이 있다.

역자 이재황: 서울대학교 독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본대학교에서 2년간 수학했다.  
 서울대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상명대,  
 강원대에 출강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독일이야기』(공저), 옮긴  
 책으로 『변신』,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 『오페라』, 『선과 악』  
 등이 있다.



280면 / 10,000원

17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

LA LITERATURA NAZI EN AMERICA

로베르토 볼라노 지음

김현균 옮김

『백년 동안의 고독』 이후

가장 상상력이 넘치는 라틴 아메리카 소설이다.

— LA 타임스

역사상 어떤 작가도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 같은

소설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 니콜 크라우스

우리의 허를 찌르며 문학적 야심의 본질을

거울처럼 비춰 주는 책.

— 프랜시스코 골드만

히틀러를 사랑한 극우 작가 30명,  
그들의 행적을 사전 형식으로 서술한 블랙 유머 소설

이 책은 백과사전의 형식을 빌어 가상의 아메리카 극우 작가 30명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해설하고 있는 블랙 유머 소설이다. 아르헨티나 작가가 여덟 명이고 미국 작가도 일곱 명이나 된다. 부르주아 귀부인, 뒷골목 인생, 축구 서포터, 게임 제작자, 심지어 흑인까지 포함된 이들 아리안주의자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며 실존 인물들과 교통하기까지 한다. 볼라노의 이름을 스페인어권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 작품은 허구적으로 창조된 극우 작가들이 작품 세계 한 축을 구성하는데, 그의 여러 작품에 이들이 되풀이해 등장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작품 속에서 어떤 이는 어린 시절 아돌프 히틀러와 찍은 기념사진을 간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추근거리는 동성애자 앨런 긴즈버그에게 주먹을 날리기도 한다. 재능을 가진 사람도 몇 명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경찰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50명이 읽을까 말까 한 시와 소설을 쓰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죽는다. 이들의 허망한 삶과 아무 가치도 없는 작품들은 문학이라는 꿈의 세계에 잘못 발을 들여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애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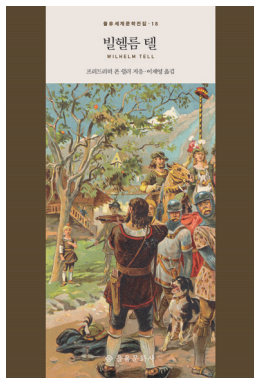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들은 패자이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열정으로 집요하게 그 사실을 부인한다. 아리안 문학 결사를 조직하거나 임하지도 않고 리뷰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을 책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그들은 포기를 모른다. 제한된 지면에서 작가는 종종 애처롭게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놀랄 만큼 감동적이며, 또 때로는 더없이 냉혹한 인물들의 초상을 압축적으로 스케치하는 데 성공한다. 세상과 불화하는 이러한 인물들의 존재는 매혹적이다.”

로베르토 볼라노

Roberto Bolaño

수전 손탁이 “그 세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은 작가”라고 부른 로베르토 볼라노는 1953년 칠레에서 태어났다. 청소년 시절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이주한 뒤, 학교를 그만두고 독서에 열중한 그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칠레 사회주의 정부를 돕고 싶어 귀국했는데, 한 달 만에 피노체트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바로 체포되었으나 학장 시절 동기인 간수의 도움으로 8일 만에 석방되어 멕시코로 돌아갔다. 시가 자신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된 시기를 전후로 소설에 손을 대게 되었다. 이후 내놓은 소설들은 각종 문학상을 휩쓸었고 볼라노는 라틴아메리카의 젊은 작가들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2003년, 50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간부전으로 사망했다.

역자 김현균: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마드리드 콤폴루텐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인어와 슬관들의 우화』, 공저로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 『환멸의 세계와 매혹의 언어』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책과 밤을 함께 주신 신의 아이러니』, 『천국과 지옥에 관한 보고서』, 『아디오스』, 공역으로 『히스패닉 세계』, 『빠블로 네루다』, 『눈을 뜨시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등이 있다.



236면 / 10,000원

프리드리히 폰 쉴러  
**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자유’의 시인, ‘독일의 셰익스피어’  
 등으로 불리는 쉴러는 1759년 독일  
 남부 네카 강변의 마르바흐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1781년  
 첫 작품 『도적들』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극작품으로 『도적들』을 비롯해  
 『피에스코의 모반』, 『간계와 사랑』,  
 『돈 카를로스』, 『발렌슈타인』,  
 『마리아 슈투아르트』, 『오를레앙의  
 처녀』 등이 있다.

역자 이재영: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철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같은 대학  
 박사 과정에서 쉴러의 미학과  
 문학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아이들은 철학자다』,  
 『두 여자 사랑하기』, 『철학의  
 탄생』, 『이민자들』 등이 있다.

## 18 빌헬름 텔 WILHELM TELL

프리드리히 폰 쉴러 지음  
 이재영 옮김

쉴러는 쉬지 않고 정신적인 자유에 대해 말했다.  
 그의 유산은 이후 낭만주의자들의 정신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 이사야 벌린

자유와 혁명의 이상, 빌헬름 텔  
 자유의 시인 프리드리히 쉴러의 마지막 작품

14세기 있었던 스위스 민중 봉기를 배경으로 한  
 『빌헬름 텔』은 괴테와 함께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최고봉을 이룬 쉴러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평생  
 ‘자유’를 화두로 삼은 그의 사상적 지향성과 작가로서의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1804년 괴테의  
 감독 아래 바이마르 궁정 극장에서 초연되어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민중의 저항과 자유 의식,  
 심지어 폭군 살해의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 작품은 그  
 정치적 폭발력 때문에 공연이 금지되거나 많은 부분이  
 삭제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결국 독일 연극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는  
 학생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되는가 하면, 오페라로도  
 개작되어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국민극의 반열에 올라 지금도 해마다 상연되고 있다.

## 19 아우스터리츠 AUSTERLITZ

W. G. 제발트 지음  
 안미현 옮김

오늘날에도 위대한 문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제발트의 소설에 들어 있다.  
 — 수전 손택

동시대 유럽에서 나온 가장 독창적인 목소리.  
 — 폴 오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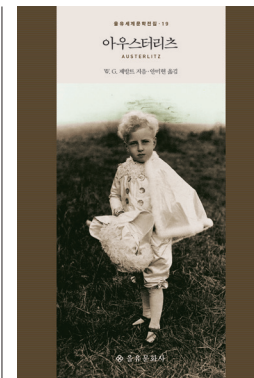
제발트는 독일이 낳은 보르헤스다.  
 — 시바스천 셰익스피어

제발트는 21세기의 제임스 조이스이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감동적이고 진실한 소설.  
 — 더 타임스

카프카와 보르헤스의 혼은 죽지 않고  
 제발트의 소설 속에서 살아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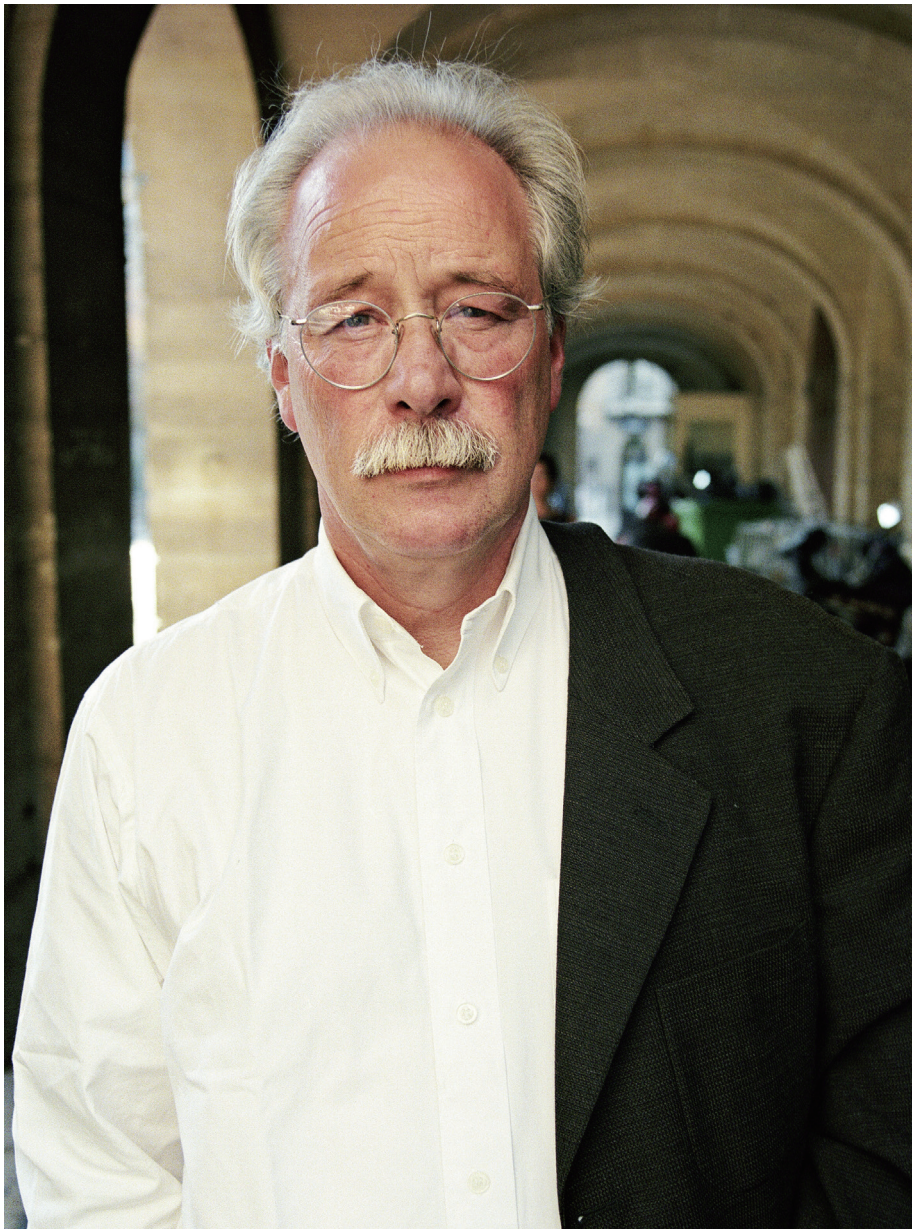
21세기 독일 문학이 내놓은  
 가장 감동적인 소설의 하나!

이 책은 네 살 때 혼자 영국으로 보내진 프라하 출신의  
 유대 소년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과거와 부모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주인공 ‘나’가  
 벨기에에서 늙은 건축사가 아우스터리츠를 만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이다. 100여 개의 흑백 사진  
 및 이미지가 본문에 수록되어 독자들에게 특이한 독서  
 체험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352면 / 12,000원

제6회 시몬느 번역상  
 (한독문학번역상) 수상  
 전미 비평가 협회상, 브레멘상,  
 「인디펜던트」 외국 소설상 수상  
 「LA타임스」, 「뉴욕」,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선정  
 2001년 최고의 책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했을 때 유대인 어린아이를 영국으로 피신시키는 구조 운동이 일어났다.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영국은 약 1만 명의 유대 어린이를 받아 주었는데, 네 살이었던 아우스터리츠 역시 그때 영국으로 건너왔다. 양부모는 그의 출신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 자신도 20세기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뒷날 건축사가가 된 아우스터리츠는 이제는 꿈처럼 막연한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유년 시절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데…….

“아우스터리츠와 마찬가지로 많은 아이들은 다시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부모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 트라우마와 같은 정체성 상실의 결과에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덧붙여져 우울증과 대인 장애, 모든 종류의 불안과 불신 등에 시달렸다는 것은 이들의 공통적인 체험이다.”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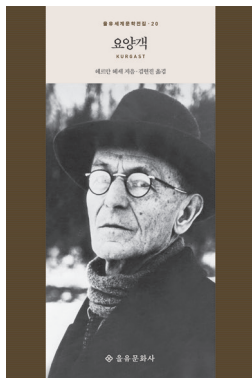
실제로 내가 미혹당한 사람처럼 한가운데 서 있었던 그 대합실은 마치 내 과거의 모든 시간들과 이전부터 억눌리고 사라져 버린 불안과 소망을 포함하고, 내 발 아래 돌로 된 바닥의 검고 흰 다이아몬드 무늬가 내 생애 마지막 게임을 위한 운동장인 듯한, 시간의 전 차원으로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아우스터리츠는 말했다. (152쪽)

W. G. 제발트

Winfried Georg Sebald

1944년 베르타호에서 유리 제조업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등에서 수학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이스트앵글리아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가르쳤다. 1988년 첫 시집 『자연에 따라. 근원시』를 발표한 이래 산문집 『현기증, 감정, 『무서운 고향. 오스트리아 문학에 관한 에세이들』, 중편소설집 『이민자들』을 출간하면서 수전 선택 등의 극찬을 받으며 동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거장으로 주목받았다. 베를린 문학상, 요하네스 보브로프스키 메달, 노르트 문학상, 원게이트 픽션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2001년 제발트는 교통사고로 영국 노포크에서 숨을 거두었다.

역자 안미현: 한국의국어대학과 동 대학원에서 독문학을 전공했다.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레싱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목포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교수이다. 독일 문학, 여성적 글쓰기, 수사학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296면 / 10,000원

1946년 노벨문학상, 괴테상 수상  
국내 초역 「뉘른베르크 여행」 수록

## 20 요양객 KURGAST

헤르만 헤세 지음  
김현진 옮김

헤세의 매혹적인 이 수기는 마치 나의 일부인 것처럼 다가왔다.  
— 토마스 만

헤세는 우리 세기 '투명한 정신'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다.  
— 랄프 프리드먼

반쯤 농이 섞여 있지만 내 글 중 가장 개인적이고 진지한 작품이다.  
— 헤르만 헤세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 비견되는 체험 수기  
헤세 스스로 가장 개인적이고 진지하다고 평한 작품

이 책은 「요양객」, 「방랑」, 「뉘른베르크 여행」을 묶은 것으로, 헤세가 생의 중반기 이후 은거한 스위스 몬타놀라에서 쓴 자전적 수기다. 헤세의 오랜 화두, 즉 예술가의 삶이란 시민성과 예술성이라는 두 양극성 사이를 부유하며 합일성의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요양객」은 그 주제와 이야기 배경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동시대 작가인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 비견되기도 한다.

1919년 5월 방랑자 헤세는 류머티즘 관절통과 좌골 신경통증이 발병하여, 바덴 요양소에 머문다. 환자로서 수동적인 일상을 보내야 하는 익숙하지 않은 생활을 견뎌 내기 위해 헤세는 날마다 자신이 체험한 인상을 적어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쓴 체험 수기가 일종의 ‘요양 심리학’인 「요양객」이다. 그 밖에도 이 책에는 시민적 삶을 떠나 자전적 삶으로 옮겨 가는

자신의 방랑 여정을 그린 「방랑」과, 뉘른베르크로부터 낭송회 초빙을 받고 독일 여행을 감행하는 이야기 「뉘른베르크 여행」도 함께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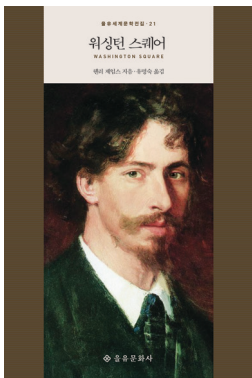
“몇몇 인물들의 이름만 바뀐 채 바덴 요양소의 일상과 작가의 내면세계가 거의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이 자전적 수기를 읽다 보면 동시대 작가인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토마스 만은 헤세의 「요양객」이 발표된 같은 해에 『마의 산』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두 작품은 규모와 장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놀라움을 주었고, 이는 동시대 비평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었다.”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칼브의 유서 깊은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첫 시집인 『낭만적인 노래』가 릴케에게 인정받아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나 아버지의 사망, 막내아들의 발병, 아내의 정신병 악화, 두 번에 걸친 결혼의 실패, 건강의 악화 등 가정의 불운이 겹쳤다. 헤세는 고뇌와 절망, 그 극복을 위한 정신적 투쟁의 과정을 문학 속에 담아냈는데, 이는 내면의 길을 통한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한 험난한 고투였다. 주요 작품으로 『페터 카멘친트』, 『데미안』, 『싯다르타』, 『황야의 이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유리알 유희』 등이 있다.

역자 김현진: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토마스 만의 소설에 관한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 『음』, 『상징과 리비도』,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레만 씨 이야기』, 『그림과 혁명』 등이 있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320면 / 12,000원

## 21 워싱턴 스퀘어 WASHINGTON SQUARE

헨리 제임스 지음  
유명숙 옮김

헨리 제임스는 어떠한 비밀도 남기지 않는다.  
그는 모든 비밀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즉 아름답게 드러낸다.  
— 조지프 콘래드

명료하고, 은근하며 차갑고,  
아이러니하지만 상냥한, 섬세한 걸작.  
— 칼 벤 도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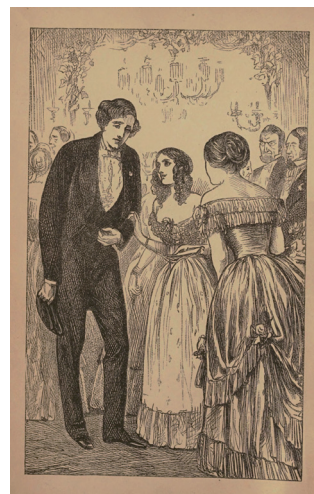
헨리 제임스 작품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소설  
결혼과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드라마

『워싱턴 스퀘어』는 오스틴, 발자크, 호손 등 선배 작가들의 ‘흔적’이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으면서 제임스 고유의 터치가 살아 있는 걸작이다. 1880년에 발표되어 제임스답지 않게 간명한 상황 설정과 문체, 작은 수의 등장인물로 이루어진 이 장편소설은 이후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널리 애독되어 왔으며 “헨리 제임스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워싱턴 스퀘어』만큼은 좋아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제임스 문학의 입문서 구실을 했다. 두 차례 영화화되었으며, 특히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주연한 윌리엄 와일러의 1949년 영화는 명작으로 남아 있다.

잘 나가는 의사의 딸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을 예정이지만 평범한 외모와 소심한 성격 때문에 늘 뒷전으로 비켜서 있는 캐서린. 어느 날 그녀 앞에 ‘눈이

부실 지경으로 아름다운’ 모리스가 나타나 사랑을 고백한다. 둘은 곧 결혼을 약속하지만, 딸을 평가 절하하는 아버지는 모리스의 목적이 돈에 있다고 단정한다.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아버지. 머리 돌아가는 것만큼은 지지 않는 모리스. 여기에 일방적으로 모리스의 편을 드는 캐서린의 고모까지 가세하면서 캐서린의 사랑은 파국을 맞는데…….

“약혼자와 아버지는 한 사람의 마음을 죽여 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완벽하게 간과한다. 캐서린은 그들을 정죄하지도 과거를 떨쳐 버리고 새 출발을 하지도 못한다. 정말이지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그러나 그녀의 이런 답답한 면모를 독자는 견뎌내야 한다. 캐서린의 답답함을 경멸함으로써 그녀의 아버지와 약혼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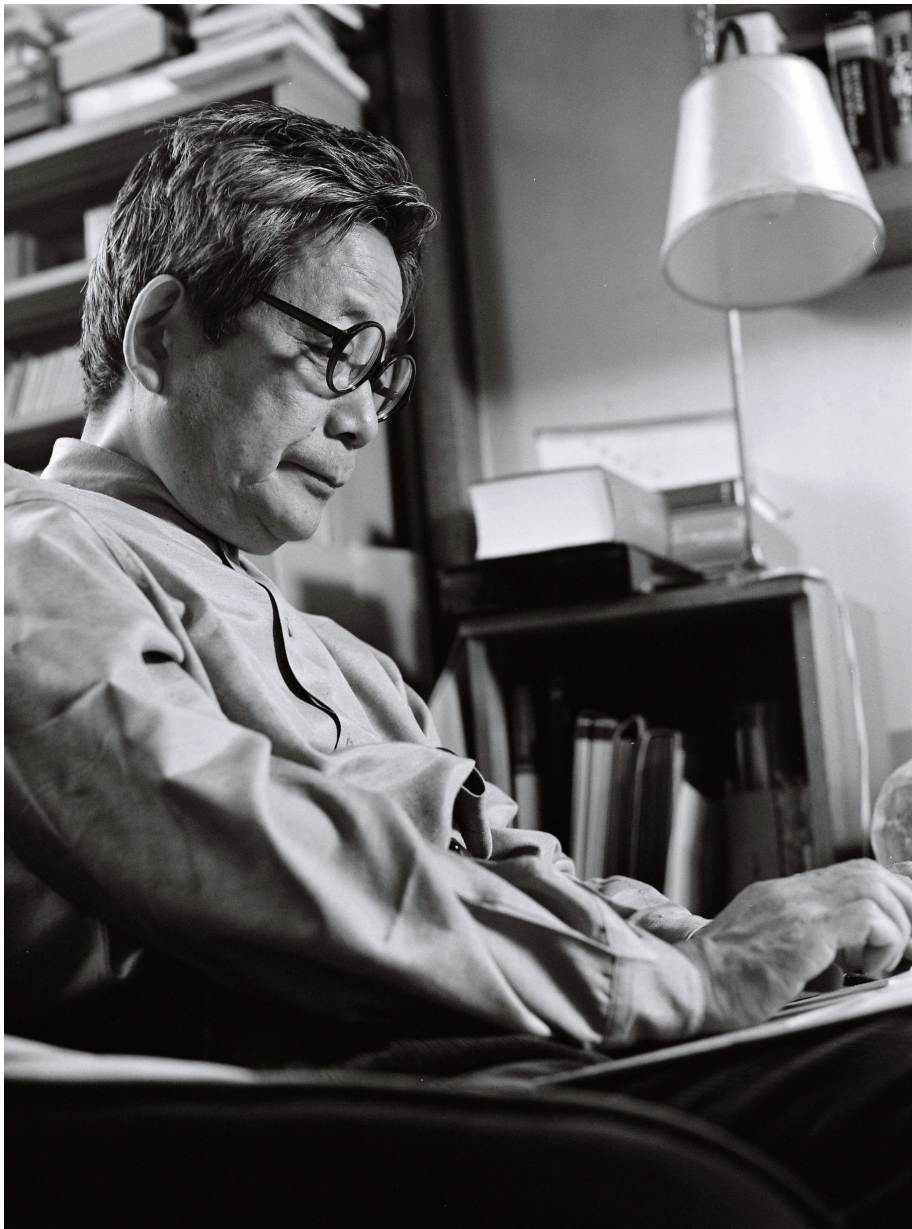


『워싱턴 스퀘어』 삽화, 1881. www.loc.gov

헨리 제임스  
Henry James

리얼리즘 소설의 정점을 보여 준 헨리 제임스는 1843년 뉴욕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제임스는 20편의 장편소설과 130편가량의 중단편, 12편의 연극, 여러 편의 여행기, 250여 편의 서평과 수십여 편에 달하는 비평문 그리고 만 통 이상의 편지를 남겼다. 결혼도 하지 않고 50여 년을 전업 작가로 살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양이다. 리비스는 『위대한 전통』에서 제임스를 영국 소설의 맥을 잇는 단 네 명의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지목했다(나머지는 제인 오스틴, 조지 엘리엇, 조지프 콘래드이다).

역자 유명숙: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채플 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낭만주의 시와 낭만주의 담론의 관계를 다루는 『역사로서의 영문학』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헨리 제임스의 『워싱턴 스퀘어』 등이 있다.



## 22

### 개인적인 체험 個人的な体験

오에 겐자부로 지음  
서은혜 옮김

작가는 시적 언어로 현실과 신화가 혼재된 세계를 창조하고,  
곤경에 처한 현대인의 모습을 담아 당혹스러운 그림을 완성했다.  
—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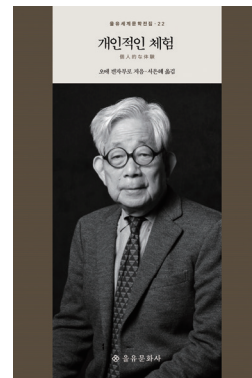
오에 겐자부로의 문장은 송곳처럼 직설적이고 진술하다.  
— 『라이프』

『개인적인 체험』은 우리 시대의 거의 완벽한 소설이다.  
— 『뉴욕 타임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대표작

『개인적인 체험』은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원하는 청년의 영혼 편력, 절망과 일탈의 나날을 그리고 있다. 출구 없는 현실에 놓인 현대인에게 재생의 희망은 있는지 물음을 던지는 오에 겐자부로의 수작(秀作)이다. 이 작품은 오에의 인생과 작품 세계에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27세의 학원 강사 버드는 결혼한 후 아기가 생기지만 아프리카로의 모험 여행을 꿈꾸는 부동(浮動)하는 젊음이다. 태어난 아기가 뇌 손상을 가진 장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일체의 행동의 자유를 빼앗긴 현실에 절망하고, 아기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려 술과 옛 여자친구 히미코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307면 / 12,000원

1964년 신초샤 문학상 수상  
199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오에 겐자부로

大江健三郎

1935년 일본 에히메현의 유서 깊은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1957년 『기묘한 일거리』를 도쿄 대학 신문에 게재하고 평론가들의 좋은 평을 받으며 작가로 데뷔했다. 대학 재학 중인 1958년, 23세에 『사육』으로 일본 최고 권위의 아쿠타가와상을 최연소 수상하면서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1960년 평생의 친구이자 동지였던 사회파 영화감독 이타미 주조의 여동생 이타미 유카리와 결혼했다. 1963년 장남 오에 히카리가 뇌 이상으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를 계기로 『개인적인 체험』, 『허공의 괴물 아구이』, 『핀치리너 조서』 등 지적 장애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여러 작품을 집필했다.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가와바타 야스나리 이후 일본의 두 번째 수상자가 됐다.

역자 서은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도리츠대학 대학원에서 일본 문학을 공부하였다. 현재 전주대학교 언어문화학부 교수이다. 옮긴 책으로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 『체인징링』, 『우울한 얼굴의 아이』, 『책이여, 안녕!』, 『회복하는 인간』, 『오에 겐자부로론』, 『사회와 망언 사이에서』, 『세키가하라 전투』, 『선생님의 가방』 등이 있다.

“머리에 치명적인 장애를 지니고 태어나 그에게 ‘영혼의 줄칼질’을 당하게 한 큰아들 히카리는 그로 하여금 ‘부서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알게 만들었다. 오에는 그 아들을 통해 세계 속의 고통받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뻗어 가는 감수성과 상상력을 보여 주게 된다. (...) ‘전후 민주주의자’와 ‘장애아의 아버지’라는 자아 정체성이 그를 끝까지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다.”

본문 중에서:

나는 아기 괴물에게서 수치스런 짓들을 무수히 거듭하여 도망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 대체 어떤 나 자신을 지켜 내겠다고 시도한 것일까? 하고 버드는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기가 막혔다. 답은 제로였다. (269쪽)

23

사형장으로의 초대

PRIGLASHENIE NA KAZN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지음  
박혜경 옮김

내가 쓴 작품 중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형장으로의 초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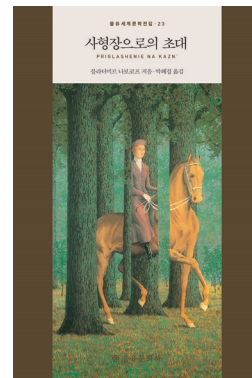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1967년의 인터뷰

예술과 시간에 대한 다양한 은유가 엮여 있다.  
— 동아일보

『롤리타』의 작가 나보코프 자신이 꿈은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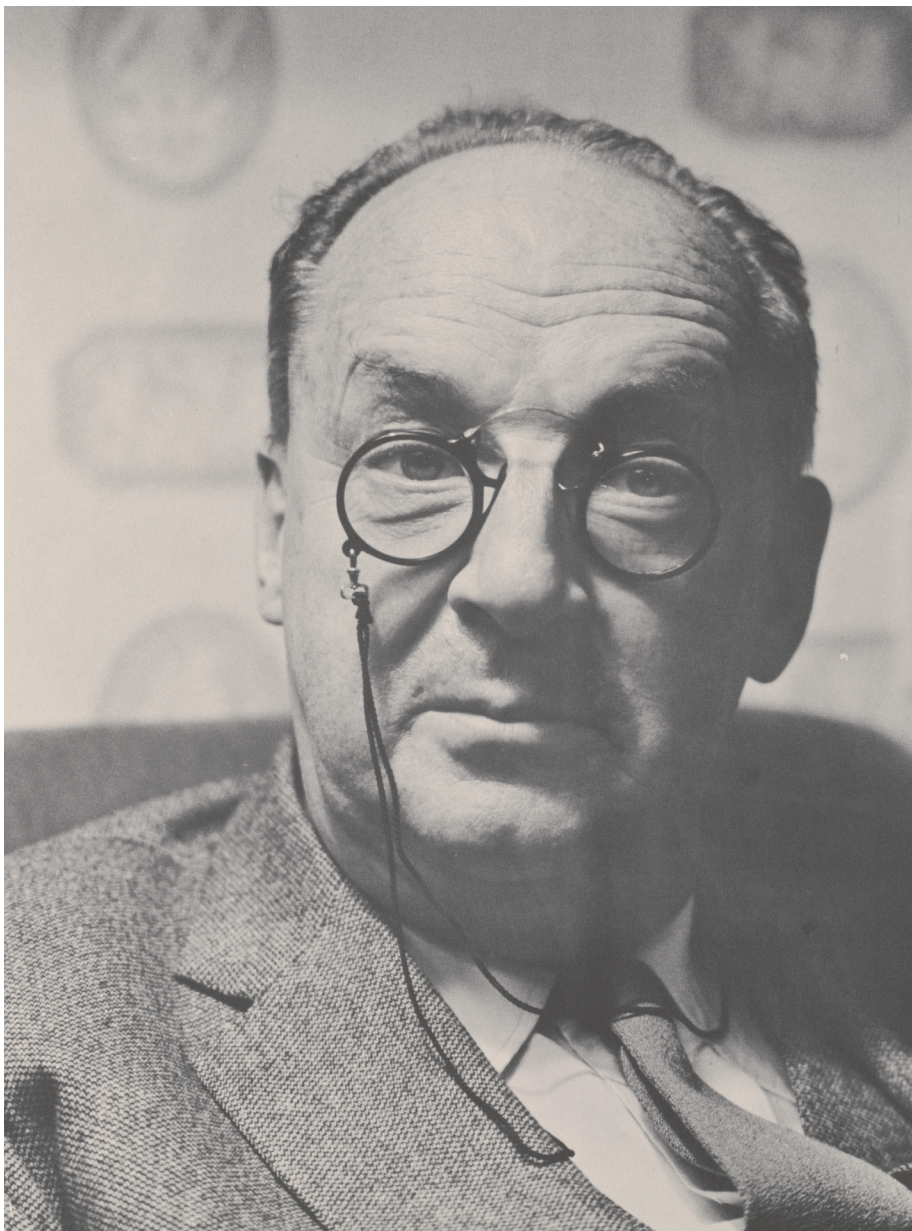
20세기 러시아문학과 미국문학 양쪽에서 거대한 업적을 남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걸작으로 기묘한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를 주인공으로 예술가의 사회적 고립을 풍자하고 있다. 일찍이 나보코프는 자신의 작품들 중 『사형장으로의 초대』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나보코프는 『롤리타』나 『아다』와 같은 책이 번역되어 국내 독자에게도 친숙한 편이지만 그가 러시아어로 발표했던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명하지 않다’는 죄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친친나트. 창작에 취미가 있는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알고자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할 뿐이다. 그가 홀로 갇혀 있는 기괴한 감옥에서 간수와 소장은 끝없는 광대 짓으로 그를 희롱하기에 바쁘고 롤리타를 연상케 하는 소장의 딸은 그의 감방을 뛰어다닌다. 모두가 정신이 이상한 듯한 가족과 친친나트의 어머니를



280면 / 10,000원

국내 초역



자처하는 여자가 면회를 오는 소란 속에서 새로운 죄수  
므슈 피에르가 옆 감방에 수감되는데…….

“나보코프는 『사형장으로의 초대』가 ‘반(反)  
유토피아 소설에 대한 조롱’으로, 이 소설 속의  
전체주의 국가는 ‘정신이 감금된 상태에 대한  
극단적이고 환상적인 메타포’로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한다. 나보코프는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자신의 ‘가장 몽상적이고 시적인 소설로, 주인공  
친친나트를 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친친나트의 육체적인 감금 상태와 두려움, 고통은  
진정한 예술, 예술적 상상력, 예술적 자유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자의식, 존재의 문제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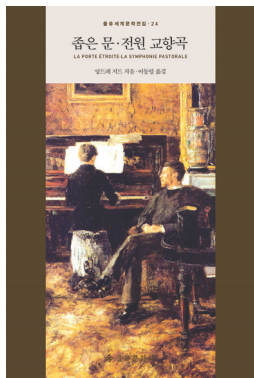
광장에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단두대는  
오래전에 불그스레한 먼지 구름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으로 검은 술을 두른 여인이 손에  
애벌레처럼 작은 사형 집행인을 들고 급하게  
달려갔다. 쓰러진 나무들은 아무런 부조 없이  
납작하게 누워 있었고, 똑같이 편평하지만  
둥글다는 환상을 주기 위해 줄기 측면에 음영을  
그려 넣은 채 서 있는 나무들은 찢겨 나가는 하늘  
망(網)을 간신히 나뭇가지로 지탱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찢어졌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다. 나선형의  
회오리바람이 먼지, 냇마, 페인트칠이 된 나무  
조각, 도금한 석고 모형의 작은 파편, 마분지 벽돌,  
포스터 등을 위로 말아 올렸다. 건조한 어둠이  
날아갔다. 친친나트는 먼지와 떨어지는 물건들,  
펼럭이는 무대장치 사이를 지나, 목소리들로  
판단해 볼 때 그와 닮은 존재들이 서 있는 쪽을  
향하여 나아갔다. (251~252쪽)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Vladimir Nabokov

1899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을 익히며 자유롭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던  
그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망명했다. 1923년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베를린으로 옮겨 영어를  
가르치며 생활을 하는 한편 러시아  
망명가들이 출판하던 신문과 잡지  
등에 단편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편 소설인 『마센카』를  
비롯해 『절망』, 『사형장으로의  
초대』, 『재능』 등의 장편소설과  
단편집 『초르브의 귀환』 등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그는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 망명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역자 박혜경: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나보코프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이다.  
지는 책으로는 『강-문학적  
형상과 기억들』, 『현실과 기호의  
이질동상성』(이상 공저)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은빛 비둘기』,  
『노름꾼/악어 외』(공역) 등이 있다.



316면 / 12,000원

194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앙드레 지드

André Gide

1869년 파리에서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식민지의 비참함을 묘사한 『콩고 기행』 후 점차 사회 현실에 눈을 뜬 지드는 공산주의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세계평화회의에 참석하고 소련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이 체험한 현실을 정직하게 기술한 『소련 기행』은 좌파의 증오와 공격을 불러일으키며 지드를 괴롭혔다. 지드의 긴 생애는 1951년에 막을 내렸다. 대표작으로 『지상의 양식』, 『배덕자』, 『바티칸의 지하도』 등이 있다.

역자 이동렬: 서울대와 동 대학원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불문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24

좁은 문·전원 교향곡

LA PORTE ÉTROITE·LA SYMPHONIE  
PASTORALE

앙드레 지드 지음

이동렬 옮김

앙드레 지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널리 사랑받는 작품

앙드레 지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20세기 프랑스의 대표 작가다. 이 책은 『좁은 문』과 『전원 교향곡』이 ‘프랑스 문학 전통과 닿아 있는 고전적 소설’이라는 관점 하에 정평 있는 플레이아드판을 토대로 작품 원문의 감동을 성실하게 재현하려 애썼다.

『좁은 문』은 앙드레 지드를 유명하게 만든 출세작이며, 그의 많은 작품들 중 가장 즐겨 읽히는 작품이다. 또한 내용과 형식의 조화로운 일치를 보여 줌으로써 프랑스 고전주의를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기에 지드의 대표작으로서 손색이 없다.

『전원 교향곡』은 우리의 관습적 분류에서 중편소설 정도에 해당할 짝막한 길이의 작품으로 1916년경 지드가 겪었던 종교적 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간결하고 명쾌하며 절제된 문체가 작품의 단순한 구조를 훌륭히 떠받치고 있다.

25

예브게니 오네긴

EVGENII ONEGIN

알렉산드르 푸슈킨 지음

김진영 옮김

난 지금 소설이 아니라 시로 된 소설을 쓰고 있다네. 굉장한 차이지.  
— 푸슈킨이 친구 바츨스키에게 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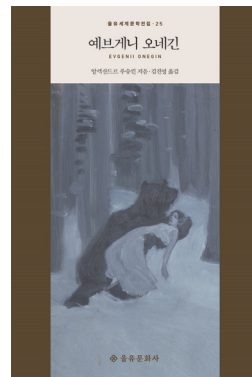
러시아 문학을 세계문학에 등장시킨

푸슈킨의 최고 걸작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푸슈킨이 9년에 걸쳐 완성한, 총 5천 5백여 행으로 이루어진 시로 쓴 소설이다. ‘시’답게 고정된 형식과 운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극상의 기교를 발휘한 작품이며 ‘소설’답게 주인공의 내면적 성장과 당대 러시아 사회와 사상을 묘사하는 걸작 장편소설이기도 하다. 푸슈킨은 작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예브게니 오네긴』을 자신의 최고 작품이라 칭하였다.

이 책은 푸슈킨이 최종적으로 삭제한 부분을 주에 첨부하였고,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고유 명사들에 해설을 붙인 찾아보기도 수록하여, 일반 독자와 연구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순진한 시골 처녀 타티아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청년 예브게니 오네긴을 연모한다. 그녀가 읽었던 책들의 여주인공처럼, 타티아나는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다. 며칠 뒤 오네긴이 찾아와 마치 아이를 타이트릿이 자신은 ‘행복을 위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346면 / 12,000원



commons.wikimedia.org



“여기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아카데미한 설명을 떠나, 보다 순진한 것이다. 『예브게니 오네긴』은 정말 무엇을 노래하는가? 이 또한 하나의 답은 없겠고, 독자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가령 작품을 몇 번째 읽던 나에게 어느 순간 떠오른 한마디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순수 독자로서의 내게는 가장 중요한 그 주제와 함께 번역도 진행되었다.”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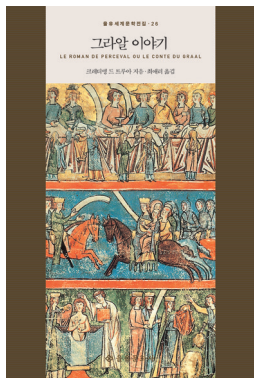
꿈이여, 꿈이여! 네 달콤함은 어디 있는가?  
그 영원한 메아리인 ‘젊음’은 어디 있는가?  
정녕 정말로 그 화관은  
끝내 시들어 버렸는가?  
(이제까지 농담으로 그리 말해 왔다만)  
정녕 정말로 진실로,  
엘레지의 흥내도 내지 못한 채  
내 생의 봄날은 날아가 버렸는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 건가?  
(205쪽)

알렉산드르 푸슈킨

**Aleksandr Pushkin**

1799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여덟 살 때 처음 프랑스어로 시를 쓰기 시작한 푸슈킨의 공식적인 문단 데뷔는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814년이었다. 이듬해 원로 시인 데르자빈이 참석한 자리에서 낭독된 시 「차르스코예 셸로의 회상」은 그를 러시아 문학의 기대주로 자리매김해 주었다. 리세를 졸업한 뒤 1817년부터 1820년까지 외무성에서 근무하다가, 체제 저항적 시들이 문제가 되어 러시아 남쪽으로 유배되었다. 이 기간에 그는 역사극 「보리스 고두노프」를 쓰고 『예브게니 오네긴』을 시작하여 제6장까지 진행했다. 1826년 출판된 그의 첫 시선집은 두 달 만에 품절되기도 했다. 푸슈킨은 아내의 연인으로 여겨진 프랑스인 당테스와의 결투에서 부상을 입은 뒤 이를 만인 1837년 1월 29일 사망했다.

역자 김진영: Wheaton College 러시아 어문학과를 졸업하고 Yale University 슬라브 어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이후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푸슈킨과 19-20세기 러시아 문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왔다. 저서로 『푸슈킨: 러시아 낭만주의를 읽는 열 가지 방법』이 있으며, 번역서로 『코레야, 1903년 가을: 세로세프스키의 대한제국 견문록』(공역), 『땅위의 돌들』(러시아 현대시선집), 『Tak malo vremeni dlia liubvi』(정현종 러시아어 번역 시선집) 등이 있다.



280면 / 10,000원

국내 초역

크레티앵 드 트루아

Chrétien de Troyes

12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프랑스 작가다.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작품 내의 몇몇 단서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아마도 샹파뉴 지방의 트루아 출신으로, 1135~1140년에 태어나 1160~1172년 사이에 마리 드 샹파뉴의 궁정에서 활동했으며 1191년경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에릭과 에니드』, 『클리제스』, 『수레의 기사 랑슬로』, 『사자의 기사 이벵』,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미완성으로 남겨진 『그라알 이야기』가 전해진다.

역자 최애리: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중세 문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크 르 고프의 『연옥의 탄생』과 『중세의 지식인들』, 조르주 뒤비의 『중세의 결혼』, 『12세기의 여인들』 등 서양 중세사 관련 책을 다수 번역했다.

## 26 그라알 이야기 LE ROMAN DE PERCEVAL OU LE CONTE DE GRAAL

크레티앵 드 트루아 지음  
최애리 옮김

크레티앵의 작품에는 경이와 기적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움과 고통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  
— 마이클 더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버금가는  
‘성배 탐색 이야기’의 효시

이 작품은 크레티앵 드 트루아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작품으로는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크레티앵 드 트루아는 12세기 무렵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로서, ‘아더 왕 이야기’를 소설로 쓴 첫 세대 작가로 꼽힌다. 아더 왕 이야기는 브리튼의 역사와 옛 켈트족의 신화, 기독교적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한 허구적인 왕국의 역사인 동시에 인류 구원의 역사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 중심에 ‘성배’라고 하는 성스러운 상징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라알 이야기』는 바로 이런 아더 왕 이야기의 기폭제가 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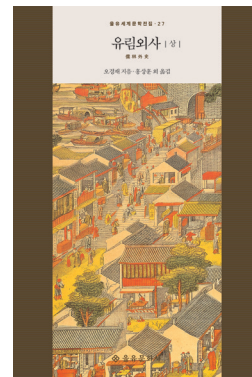
## 27·28 유림외사 儒林外史

오경재 지음  
홍상훈 외 옮김

타락한 지식인 사회를 풍자한 자전적 걸작  
6대 기서 중 한 권인 중국 고전소설의 대표작

중국 풍자소설의 효시로 평가받는 『유림외사』는 작가 오경재가 거둬드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체험을 통해 비판적으로 통찰한 청대의 사회 현실, 특히 타락한 지식인 사회의 본질을 파헤쳐 무려 1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자전적(自傳的) 걸작이다. 청대 지식인 사회의 위선적이고 비틀린 모습을 각 회에 등장하는 온갖 인물 군상들을 통해 찬찬히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병든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고발과 그 속에서 무력하게 스러져가는 개별 지식인들의 실상에 대한 생생한 비판이 돋보인다. 일찍이 루쉰은 “『유림외사』를 쓴 작가의 능력이 어찌 『삼국지연의』를 쓴 나관중보다 못하겠는가?”라며 이 책에 대한 문학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유림외사』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질서에 따라 배열된 다양한 사건들의 파편적 집합체이다. 그러나 그 파편들은 작자가 주도면밀한 사색과 가공을 거쳐 완성한 압축적 표본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참다운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독서의 속도를 잊고 천천히, 그리고 곱씹어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자가 형상화한 주인공들이 모두 청대의 지식인 사회의



각 권 632, 532면 / 각 권 15,000원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오경재  
吳敬梓

1702년에 태어난 오경재는  
23세 무렵까지 정통적인  
유가(儒家) 교육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 수재(秀才)가  
되었다. 이후 36세 되던 해에  
박학홍사과(博學鴻詞科)에  
천거되었으나 병이 들어  
정시(廷試)에 참가하지 못하고,  
41세까지 남경에 머물면서  
명사들과 교유했다. 1754년  
양주에서 객사(客死)했다.

역자  
홍상훈: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인제대학교 조교수로 있다.

신주리: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소영: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영섭: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하고,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홍주연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들을 대표하는 형상이라는 점과 작품  
전체에 그들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녹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인공들의 세세한 언행들을  
되짚어 보면, 오경재가 일궈 놓은 ‘무질서 속의  
질서’와 ‘언중유골(言中有骨)’의 빼어난 경지에 깊이  
감동하게 될 것이다.”

29·30

폴란드 기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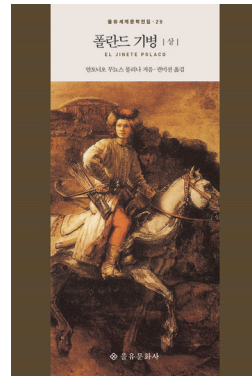
EL JINETE POLACO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 지음

권미선 옮김

“민주화 이후 최대 성공작”이라 불린  
무뇨스 몰리나의 대표작!

현대 스페인 문학의 대표 작가인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가 독재자 프랑코 이후 스페인의 역사를  
개인사와 결부지어 함께 다룬 장편소설이다. 내전과  
독재로 얼룩진 어두운 스페인 현대사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마누엘과 나디아의 개인사를 바탕으로, ‘1898년  
스페인의 대재앙’부터 거슬러 올라가 스페인 내전  
발발과 이후 프랑코 독재 기간, 프랑코 사후 민주화  
이행기와 같은 집단적인 역사를 덧입힘으로써 스페인  
현대사 전체를 조명하고 있다. 소설 제목으로 차용된  
1655년경 렘브란트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폴란드의 기병』은 30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조국  
스페인의 과거와 자신의 유년 시절 기억을忆누르고  
살던 마누엘에게 날아와 꽃히고,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도록 이끈다. 『폴란드 기병』은 탄탄한 이야기  
전개 구조를 통해 주인공 마누엘의 가족사와 스페인의  
역사를 재현해 내면서 포스트모던 걸작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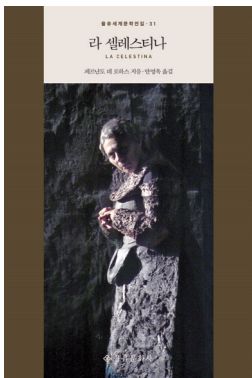


각 권 440면 / 각 권 13,000원

1991년 플라네타상 수상  
1992년 스페인 국민상 소설 부문  
수상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  
**Antonio Munoz Molina**  
1956년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하엔에서 태어났다.  
그라나다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하고, 마드리드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했다. 1986년 첫  
장편소설 『행복한 사람』으로  
주목을 받으며 이카로스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듬해 발표한  
『리스본의 거울』로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오르며 문학상들을  
휩쓸었다. 소설에 국한되지 않고  
에세이스트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역자 권미선: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에서 문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영혼의 집』,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소외』, 『정면 이습 우화』  
등 다수가 있다.



396면 / 13,000원

페르난도 데 로하스  
**Fernando de Rojas**

1470년 톨레도주의 라 푸에블라 데 몬탈반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1496년 살라망카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5세 되던 무렵에 그의 유일한 작품인 『라 셀레스티나』를 집필한 것으로 추측된다. 1541년 세상을 뜰 때까지 변호사 일을 계속했다.

역자 안영옥: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31 라 셀레스티나 LA CELESTINA

페르난도 데 로하스 지음  
안영옥 옮김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작품이라 그 노골적인 표현만 좀 더 감추었더라면 불후의 명작이 되었을 것이다.  
— 미겔 데 세르반테스

스페인 중세 문학의 걸작  
『돈키호테』와 쌍벽을 이루는 작품!

스페인 최고(最古)의 소설로 꼽히는 이 작품은 “만일 스페인에 『돈키호테』가 없었다면 대신 그 영광을 누렸을 작품”이라 할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스페인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의 원형 중 하나를 이룬 이 작품은 신 중심 사회이던 중세가 막을 내리고 인간 중심 사회로 바뀌어 가던 시기의 산물로서, 인생과 사랑과 운명과 신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영민하나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었던 작가는 누구보다도 시대의 공기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당시 스페인 당국은 이단 심문소를 설치하여 조상들의 종교까지 추적하여 가톨릭 피의 순수성을 강요했으며, 그렇게 개종한 사람에게조차도 스페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었다. 『라 셀레스티나』 속에는 이런 전환기의 기운이 생생하게 녹아 있으며, 정신과 물질, 개인 가치와 사회 제도, 주인과 하인, 인간 존재와 그 본질의 투쟁과 갈등이 당시 스페인 하층 문화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 32 고리오 영감 LE PÈRE GORI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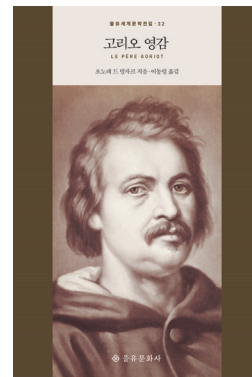
오노레 드 발자크 지음  
이동렬 옮김

발자크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으뜸이었고, 최고 중의 최고였다. 그의 모든 작품들은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데, 그것은 살아 있고, 빛나며, 심오하다. 그 속에는 우리 시대의 문명 전체가 오고 가고, 걷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 빅토르 위고

나는 발자크가 뛰어난 관찰자로서 명성이 높다는 점에 매번 놀란다. 내게는 그의 가장 큰 장점이 계시자, 그것도 열성적인 계시자라는 데 있다고 여겨진다.  
— 샤를 보들레르

19세기 리얼리즘 소설의 정점  
세계 10대 소설의 하나

발자크 특유의 ‘인물 재등장 기법’이 최초로 사용된 소설로, 그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발자크 연구자들은 1833년에서 1834년을 소설가로서의 발자크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 『고리오 영감』은 바로 그 시기에 쓰인 작품이다. 한 순진한 청년이 주변 인물들의 급속한 파국을 통해 사회의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이야기인 『고리오 영감』은 발자크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자 대표작으로서, 뒷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나 영화 『대부』에도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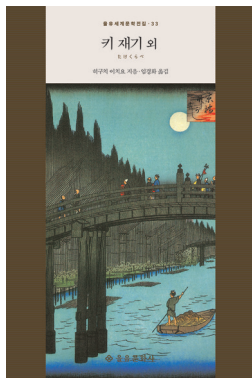
442면 / 10,000원

서머릿 몸 선정 세계 10대 소설  
연세대 필독 도서 200선

오노레 드 발자크  
**Honoré de Balzac**

발자크는 1799년 투르에서 자수성가한 부르주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1829년 『마지막 올빼미당원』을 출간한 이후 20여 년간 방대한 『인간극』을 창조해 나갔다. 1850년 오랜 연인이었던 한스가 부인과 것처럼 고대하던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 뒤 서거했다.

역자 이동렬: 서울대와 동 대학원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몽펠리에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불문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284면 / 10,000원

### 33 키 재기 외 たけくらべ

히구치 이치요 지음  
임경화 옮김

요시와라를 배경으로 한 소년, 소녀들의 성장 소설  
근대문학의 주체로서 여성상을 정립한 걸작

히구치 이치요는 일본 근대 최고의 여류 소설가이자 일본 지폐의 인물로도 채택된 작가이다. 이 책은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을 모은 것이다. 이치요의 소설은 특권 계급의 ‘여류 소설가’들이 상류 사교계 등의 협소한 세계를 소재로 취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성의 삶과 고뇌를 언어화했다. 이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죽음 등으로 16세의 나이에 호주가 되어 평생 가난의 저주를 끊을 수 없었던 작가가 자신의 삶이 투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표작인 「키 재기」는 그녀가 죽기 10개월 전에 완성한 것으로, 유곽인 요시와라의 구시대적 활기와 메이지적인 어둠, 사치와 빈곤, 해학과 슬픔이 교차하는 세계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소년 소녀들과 그들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키 재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도리네 집 문간에 남몰래 두고 간 수선화는 명리에 급급한 탐욕적 세속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소년의 소녀에 대한 연민의 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근대 규율의 내면화와 부의 축적, 재생산의 기본 단위로 국가 체제를 뒷받침하는 부부 중심의 근대 가족의 예고이즘에 회의하고 반기를 드는 독자들이 소녀의 운명에 대해 느끼는, 차마 떨쳐 버릴 수 없는 인간적인 연민을 담아내는 표상이다.

이치요는 이 작품에서 에도 시대의 문체를

구사하면서 희미한 첫사랑의 추억이 폭력적으로 단절되는 한 유녀의 탄생을 응시함으로써 에도와 메이지를 잇는 밧줄 위를 무사히 건너고 있다.

“대표작인 「키 재기」에서 작가는 요시와라의 구시대적 활기와 메이지적인 어둠, 사치와 빈곤, 해학과 슬픔이 교차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소년 소녀들의 성장을 그렸는데, 이러한 세계 표상은 종래의 여성 표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로써 그녀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비약적으로 확장시켰다.”

본문 중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구와 말도 안 하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멎대로 밤낮을 보내고 싶어. 언제나 항상 인형놀이나 하고 소꿉장난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아아, 싫어, 싫어. 어른이 되는 것은 싫어. 왜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거야. 하다못해 일곱 달, 열 달, 아니 일 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93쪽)

히구치 이치요

樋口一葉

본명은 히구치 나쓰(樋口奈津)다. 일본 근대의 서막이 열린 1876년 도쿄의 한 하급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16세의 나이에 호주가 된 그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20세 때 첫 작품인 「밤 벚꽃」에 이어 「매목」을 발표했지만 큰 수입은 못 되었다. 23세 때 『문학계』에 「키 재기」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문예구락부』에 「탁류」, 「심삼야」 등도 연이어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갈릴갈」, 「나 때문에」 등을 발표했으며, 「키 재기」 또한 완성함으로써 문단의 총아로 부상했다. 그러나 1896년 과로로 인한 폐결핵 악화로 24년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역자 임경화: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일본의

전통 단형시에 관한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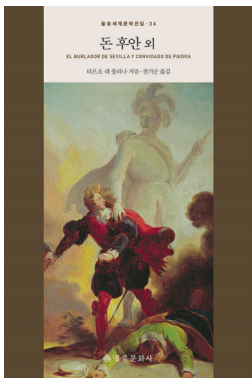
연구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신라의 발견』(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여성 표현의 일본

근대사』, 『국어라는 사상』(공역)

등이 있다.



352면 / 13,000원

티르소 데 몰리나  
Tirso de Molina

그의 출생 시기는 1580년경으로 추정되지만 논쟁의 대상이다.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가톨릭 사제가 된 이후 연극에 취미를 갖게 되어 희곡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1624년 발간된 첫 작품집의 서문에서 이미 3백 편을 집필해 놓았노라고 호언했다. 이후 사제로서 종단의 고위직에 오르며 종단의 역사를 집필했고, 1648년 수도원장으로 죽었다.

역자 전기순: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이다.



commons.wikimedia.org

# 34 돈 후안 외 EL BURLADOR DE SEVILLA Y CONVIDADO DE PIEDRA

티르소 데 몰리나 지음  
전기순 옮김

서구 문화의 아이콘이 된  
돈 후안 이야기의 원전이 되는 책

이 책은 17세기 스페인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극작가 티르소 데 몰리나의 희곡 『돈 후안』과 『불신자로 징계받은 자』를 한데 묶은 것이다. 돈 후안은 햄릿, 돈키호테, 파우스트 등과 함께 서구 문화의 신화적 아이콘 중 하나로, 뒤편 몰리에르, 바이런, 모차르트, 푸슈킨은 저마다 특색 있는 돈 후안 이야기를 창조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원형을 제시한 것이 바로 티르소의 걸작 희곡이다. 특히 이 책에 실린 티르소의 대표작 중 하나인 『불신자로 징계받은 자』는 국내 초역 작품이다.

# 35 젊은 베르테르의 고통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정현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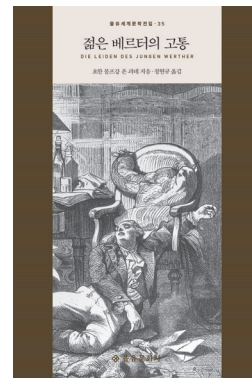
괴테는 유일하게 독일적인 예외다. 괴테는 하나의 문화다.  
— 프리드리히 니체

매혹적인 감정과 예술에 대한 조숙한 이해가 합쳐진 걸작이다.  
— 토마스 만

이 작품 전체는 시민적 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저 새로운 인간에 대한 빛나는 고백이다.  
— 프리드리히 루카치

젊은 세대에게 심금을 울린 세기의 명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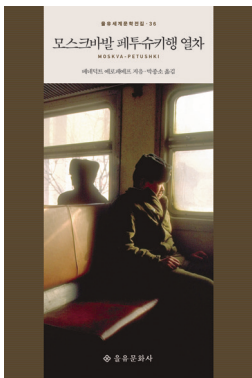
『젊은 베르테르의 고통』은 출간되자마자 유럽 전역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연관된 수많은 예술 작품이 쏟아져 나왔는데 독일에서만 무려 140종이 넘는 판본이 출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수십여 종의 번역본이 나왔다. 그동안 이 작품의 제목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관행처럼 정착되었다. 그러나 ‘베르테르’라는 역어는 독일 현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발음이다. ‘슬픔’으로 번역한 단어 역시 원어에 담겨 있는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을 담보한다. 이 책에서는 관행처럼 사용해 온 역어들을 새롭게 정립해 정본에 보다 부합하도록 했다.



232면 / 9,000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년 8월, 황실 고문관인 아버지와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774년에는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젊은 베르테르의 고통』을 발표해 일약 문단에서 이름을 떨쳤으며, 1786년에 이뤄진 2년간의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재발견하게 된다. 그 외에 작품으로 『서동시집』,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 만년의 대작이자 괴테를 대표하는 걸작인 『파우스트』 등이 있다.

역자 정현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독일 베를린공과대학 독어독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312면 / 13,000원

### 36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 MOSKVA-PETUSHKI

베네딕트 예로페예프 지음  
박종소 옮김

고골처럼 우리를 도취케 하는 작품이다.  
예로페예프의 언어는 풍요롭고 다층적이다.  
가장 상스러운 표현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시적인 산문이 바로 이어진다.  
— 월드 리터처 투데이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는 브레즈네프 시대  
코미디의 절정이다. 보드카가 흥건한 이 고전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사회에서 이곳이 아닌  
그곳에 도달하려는 어느 망가진 남자의 시도를 그리고 있다.  
일프와 페트로프 이후 최고의 러시아 희극.  
— 뉴욕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코올이 출렁이는 책!

지하 출판물로 유통되다가 서방 세계에 출판되어  
작가에게 전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 준 이 작품은  
브레즈네프 시대(1960~1970년대) 러시아 문학의  
최대 수확 중 하나이다. 오늘날에도 활발히 연구되고  
논의되는 이 작품은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독일에서  
영화화된 것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연극으로  
각색되기도 했다.

전화 케이블공 베니치카. 근무 시간을 술로만 때우던  
나날 중, 동료 근로자들의 낮 시간 알코올 소비량을  
집계하여 그래프를 만든다. 불행히도 이것이 상부에  
실수로 전달되면서 그는 작업반장 자리에서 쫓겨난다.  
어린 아들과 애인이 사는 페투슈키로 떠나는 그는

두 시간 남짓한 기차 여행을 위해 사 놓은 여러 병의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한다. 승객들 모두가 술을 나눠  
마시며 엉망으로 취하고 있을 무렵, 주인공은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는데…….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는 길지 않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부에 응축된  
문학적, 문화적 코드의 다양함으로 인해 여러  
방향에서의 접근과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작품은 보통 피카레스크 양식, 패러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창을 통해 탐구되어 왔다.  
따라서 텅 빔을 향해 나아가는 허무주의자의  
여행이라 말해지기도 하고, 그 자체가 종교적  
신념의 심오한 표현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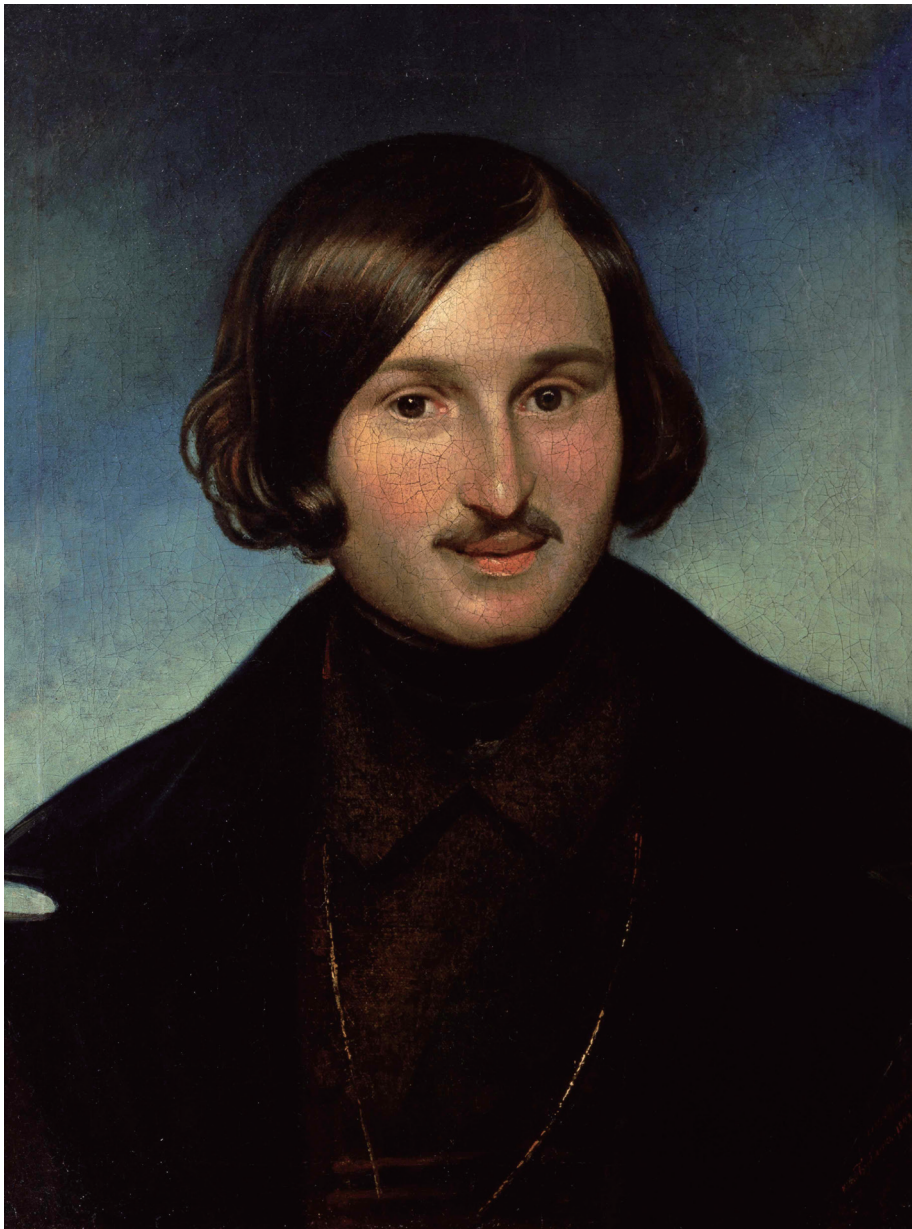
en.wikipedia.org

베네딕트 예로페예프

**Venedikt Erofeev**

1938년 극권의 콜라 반도에서  
태어났다. 모스크바대학 재학  
중이던 1957년 교련 수업 불참을  
이유로 제적되었다. 1956년부터  
1958년 사이에 쓰인 『정신병자의  
수기』는 그의 초창기 작품들 중  
하나로 가장 길고 가장 부조리하다.  
1962년에 쓴 『복음』은 ‘러시아  
실존주의의 창세기’, ‘뒤집힌  
니체’로 평가받기도 했다.  
1970년에는 작가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 준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를 발표했다.  
1990년 모스크바에서 사망했다.

역자 박종소: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어문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  
단계 높은 러시아어1, 2』(공저),  
번역서로는 바실리 로자노프의  
『고독』,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아저씨의 꿈』,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의 『악에 관한 세편의  
대화』 등이 있으며 공역으로  
『말의 미학』, 『무도회가 끝난 뒤』,  
『전쟁과 평화』 등 다수가 있다.



37

죽은 혼

MERTVYE DUSHI

니콜라이 고골 지음

이경완 옮김

비평가 벨린스키가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을  
‘러시아 삶의 백과사전’이라고 부른 것에 견주면,  
고골의 『죽은 혼』은 ‘추악한 러시아 삶의 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

— 로자 이현우

고골의 4차원 산문에 비하면 푸슈킨의 산문은 3차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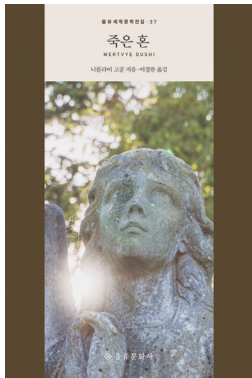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러시아 근대 리얼리즘 문학의 아버지

고골의 최고 작품으로, 국내 최초 원전 완역!

이 소설은 농노 체제를 기반으로 한 19세기 러시아  
지주 사회의 도덕적 퇴폐, 관료 체계의 모순과 부정  
등을 사실적이고 비판적으로 그려낸,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죽은  
혼”은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죽은  
혼’이고,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는 ‘죽은 농노’라는 뜻이다.

그동안 고골 문학의 백미이자 정수로 불리는 이  
작품은 많이 소개되어 왔지만, 대부분 중역이거나 원전  
번역이라 하더라도 발췌 번역에 머물러 있었다. 이  
책은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원전을 번역한 작품으로서  
역자는 러시아 근대 문학에 관한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까다로운 이 작품을 옮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584면 / 15,000원

니콜라이 고골  
**Nikolai Gogol**  
 1809년 우크라이나 폴타바에서  
 태어났다. 우상 푸슈킨을 만난 이후  
 그의 조언에 자극을 받아 『죽은 혼』  
 제1권 집필에 착수했고, 1836년  
 『검찰관』을 초연하여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문인들과  
 일반 대중이 자신의 종교적이고  
 교훈적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환멸을 느껴 유럽으로  
 떠났다. 그의 창작 시기에서  
 최고의 해였던 1842년에는 「외투」,  
 「타라스 불리바」, 「초상화」가  
 수록된 작품 선집 출판을 비롯해,  
 「결혼」, 「로마」, 「노름꾼」, 그리고  
 그의 최고작인 『죽은 혼』 제1권을  
 발표했다. 이후 자신의 사회,  
 예술관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참미가에 대한 묵상」, 『친구와의  
 서신 교환선」, 「작가의 고백」 등을  
 집필했다. 1845년 3년 만에 『죽은  
 혼』 제2권을 완료했으나 바로  
 불태웠고, 1852년 초 제2권의 두  
 번째 판을 완성했으나 또다시  
 원고를 불태웠다. 그로부터 10여  
 일 뒤에 죽었다.

역자 이경완: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서 「고골  
 문학의 아라베스크 시학  
 연구: 『아라베스끼』 문집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러시아  
 CIS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고골은 종교적인 뉘앙스가 담긴 ‘죽은 혼’이라는  
 제목으로 동시대인들의 삶의 비속함을 풍자하고자  
 했다. 기독교에서 악인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눈을 감고 있는 상태로 비유된다. 고골은 『죽은  
 혼』에서 비속한 사람 혹은 악인은 몸은 살아  
 있으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죽은 혼’ 혹은 ‘산 송장’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본문 중에서:

그대들과 같은 혈통과 같은 피로 연결된 자로서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오. 난 그대들 가운데  
 고상한 생각이 뭔지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오. 각 자리의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억하기를 요청하오. 그대들이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더 가까이  
 살펴보기를 간청하오. (516~517쪽)

### 38 워더링 하이즈 WUTHERING HE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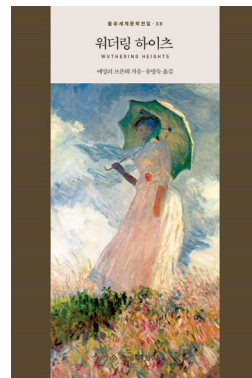
에밀리 브론테 지음  
 유명숙 옮김

어떤 로맨스보다 낭만적이지만  
 어떤 리얼리즘 소설보다 현실적인 걸작

우리에게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유명한  
 소설로, 끈질기게 유지되어 온 제목을 바로잡고, 작품  
 속의 사투리도 살려 원작의 분위기를 최대한 재현한  
 결정판 번역이다. 운명적이고 열정적인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19세기 영국의 계급과 성의 좌표를  
 보여 주는 이 소설은 오늘날 영문학의 고전으로  
 추앙받고 있다.

스러스크로스 그레이지라는 저택을 전세 낸 록우드  
 씨는 집주인 히스클리프를 만나기 위해 워더링  
 하이즈에 들른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그는  
 비몽사몽간에 캐서린이라는 이름의 여자 유령과  
 마주치게 된다. 놀라서 자기 거처로 돌아온 그는  
 가정부 넬리를 줄라 수수께끼 같은 집주인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워더링 하이즈』를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사랑  
 이야기로 보기로 하면 어렵잡아 원전의 10분의 1만  
 번역하면 된다. 『워더링 하이즈』는 언덕 위의 집인  
 워더링 하이즈에 사는 연소가와 언덕 아래의 집인  
 스러스크로스 그레이지에 사는 린턴가 두 집안의  
 이야기가 큰 줄기를 이루는 소설이다. ‘언덕’이  
 ‘집’을 가려서는 안 된다.”



576면 / 13,000원

서머셋 모 섬전 세계 10대 소설  
 서울대 동서고전 200선  
 미국대학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에밀리 브론테  
**Emily Brontë**  
 1818년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에서  
 1남 5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다.  
 언니 샬럿의 『제인 에어』와  
 달리 『워더링 하이즈』는  
 평론가들로부터 소설의 구성이  
 복잡하고, 비도덕적인 정열을  
 다루었다고 비판받았다. 에밀리는  
 소설을 출간한 그다음 해에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역자 유명숙: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채플  
 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낭만주의 시와 낭만주의 담론의  
 관계를 다루는 『역사로서의  
 영문학』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헨리 제임스의 『워싱턴 스퀘어』  
 등이 있다.



360면 / 13,000원

1952년 일본 예술원상 수상  
1968년 노벨문학상 수상  
국내 초역 「호수」 수록

### 39

이즈의 무희·천 마리 학·호수  
伊豆の踊子・千羽鶴・みづうみ

가와바타 야스나리 지음  
신인섭 옮김

인간의 고독을 일본적인 서정으로 그려낸 명작  
차가운 에로티시즘과 비애

「이즈의 무희」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주인공과 유랑 가무단에 속한 무희와의 순수한 만남과 이별을 그린 작품으로 가와바타 초기의 대표작으로 유명하다. 이 작품은 한 청년의 성장을 담은 청춘 소설로 읽히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일본적 서정성으로 포장된 인간 내면의 고독감과, 차별 구조에 대한 논리가 흥미로운 소설이다.

간결한 심리묘사와 에로틱한 긴장감이 넘치는 「천 마리 학」은 패전 후 가와바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다도, 기모노 등 일본 문화의 키워드 같은 것들이 전경에 배치되어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을 읽어 내는 데에 손색이 없다.

「호수」는 인간 내면의 복잡하게 얽힌 심리를 그린 이색적인 작품으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 속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와바타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으로, 국내 초역이다.

“물론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그리는 자연이 ‘일본’의 서정성을 듬뿍 담고 있기는 하다. 등장인물의 심리와 자연이 심미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특기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자연은 차가운 에로티시즘이 비추는 인간 내면의

고독감, 단절감의 비애를 흡수하는 자연이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고독한 인간 군상의 내면 심리를 치밀하게 파고든다. 사회적인 관계성이 도려내진 고독한 인간 군상들은 성적인 모티프나 자연의 서정성을 통해 그 주체할 수 없는 고독감을 투사하는 것이다. 자연은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상실감으로 채색되는 자연일 수밖에 없다.”



commons.wikimedia.org

가와바타 야스나리

川端康成

1899년 오사카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영문과에 진학한 이듬해인 1921년 가와바타는 『초혼제 일경(一景)』이 호평을 받으며 문단에 데뷔했다. 『이즈의 무희』, 『설국』, 『천 마리 학』, 『산소리』, 『호수』와 같은 수많은 명작을 발표했으며, 1968년 일본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1970년 펜클럽 대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던 가와바타는 1972년 가스 자살로 그 생애를 마감했다.

역자 신인섭: 건국대학교 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홋카이도대학 문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교수이며, 동 대학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장이다.



384면 / 11,000원

너새니얼 호손

**Nathaniel Hawthorne**

1804년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에서 청교도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1846년에 단편 소설들과 스케치를 묶어 『구목사관에서 나온 이끼』를 출판했으며, 1849년 9월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주홍 글자』를 이듬해 완성했다. 1852년에는 대학 친구인 피어스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해 『프랭클린 피어스의 생애』를 썼고, 당선된 피어스가 1853년에 그를 영국 영사로 임명하자 이후 1857년까지 리버풀에서 근무했다. 미국에 돌아온 뒤 과중한 집필로 건강을 상실한 호손은 1864년 건강 회복을 위해 여행하던 중 플리머스에서 사망했다.

역자 양석원: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취득했으며 뉴욕 주립대(버펄로)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40 주홍 글자 THE SCARLET LETTER

너새니얼 호손 지음  
양석원 옮김

아름답고 경탄스러운 책이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 그러하듯  
친숙함과 결코 고갈되지 않는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작품이다.  
— 헨리 제임스

『주홍 글자』는 미국인의 상상력이 빚어 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소설일 것이다.  
미국인 내면세계의 악마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작품이다.  
— D. H. 로렌스

1850년대 ‘미국 문예부흥’의 최대 성과 중 하나

19세기 미국 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인 너새니얼 호손의 『주홍 글자』는 일종의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호손의 최고 걸작으로 간주되며, 당대에도 깊은 충격을 주고 호평을 받았던 소설로, 지금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널리 읽히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이 진행되는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때 작가로서의 삶을 꿈꾸었으나 지금은 적성에 맞지 않는 세관에서 일하게 된 호손. 대부분의 시간을 무료하고 성실하게 보내던 중, 그는 낡은 문서와 자료를 쌓아 놓은 세관 2층의 한 방에서 기묘한 양피지 꾸러미를 발견하게 된다. 무심코 이를 가슴에 대 본 호손은 달아오는 쇳덩어리처럼 뜨거운 느낌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

## 41 젊은 의사의 수기·모르핀 ZAPISKI IUNOGO VRACHA·MORF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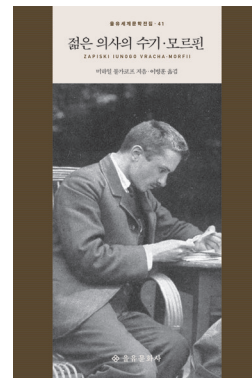
미하일 불가코프 지음  
이병훈 옮김

젊은 의사의 희망과 두려움, 실수와 승리를  
그려낸 진정한 드라마…… 감동적인 걸작이다.  
—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

익살맞은 웃음을 선사하는 매혹적인 작품.  
— 선데이 타임스

문학사상 최고의 ‘의사 작가’ 중 한 명인  
불가코프의 데뷔작

7편의 연작 단편소설로 이루어진 『젊은 의사의 수기』는 실제 의사로 활동했던 불가코프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의대를 방금 졸업한 신참 의사다. 그는 기차역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벽촌에 배치된다. 그 지역에 의사라고는 자신 한 명뿐이어서 경험이 없는데도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인공은 매일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과 만나고, 의사가 되려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면서 하루 백 명의 환자를 진찰한다. 이 작품은 때로는 코믹하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불가코프의 초기 걸작이다. 특히 청년 의사가 한 번 진통제로 주사해 본 모르핀에 헤어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래프까지 그려 보이며 의사다운 냉철한 눈으로 묘사하는 것이 인상적인 소설이다.



248면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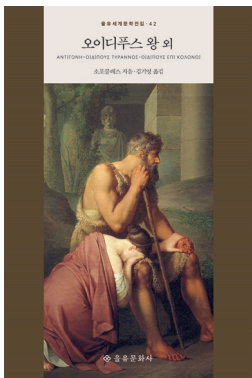
국내 초역

미하일 불가코프

**Mikhail Bulgakov**

1891년 키예프에서 태어났다. 키예프대학 의학부에 입학해 스몰렌스크와 키예프에서 의사로 활동했다. 그의 데뷔작인 연작 소설 『젊은 의사의 수기』나 중편 소설 『모르핀』은 의사로서의 경험이 심본 발휘된 작품들이다. 불가코프는 소설가로서뿐 아니라 희곡 작가로도 화려한 자취를 남겼는데, 희곡이 초연될 때마다 신랄한 풍자로 세간의 논쟁거리가 되었다. 1940년 48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사망했다.

역자 이병훈: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러시아 문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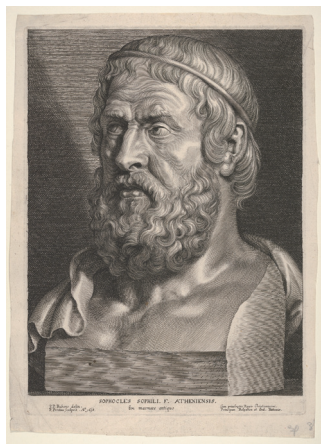


320면 / 12,000원

서울대 권장도서 200선  
고려대 선정 교양 명저 60선  
시카고 대학 선정 그레이트 북스

소포클레스  
**Sophocles**  
기원전 497/496년 아테나이 근교  
콜로노스에서 태어나 일생 동안  
도시 국가 아테네에 머물면서  
주요 공직들을 두루 거쳤다.  
470년 극작가로 데뷔했고,  
469/468년 스물여덟 살의 나이로  
「트리프톨레모스」 3부작으로  
처음 우승했는데, 이후 20번 정도  
우승하고 한 번도 3등을 한 적이  
없다.

역자 김기영: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에서 석사 학위를,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고전학과에서  
소포클레스 비극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정암학당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www.metmuseum.org

## 42 오이디푸스 왕 외 OIDIPOUS TYRANNOS

소포클레스 지음  
김기영 옮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셰익스피어의 「햄릿」,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는  
세계 문학의 영원한 3대 걸작이다.  
— 지크문트 프로이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목한 최고의 비극

소포클레스가 그려 낸 오이디푸스는 진정한 영웅이다.  
모든 사람들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을  
알려는 의지를 꺾지 않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는  
마침내 모든 관객이 잘 알고 있는 최후를 맞이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면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인류의  
대변자로 고양되어 있다.

## 43 야쿠비안 빌딩 ‘IMĀRAH YA‘QŪBIYĀN

알라 알아스와니 지음  
김능우 옮김

현대 이집트 사회와 문화를 포착한 놀라운 작품이다.  
— 뉴욕 리뷰 오브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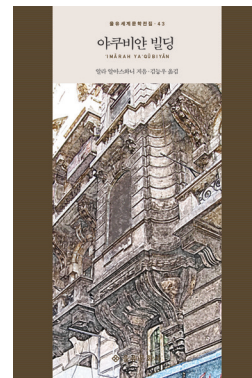
이집트의 부패와 종교적 광신주의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우아한 소설이다……. 지난 50년 동안  
아랍의 어떤 작가도 감히 이 주제를 건드리지 못했다.  
— 사드 에딘 이브라힘, 『포린 폴리시』

알라 알아스와니가 이 소설 외에 다른 작품을 쓰지 않는다 해도  
이 작품 하나만으로 그는 아랍 문단의 선두 대열에 놓이기에 충분하다.  
— 살라흐 파들

의사의 눈으로 병든 이집트 사회를 진단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소설

이집트 소설가 알라 알아스와니의 베스트셀러 소설  
『야쿠비안 빌딩』은 21세기 들어 아랍어로 쓰인 소설  
가운데 비평 면에서나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이다. 저자는 이 작품에서 이슬람 테러 단체,  
동성애 등 아랍 문학에서 금기시되어 온 주제들을  
대담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국가를 사금고처럼  
운영하는 권력자들 아래서 나날이 쇠퇴해 가는 이집트  
사회의 실상을 박진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2011년에  
일어난 이집트와 아랍 세계의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이다.

카이로 중심가의 고색창연한 유럽식 건물인 야쿠비안  
빌딩. 한때는 영화를 누렸지만 점차 쇠락해 가는 이  
건물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오직



392면 / 13,000원

바쉬라힐 아랍 소설상  
프랑스 톨롱 축전 소설 대상  
이탈리아 토리노 그린차네 카부르  
번역 문학상  
그리스 정부의 카바피상  
오스트리아 브루노 크라이스키상  
독일 코부르거 뤼케르트상

알라 알아스와니

‘Ala al-Aswani

1957년 이집트 카이로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1980년 카이로 대학교 치의대를 졸업하고 1985년 시카고로 건너가 치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시카고에서 개업했다. 1980년대 말 귀국하여 카이로에서 치과를 개업하는 동시에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에 완성된 장편소설 『야쿠비안 빌딩』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세계와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야쿠비안 빌딩』은 2002년~2007년간 아랍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이후 영화 및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역자 김능우: 한국의국외대학교 학부 아랍어과와 대학원 아랍어문과를 졸업하였다. 수단 카르툼 국제 아랍어 연구소에서 아랍어교육학 석사 학위를, 요르단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랍어문학 전공으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색에 탐닉하는 데 일생을 바친 늙은 신사, 경찰 대학 입학에 거절당한 뒤 이슬람 원리주의에 빠져드는 수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뒤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하는 사업가, 동성애에 빠진 신문사 편집장……. 치과 의사인 작가는 썩은 이를 찾아내듯, 이집트 사회를 카이로 도심의 한 건물에 집약해 놓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 나선다.

“독재 체제하 이집트 사회의 온갖 모순과 비리를 고발하고 이집트 서민들의 고통 어린 소리를 대변한 『야쿠비안 빌딩』의 한국어판 번역은 우리 독자에게 바로 아랍 시민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생하게 보여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역자가 이 작품에 ‘2011년 아랍 시민 혁명의 예언서’라는 부제를 달아 본다면 그것은 무리한 시도일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44

## 식(蝕) 3부작

蝕

마오둔 지음

심혜영 옮김

『식 3부작』은 동시대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감정적 교훈주의의 단순한 공식을 넘어서는 관점에서 현실을 파악해 낸 최초의 중국 현대 소설 작품이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자각으로 충만한 작품이다.  
— 샤즈칭, 『중국 현대 소설사』 중에서

혁명 운동 뒤편의 그늘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경향신문

중국 현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이자  
루쉰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 현대 문학의 거장  
마오둔의 걸작 소설

『식(蝕) 3부작』은 루쉰과 더불어 중국 현대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마오둔(茅盾)의 걸작 소설로, 국내에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소설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작가의 명성에 비해 마오둔의 작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식 3부작』은 마오둔 창작의 성숙기 혹은 수확기의 산물로, 『환멸』, 『동요』, 『추구』라는 제목의 세 중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1920년대 중반 혁명 운동에 뛰어든 지식 청년들이 겪게 된 환멸, 동요, 추구의 체험을 다룬 것이다. 각각은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독립된 작품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연작으로도 읽을 수 있다.

초기 중국 공산당 당원이기도 했던 마오둔은 1927년 우연한 계기로 당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정치적 공백기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마오둔은 창작에



624면 / 15,000원

국내 초역



마오둔  
茅盾  
1896년 7월 4일, 저장성 통샹현 우진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선더홍이며, ‘마오둔’은 그의 첫 소설 『식 3부작』을 발표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필명이다. 일찍부터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는 ‘문학연구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소설월보』 개혁 시도가 무산된 뒤 문학에서 점차 사회 운동으로 활동 영역을 옮겨 갔다.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과 중국작가협회 주석, 중앙인민정부의 문화부장직 등을 역임하고 1981년 사망했다.

역자 심혜영: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모순 초기 소설의 상징성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 『인간, 삶, 진리: 중국 현대 문학의 깊이』가 있고, 역서로는 『붉은 수수밭』, 『빙신 소설선』 등이 있다.

전념했는데, 『식 3부작』도 이 시기에 완성한 것이다. 마오둔은 지난 시절의 정치 활동 경험을 반추하며 “한바탕 소용돌이”, “환멸의 비애”, “거대한 모순” 등의 키워드로 설명한다. 그는 대혁명의 실패 후 정신없이 달려오던 삶에서 벗어나 “멈춰 서서 홀로 생각해 보는” 일을 스스로 절실히 요청하게 되었고, 그 산물이 바로 『식 3부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마오둔의 작품 중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

“마오둔은 만년에 집필한 회고록에서 『식 3부작』 창작 당시의 심경을 ‘그때 나는 대혁명 실패 후의 형세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다. 내게는 생각하고 관찰하고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고백했다. 『식 3부작』은 작가의 이러한 특수한 정신적 상황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마오둔의 작품 중 가장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하다.”

## 45

옛보는 자

LE VOYEUR

알랭 로브그리에 지음

최애영 옮김

로브그리에를 빼놓고 소설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뉴욕타임스

우리를 마지막까지 조바심치게 만드는 서스펜스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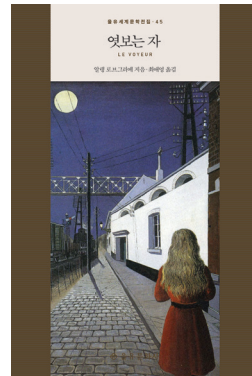
— 뉴욕타임스 북 리뷰

로브그리에의 소설론은 초현실주의 이후 가장 야심적인 미학적 강령이다.

— 존 업다이크

로브그리에에는 현대 소설에서 일어난 혁명의 선구자이다. 그 혁명은 낭만주의와 자연주의의 등장보다 훨씬 급진적인 것이었다.

— 클로드 모리야크



328면 / 13,000원

1955년 비평가상 수상

전혀 새로운 소설의 탄생을 알린

아름답고 음산한 미스터리

『옛보는 자』는 로브그리에의 소설 중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주목받은 작품이다. 문학적인 중요성과는 별도로, 극히 정밀하게 짜인 범죄소설이기도 하다. 로브그리에에는 이 작품 이전에 이미 『고무 지우개』로 영국 추리 작가 협회상 최종 후보까지 오르기도 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범죄소설처럼 작가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각종 단서와 증거들은 본문 곳곳에 뿌려져 있으므로 독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 평자에 따라서는 보르헤스가 그의 몇몇 단편소설에서 암시했던 새로운 탐정 소설의 가능성을 로브그리에가 나름대로 실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작품의 문체는 극히 객관적이고  
명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시종 독자를 숨  
막히게 하는 서스펜스가 압권이다.

시계 세일즈맨 마티아스. 작은 섬마을에 들른 그는  
가방 속에 있는 재고를 전부 판매할 계획을 세운다.  
남은 시계는 89개. 물으로 가는 배가 떠나는 시각은  
오후 4시. 따라서 시계 한 개 파는 데 배정된 시간은  
4분……. 이 비현실적인 시간표를 차근차근 따라가던  
소설은 뚜렷한 설명 없이 갑자기 한 시간 뒤로  
이동하고, 시간 부족에 허덕이던 마티아스는 배를  
놓친다. 그리고 다음 날 절벽 아래에서 벌거벗겨진  
열세 살 소녀의 시체가 발견된다.

“그의 극사실적 묘사는 언뜻 보기에는 고정불변의  
견고한 사물들로 이루어진 너무나 일상적인 세계를  
보여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끊임없이  
의식의 지평 너머로 달아나는 기이하고 불안한  
환상 세계로 독자를 유인한다. 가장 객관적이고  
표면적인 물질성이 가장 내밀한 주관성의 표출  
통로인 것이다.”

본문 중에서:

마치 아무도 듣지 않은 듯했다.  
두 번째 사이렌이 울렸다. 날카롭고 길게  
이어졌다가는 뒤이어 빠르게 세 번, 귀청을 뚫을  
듯한 난폭함으로. 결과를 낳지 못한, 대상 없는  
난폭함. 첫 번째 것과 다르지 않았다. 외마디도,  
멈칫하는 동작도 없었고, 얼굴 표정에는 단순한  
떨림조차 없었다. (...) 마지막으로 한 줄기 증기가  
소리 없이 두껍게 뿜어져 나오며, 그들의 머리  
위로 더부룩한 깃털 모양을 공중에 그렸다. 그것은  
나타나는 즉시 사라져 버렸다.

알랭 로브그리예

**Alain Robbe-Grillet**

1922년 브레스트에서 태어났다.  
1953년 소설 『고무 지우개』로  
데뷔하면서 주목할 만한 신인  
작가로 떠올랐다. 이 소설로  
로브그리예는 페네옹상을 받았고,  
미뉴 출판사 제롬 랭동의 문학  
담당 고문이 되었다. 1954년에는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건게 되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소설 『옛보는 자』(1955)는 프랑스  
비평계를 양분시키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모리스  
블랑쇼, 조르주 바타유 등의  
지지를 받으며 그해 비평가상을  
거머쥐었다. 2008년 사망했다.

역자 최애영: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파리8대학에서 정신  
분석 문학 비평을 전공했고,  
『알랭 로브그리예의 소설  
『옛보는 자』의 글쓰기와 읽기에  
있어서의 무의식의 자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한국문화연구단에서 연구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아프리카인』,  
『칼 같은 글쓰기』, 『사랑에 빠진  
악마』, 『문학 텍스트의 정신  
분석』(공역) 등이 있다.

약간 떨어진 곳, 방금 연기가 윤곽을 그렸던 영역  
뒤로 한 여행자가 그 기다림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벋고둥은 기다림에 열중한 다른 승객들만큼이나  
부재 상태에 빠져든 그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그들처럼 선 자세로 몸통과 팔다리를 뻗뻗이  
펴고, 여행자는 바닥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9~10쪽)

## 46

### 무사시노 외 武藏野

#### 구니키다 돗포 지음 김영식 옮김

일본 근대 문학은 구니키다 돗포에 의해 처음으로  
쓰기의 자유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 가라타니 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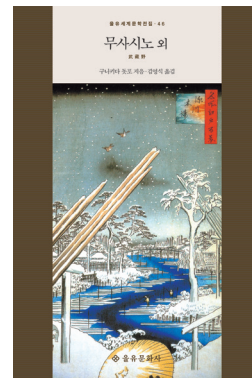
구니키다 돗포는 재인이었다. 자연주의의 작가들은 모두 정진하여  
걸어갔지만 단 한 사람, 돗포만은 때때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메이지 창작가 중에서도 진정한 자각,  
모든 의미에서 진정한 작가였다.  
— 이시카와 다쿠보쿠

나쓰메 소세키와 더불어 일본 근대 문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구니키다 돗포의 걸작 단편집!

구니키다 돗포는 우리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쓰메 소세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등과  
더불어 일본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힌다.  
또한 그는 일본 문학사에서 자연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며 후대의 여러 유파에 영향을 끼친 작가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집에는 「무사시노」 외에도 이름 없는  
소민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은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시적 정취가 가득한 풍경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외로움을 그려 낸 「젠 노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담은 「쇠고기와 감자」, 세속적 출세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민에 대한 예찬을  
담은 「비범한 범인」, 우주의 신비와 인간의 기이한



376쪽 / 13,000원

운명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다룬 「운명론자」, 구뎀했던 말년의 작품으로 현실주의적 수작으로 꼽히는 「궁사」와 「대나무 쪽문」 등 구니키다 돗포의 걸작 단편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돗포는 일본 문학사에서 자연주의의 선구자로 불리지만, 정작 본인은 필명인 돗포(獨歩)처럼 당대의 유파에 개입치 않고 홀로 길을 걸어가 후대 여러 유파에 영향을 끼친 일본 근대의 대표 작가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불과 두세 편만이 소개되었는데, 그것은 결코 돗포의 작품이 재미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어가 석인 백여 년 전의 간결한 문장, 세밀한 풍경 묘사 등이 번역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구니키다 돗포  
國木田獨歩

1871년 일본 치바 현 초시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구니키다 데쓰오(國木田哲夫)다. 1887년 도쿄로 올라와 이듬해에 현재의 와세다대학인 도쿄전문학교 영어보통과에 입학했다. 첫 단편 소설인 「겐 노인」 이후 작품집 『무사시노』, 『돗포집』, 『운명』, 『도성』을 차례로 출간함으로써 일본 근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이 되었다. 1908년 폐결핵 악화로 3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zh.wikiquote.org

역자 김영식: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계간 『리토피아』 신인상(수필)으로 등단했다. 옮긴 책으로 『기러기』, 『라쇼몽』,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등이 있고, 저서로 『그와 나 사이를 걷다-망우리 비명으로 읽는 근현대 인물사』가 있다.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지음

김태우 옮김

헨리 제임스 이후 최초로 진일보한 작품이다.

— T. S. 엘리엇

완벽한 일급의 소설 작품이다.

— 헤밍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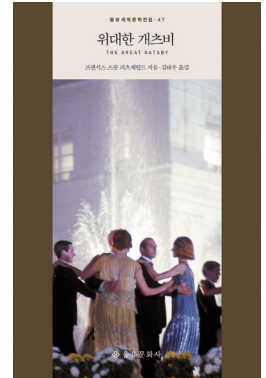
대단한 소설이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질리지 않고

문학으로서의 깊은 자영분이 넘친다.

— 무라카미 하루키

‘잃어버린 세대’이자 ‘재즈 시대’를 그린  
20세기 미국 현대 문학의 대표작

헤밍웨이, 포크너와 더불어 20세기 초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대표작으로, ‘재즈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1920년대 미국 동부를 배경으로 한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는데, 『위대한 개츠비』는 이 당시의 사회 현실과 정신의 풍경을 예리하고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어 ‘미국을 알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으로까지 꼽힌다. 1970년대에는 해마다 3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400개에 달하는 종합 대학과 단과 대학에서 필독서로 선정됐다.



272면 / 11,000원

『타임』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 소설’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20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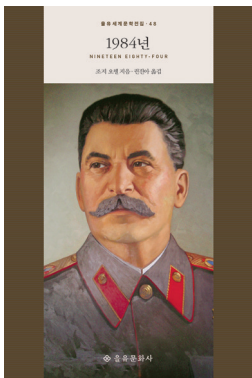
100대 영문학’

『르몽드』 선정 ‘20세기의 책 100선’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Francis Scott Fitzgerald

1896년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났다. 첫 장편 소설인 『낙원의 이쪽』을 출간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이어 『저주받은 아름다운 사람들』, 『위대한 개츠비』를 출간하면서 문단의 총아로 떠올랐다. 1940년 심장마비로 눈을 감았다.

역자 김태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영어영문학 석사 학위를, 영국 레스터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440면 / 12,000원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학'  
「타임」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  
소설'  
「뉴스위크」 선정 '역대 세계 최고의  
명저' 2위

조지 오웰

**George Orwell**

조지 오웰은 스탈린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절감했고,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회주의의 본령을  
환기시키는 것이 작가로서 자신의  
소명이라고 여겼다. 그런 소명  
의식이 가장 뚜렷하게 발휘된  
작품이 바로 『동물 농장』과  
『1984년』으로, 이들 작품으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역자 권진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가 있다.

## 48 1984년 NINETEEN EIGHTY-FOUR

조지 오웰 지음  
권진아 옮김

『1984년』은 내 작품 『멋진 신세계』보다  
미래 세계를 더욱 실감 있게 표현했다.  
— 올더스 헉슬리

어떤 면에서 『1984년』은 『동물농장』의 성공에 가려진 피해자다.  
— 토머스 핀천

20세기가 낳은 디스토피아 문학의 최고 걸작

20세기의 본질을 가장 잘 담아냄으로써 유수의  
기관에서 선정하는 최고 명저 목록에 빠짐없이 오르는  
『1984년』은 조지 오웰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동물  
농장』과 더불어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섬뜩한 상상을 보여 주는 대표작이다. 또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자미아틴의 『우리』와 함께  
20세기 3대 반유토피아 문학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  
자신이 한 에세이에서 밝혔듯이, “1936년 이후 나의  
모든 진지한 저작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는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민주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러한 소명 의식이 가장 뚜렷하게 발휘된  
작품이 바로 그의 마지막 소설인 『1984년』이다.

## 49 저주받은 안뜰 외 PROKLETA AVLIJA

이보 안드리치 지음  
김지향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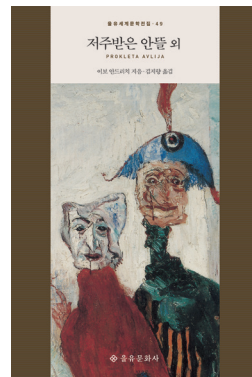
이보 안드리치는 자국 역사의 주제와 운명을  
서사시적 필력으로 그려 냈다.  
— 스웨덴 한림원

세르비아어 원전 번역

보스니아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이보 안드리치의 걸작 중단편

1961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20세기 발칸의  
호메로스’라 불리며 구유고 연방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애독되는 작가인 이보 안드리치의 대표 중단편집이다.  
안드리치는 19세기가 저물어 갈 무렵인 1892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는데,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이런 생애적인 요소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풍요로운 원천으로 작용했다.

안드리치의 걸작 중단편 여섯 편을 묶은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저주받은 안뜰」이다.  
작품의 배경은 각지에서 끌려온 수형자들로 가득한  
이스탄불의 한 구치소로 바깥세상과 철저히 절연되어  
있는 이곳을 ‘저주받은 안뜰’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이곳에는 인생의 낙오자 등 더 이상 바닥일  
수 없는 부류의 인간들로 가득하다. 이 작품은 이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272면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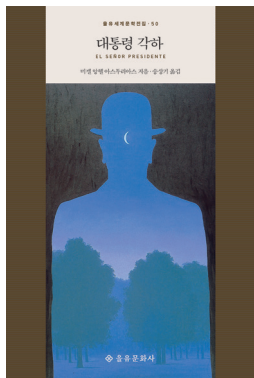
1961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보 안드리치

**Ivo Andrić**

1892년 보스니아 트라브니크에서  
태어났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직후에 청년  
보스니아 운동에 가담했다는 죄로  
오스트리아 당국에 체포되었다가,  
1917년에 특사로 석방되었다.  
보스니아 3부작 외에도 백여 편이  
남는 중, 단편을 발표함으로써  
발간 최고의 작가가 되었다.  
1961년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았고, 1975년 83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역자 김지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유고어과를 졸업하고 베오그라드  
국립대학교에서 문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  
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이보 안드리치』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이보 안드리치 단편집』,  
『쇼팔로비치 유랑 극단』, 『바람의  
안쪽』, 『드리나 강의 다리』 등이  
있다.



480면 / 14,000원

1967년 노벨문학상 수상

## 50 대통령 각하 EL SEÑOR PRESIDENTE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지음  
송상기 옮김

그의 작품은 라틴아메리카 인디오의 전통과  
과테말라의 특성에 뿌리박고 있다.  
— 스웨덴 한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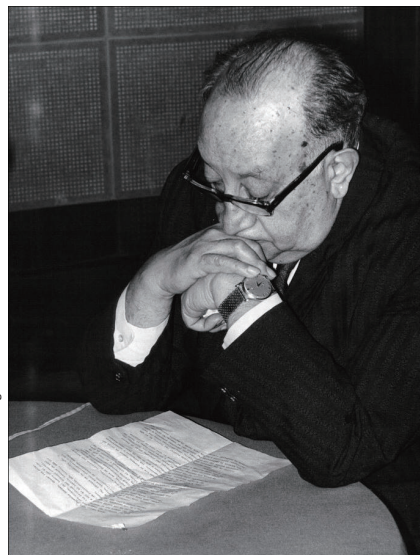
독재로 점철된 과테말라의 역사적 현실을  
초현실주의적으로 그린 작품

1967년 중남미에서는 두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차지한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의 대표작이다. 아스투리아스가 노벨문학상을 받던 1967년은 보르헤스, 네루다, 옥타비오 파스 등이 서방에 알려지면서 열렬한 호응을 받기 시작할 무렵이다. 이들 중남미 작가들은 자국의 역사적 현실과 구전되던 민담을 초현실주의와 아방가르드적 미학과 조우시킴으로써 현실 고발을 단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세계 문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흐름의 물꼬를 튼 작가가 바로 아스투리아스다.

『대통령 각하』는 아스투리아스의 자전적 삶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은 가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1892년부터 1920년까지 22년간 과테말라를 독재 통치한 마누엘 에스트라다 카브레라 정권을 배경으로 하는 것임을 강력히 암시한다. 작품의 제목은 ‘대통령 각하’이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대통령의 심복으로 작가 자신의 이름과도 비슷한 ‘미겔 카라 데 앙헬’이라는 인물이다. 사탄과 천사의 두 얼굴을 가진 그는 대통령의 정적인

에우세비오 카날레스 장군을 지능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다. 거기에서 그는 장군의 딸인 카밀라를 보고 연정을 품게 된다.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대통령 각하』를 통해 민족의 역사를 아방가르드적인 프리즘에 투사했지만 서구적 시각의 보편주의에 빠지지 않았고, 지역의 색채에 자신을 투사했지만 토속주의나 지역주의에 함몰되지도 않았다. 작품에 나오는 많은 시구는 과테말라에서 구전되어 내려오거나 당시 유행하던 노래에서 따왔으나, 이를 한층 드라마틱하고 시적인 표현으로 변형해 놓았다. 또한 많은 토착 언어가 작품에 등장하지만, 이를 향토주의적 묘사의 차원을 넘어서 초월적이고 시적인 견지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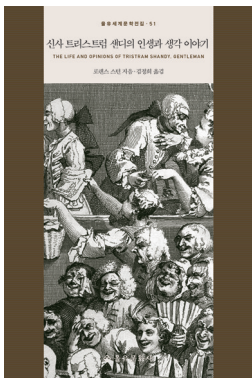


commons.wikimedia.org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Miguel Angel Asturias

1899년 과테말라시티에서 태어나 산카를로스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고,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했다. 1933년 과테말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언론인, 국회의원,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 갔지만 독재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의 작품 출간은 묵묵하지 않았다. 이후 과테말라 시민권을 박탈당해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도 창작 활동을 지속했고, 1963년에 발표한 『물라타』는 프랑스 문단에서 호평받았다. 그 밖의 작품으로 『리다 살의 거울』, 『말라드론』 등이 있다. 1974년 마드리드에서 눈을 감았다.

역자 송상기: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멕시코의 바로크와 근대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아우라』, 『조난 일기』가 있다.



906면 / 18,000원

노벨연구소 선정 '100대 세계 문학'

51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  
THE LIFE AND OPINIONS OF TRISTRAM  
SHANDY, GENTLEMAN

로렌스 스텐 지음  
김정희 옮김

로렌스 스텐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자유로운 작가다.  
— 프리드리히 니체

스텐을 읽고 나면 나 역시 자유로움을 느낀다.  
— 괴테

스텐은 영국의 라블레이며, 라블레보다 분명 뛰어나다.  
— 볼테르

18세기 영국 전위 소설  
현대 소설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작품

이 작품은 명목상으로는 주인공 트리스트럼 샌디의 자서전적 이야기로, 멀리 그가 잉태되던 순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시작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트리스트럼의 생애에 대해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겨우 다섯 살 때까지의 이야기일 뿐이고, 나머지는 트리스트럼의 주변 인물들인 아버지 월터 샌디, 어머니 엘리자베스 등과 관련한 갖가지 일화와 인생에 대한 트리스트럼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

18세기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매우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인 로렌스 스텐의 대표작인 이 소설은 출간 당시 유럽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고 세상에 나온 지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또한 파격적 실험성과 유희 정신, 그리고 이성 중심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의 시대정신에 대한 거리 두기 등으로 20세기 후반

탈근대적 문학의 선구로 평가받고 있다. 소설에서 보이는 인간의 본성과 삶에 대한 심오한 통찰, 스텐 특유의 유머, 친밀한 수다, 인간에 대한 사랑, 페이스스, 라블레와 세르반테스적인 희극성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의 독자들도 깊이 매료시키는 작품이다.

“트리스트럼은 광대의 옷을 입고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으면서 모든 가설을 해체하여 유연성의 공간을 확대하고, 자연의 순리를 먼저 존중하는 반(反)체계적 익살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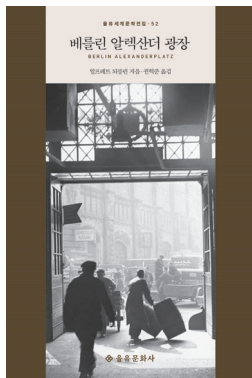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의 권두화, 1760. www.metmuseum.org

로렌스 스텐  
Laurence Sterne

1713년 아일랜드 클론멜에서 영국군 하급 장교인 로저 스텐과 영내 매점 상인의 딸인 아그네스 너를 사이에서 태어났다. 1738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서튼 온 더 포리스트의 교구 목사가 되어 20년간 몸담았다. 스텐이 작가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실험해 본 최초의 작품은 1759년 1월에 출간한 『정치적 로맨스』를 통해서다. 그 밖의 작품으로 『요릭 씨의 설교집』, 『감성 여행』 등이 있다.

역자 김정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앤아버의 미시간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 칼리지에서 「로렌스 스텐과 즐거움의 윤리학」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18세기 영국 소설 강의』, 『영국 소설 명장면 모음집』(공저)이 있다.



756면 / 17,000원

노벨 연구소 선정 100대 세계 문학  
「가디언」 선정 100대 세계 문학

52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BERLIN ALEXANDERPLATZ

알프레트 뉘블린 지음

권혁준 옮김

뉘블린은 나의 스승이다. 작가로서 뉘블린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 권터 그라스

누구보다도 뉘블린의 서사문학에서 많이 배웠다. 그의 서사 작품과 서사  
이론은 내 연극에 큰영향을 주었다.  
— 베르톨트 브레히트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의 스타일은 제임스 조이스의 의식의 흐름  
기법보다 더 중요하다.  
— 발터 벤야민

대도시의 모습과 그곳에서 겪는 인간의 수난을  
서사적으로 재현한 도시 소설의 걸작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은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으며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 토마스 만의 『마의 산』 등과 함께 20세기  
독일 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처럼 독일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내용은 물론 기법  
측면에서도 기존의 소설들과는 다른 실험적 양식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뉘블린의 명성을 알린 이 작품은 1차 자료의  
직접적인 인용, 영화적 구성, 비선형적 서사 구조,  
내적 독백의 기법, 몽타주 기법 등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주인공 프란츠 비버코프의 삶을 단속적으로  
제시하였다. 거대하고 위험하며 유혹적인 바벨탑  
같은 공간으로 등장한 대도시에서 겪는 다양하고  
혼란스런 인간의 초라한 자화상을 포착한 이 작품으로  
뉘블린은 20세기 대도시의 변화된 시공간에 조응하는

새로운 서사문학을 창조했다. 전후 독일의 대표 작가  
권터 그라스는 ‘알프레트 뉘블린 문학상’을 제정하여  
뉘블린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뉘블린이 그려 내는 주요 인물은 모두  
대도시에서도 하층민에 해당하는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속한다. 베를린 사투리로 온갖 위트와  
거침없는 욕설을 내뱉는 이 인물들은 개성이  
뚜렷한 존재라기보다는 집단의 일원, 군상으로  
등장한다. (...) 이들의 삶은 물론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카프카나 카뮈,  
사르트르 소설의 주인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존적인 소외나 불안이 아니고, 일종의 ‘사회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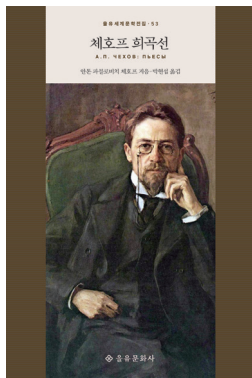
commons.wikimedia.org

알프레트 뉘블린

Alfred Döblin

1878년 동부 독일의 슈테틴에서  
폴란드 출신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애정 행각을  
벌이며 도피하자 어머니와 함께  
베를린으로 이사하여 어려운  
삶을 살았고, 청소년 시절부터  
대도시에서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어두운 측면을 체험하였다.  
1915년에 18세기 중국 혁명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황룡의  
세 도약』을 발표하여 ‘폰타네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  
정보국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해 MGM 영화사의 각본가로  
활동하였고, 종전 후 프랑스  
점령군의 문화담당관으로 독일로  
귀환하였다. 1957년 파킨슨병으로  
독일 슈바르츠발트에서 세상을  
떠났고, 뒤따라 아내 에르나  
뉘블린도 파리에서 자살하였다.

역자 권혁준: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독문학을 공부하였고,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독문학,  
철학, 영문학을 전공한 뒤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IPUS)에서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464면 / 14,000원

서울대학교 권장도서 100선

53

체호프 희곡선

A. П. ЧЕХОВ-ПЬЕСЫ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지음

박현섭 옮김

체호프는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 톨스토이

인물 간의 대화를 체호프만큼 생생하게 전달한 작가는 없었다.

— 서머싯 몸

체호프는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를 가장 잘 분석한 작가이다.

— 버지니아 울프

체호프라는 세상의 정수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는 19세기 러시아문학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이자 단편 소설 작가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거장들에 의해 주도된 장편 소설의 대세 속에서 주변적 지위에 머물러 있던 단편 소설이 체호프를 통해 러시아문학의 한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또한 러시아의 연극, 나아가 세계의 연극은 체호프를 통해서 근대 사실주의 연극의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현대 연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 지난 세기의 작가들 가운데서 체호프만큼 광범위한 독자층으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은 소설가도, 셰익스피어 이래로 체호프만큼 자주 공연되는 극작가도 찾아보기 힘들다. 평범한 작가에게는 둘 중 하나도 불가능한 업적을 체호프는 한 사람의 삶으로 이루어 냈다.

이 책에 수록된 「갈매기」는 체호프가 극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는 작품으로, 초연 당시에는 혹평을 들어야 했지만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재공연되면서 대성공을 거둔다. 이후 이 책에 함께 실린 「바냐 삼촌」, 「세 자매」, 「벚나무 동산」 등의 걸작을 발표하며 성공을 거뒀고, 영국 비평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으며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바냐 삼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고 여인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신경이 그리 예민한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당신의 재능 앞에 황홀해져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 때문에 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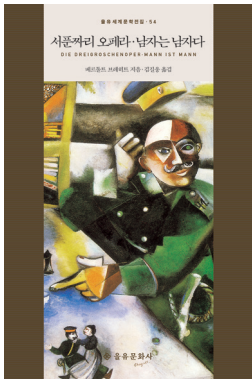
— 막심 고리키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Anton Pavlovich Chekhov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실주의 희곡의 대가로 불리는 체호프는 1860년 1월 29일, 러시아 남부의 흑해 연안 항구도시인 타간로크에서 태어났다. 체호프는 고학으로 중등학교를 마친 뒤 1879년 모스크바대학 의학부에 입학했다. 재학 중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단편소설들을 쓰기 시작했고, 졸업 후 의사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에 나섰다. 『황야』, 『지루한 이야기』, 『등불』 등을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고, 30세 때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기점으로 사회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다루며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역자 박현섭: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 『체호프 단편선』, 『무도회가 끝난 뒤』, 『영화 기호학』 등이 있다.



296면 / 13,000원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독일의 극작가, 시인, 무대연출가. 1898년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출생했다. 귀환병을 묘사한 첫 작품 『밤의 목소리』를 집필했는데, 표현주의 희곡 최후의 걸작이란 평가를 받으며 클라이스트 문학상을 수상했다. 얼마 후 영국인 존 게이의 작품을 번안한 통렬한 사회 풍자극 『서푼짜리 오페라』로 유명해졌다. 만년에는 동독의 동베를린으로 가 자신의 작품들을 연출하면서 후배 연극인을 양성하였다. 1956년 베를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역자 김길웅: 성신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문화로 읽는 서양문학 이야기』, 공저로 『독일문학과 예술』, 『신화와 사랑』이 있고, 역서로는 『보르헤르트 전집』(총 2권)이 있다.

## 54 서푼짜리 오페라·남자는 남자다 DIE DREIGROSCHENOPER·MANN IST MANN

베르톨트 브레히트 지음  
김길웅 옮김

‘생소화 효과’로 관객이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사회 부조리를 보게 만드는 브레히트의 수작!

이 작품집에는 연극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관객의  
눈을 객관적으로 유지시키는 이른바 ‘생소화 효과’를  
도입한 희곡들이 담겨 있다. 『서푼짜리 오페라』는  
구걸 조직 우두머리 피침의 딸 폴리와 악명 높은 강도  
매키스의 결혼을 매개로 두 사람과 얽힌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와 관계의 부조리를 보여  
준다. 서민 오페라로 불리기도 한 이 작품은 영화로도  
제작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남자는 남자다』는 제품 포장공 갈라가이가  
거절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부재중인 제라리아  
집을 대신해 자동 화기 분대의 일원이 되고, 철저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가 너무  
쉽게 자신을 부정하며 ‘새로운 인물’과 ‘소속된 집단’에  
적응하는 과정들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모순과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든다.

## 55·56 죄와 벌 PRESTUPLENIE I NAKAZANIE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김희숙 옮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서적, 특히 문학 작품은 내 자신의 것을 포함해서  
모두 불살라 버려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만은  
예외다. 그의 작품은 모두 남겨 두어야 한다.

— 톨스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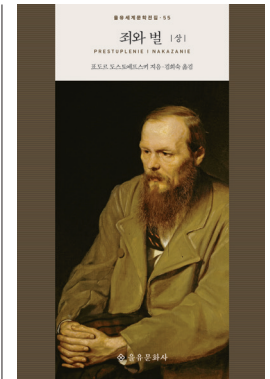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고통의 한계까지 시달렸을 때, 삶 전체를  
화끈거리고 욕신거리는 하나의 상처라고 느낄 때, 절망을 호흡하고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어야 한다.

— 헤르만 헤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를 대표하는 걸작

『죄와 벌』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전까지 쓰고  
발표한 모든 작품을 능가하는 높이와 깊이로 도달하고  
있다. 묘사의 대상으로부터 묘사 주체로 올라서는  
인물들,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의도적인 다의성, 상호  
대립적인 세계관을 논쟁적으로 다루는 방식 등에서  
이전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성취를 보인다.

관과 같은 좁은 방에서 사회에 대한 불온한 이념을  
키워 나가던 대학생 라스콜니코프. 끊임없이  
사색에 잠긴 채 자신만의 질서를 꿈꾸 오던 그는  
마침내 자신이 비범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해 오던 끔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는데…….



각 권 484, 536면 / 각 권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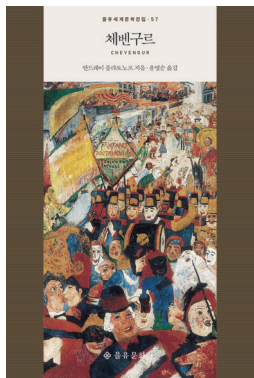
미국대학위원회 SAT 추천 도서  
하버드대학교 권장 도서  
BBC Big Read Top 100 선정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Fyodor Dostoevskii**

구력으로 1821년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1846년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하여 네크라소프와  
벨린스키의 격찬을 받으며 ‘새로운  
고골’이라는 문명(文名)을 떨치게  
된다. 1864년 『지하로부터 수기』를  
발표하는 등 왕성한 창작 활동을  
보였다. 주요 작품으로 『미성년』,  
『우스운 인간의 꿈』,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등이 있다.

역자 김희숙: 서울대학교 독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학교 슬라브어문학과 학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692면 / 17,000원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Andrei Platonov**  
 1899년 러시아 남부의 작은 마을  
 양스카야 슬로보다에서 태어났다.  
 ‘자기 시대의 기록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탐보프 3부작 『에피르의  
 길』, 『에피판의 수문들』, 『그라도프  
 시』를 완성했으며, 1927년 단편집  
 『에피판의 수문들』을 출간했다.  
 1929년 발표한 단편 『의혹을  
 품은 마카르』 때문에 작가는  
 무정부주의자이자 허무주의자로  
 비난받았으며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변절자’로 낙인찍혔다.  
 특히 1931년 발표한 중편  
 『저장용으로는』 ‘부농의 연대기’라  
 혹독히 비판받았으며, 이를 읽은  
 스탈린은 진노했다고 한다. 1951년  
 1월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역자 윤영순: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 재직 중이다.

## 57 체벤구르 CHEVENGUR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지음  
 윤영순 옮김

『체벤구르』는 나에게 개인적인 성경책 역할을 해 왔다. 어려울 때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이 책을 읽는다.  
 — 박노자

체호프가 이룬 것 이상으로 러시아 문장을 발전시킨 거의 유일한 작가.  
 매력적이지 않은 문장을 발견하기 어렵다.  
 — 더 타임스

박노자의 ‘추천의 말’ 수록, 국내 초역  
 인간이 없는 공산주의의 도래를 통찰한  
 소비에트 유토피아 문학의 정수

조이스나 프루스트, 포크너에 비견되는 20세기  
 러시아 산문의 대가이자 “소비에트의 조지 오웰”로  
 불리는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대표작이다.  
 『체벤구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접해 보지도  
 못한 프롤레타리아들이 나름대로 혁명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건설해 가는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다. 플라토노프는 태생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소비에트주의자로 비난받으면서 소련에서 가장  
 철저하게 금지된 작가 중 한 명이었다.

## 58 이력서들 LEBENSLÄU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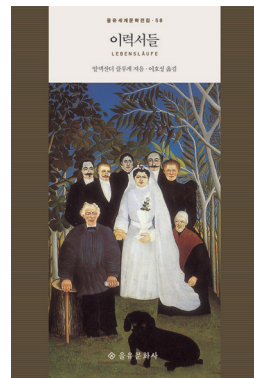
알렉산더 클루게 지음  
 이호성 옮김

아이러니한 허구 속에서  
 삶의 껍진성을 보여 주는 다채로운 이력들

이 책은 ‘뉴 저먼 시네마(New German Cinema)’의  
 대부이자 ‘오버하우젠 선언’을 주도한 영화감독  
 알렉산더 클루게의 대표작으로 그의 문학적 세계를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단편집이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 전후의 수많은 개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전쟁, 살인, 망명,  
 강제수용소의 실험, 실정법과 처벌 등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지나친 엄숙주의로 흐르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건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러 개성적인 캐릭터들의  
 이력을 쫓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악과 정의의 문제,  
 현대 사회에서의 감정과 사랑의 문제, 추모와 희망으로  
 기능하는 이야기 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알렉산더  
 클루게는 이러한 목직한 주제들을 여러 다양한  
 실험적인 서사 기법을 통해 보여 준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반대되는 악은 누가  
 규정하는가, 그 악의 실체는 무엇인가 등의 철학적  
 주제와 질문을 다룬 이 소설은 사실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하고 부조리한 설정들이 곳곳에 튀어나온다.  
 『이력서들』은 전후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독일  
 문학이 지닌 이색적인 감수성과 심미안을 체현하고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396면 / 13,000원

국내 초역



알렉산더 클루게

**Alexander Kluge**

독일 내에서는 여러 방면의 활동을 통해 문화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클루게는 자신의 영화에 덧붙여 시나리오를 출판하기도 했는데, 실제 역사 자료들, 기록물, 영상과 픽션 사이의 긴장과 협력 관계들을 보여 주는 많은 문학 작품들을 썼다. 『이력서들』 외에 주요 문학 작품들로는 『전투 묘사』, 『치명적 종말로 가는 배우의 과정』, 『감정의 연대기』, 『악마가 남긴 틈새』, 『문을 서로 마주 댄 다른 삶』, 『다섯 번째 책, 새로운 이력서들』 등이 있다.

역자 이호성: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어독문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였다. 동 대학 독어독문학과에서 「알렉산더 클루게의 『이력서들』에 나타난 ‘대안적’ 서사의 양상」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매우 다방면에서 전통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어내고, 일부는 지어내지 않은 인생사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들이 모여 함께 슬픈 역사를 이룹니다. 때로는 기록물과 같은 짧은 문구나 이질적인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참언해 두어야겠습니다.”  
— 알렉산더 클루게

## 59

플라테로와 나

PLATERO Y 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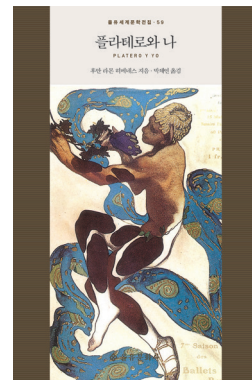
후안 라몬 히메네스 지음

박채연 옮김

20세기 산문시 중 가장 뛰어난 작품  
영원을 꿈꾸는 불멸의 순수시

『플라테로와 나』는 스페인과 중남미의 여러 나라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스페인의 생텍쥐페리”라는 찬사를 받은 195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후안 라몬 히메네스의 산문시집이다. 이 책에는 『플라테로와 나』 외에도 아름다운 ‘히메네스 시선’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플라테로와 나』는 20세기 스페인 문학의 산문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작가의 고향인 모게르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었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반 스페인의 역사, 사회, 문화적 풍토를 잘 재현했다. 그는 19세기말, 몰락한 스페인의 고질적 문제로서 흔히 ‘스페인 문제’라고 불리던 주제를 훌륭한 산문시로 승화시켰다. 이 작품을 비롯해 『세 세계의 스페인 사람들』에 이르는 후안 라몬 히메네스의 산문이 20세기 스페인 산문 문학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멜로디가 있는 긴 문장, 풍부한 삽입과 은유, 문장 리듬의 자유로운 변조, 표현력을 극대화시킨 인상주의적 서술, 시적 이미지 사용 등이 그것이다. 밀도 높은 표현력이 백미로 꼽히는 『플라테로와 나』는 위의 특징을 모두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376면 / 13,000원

1956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후안 라몬 히메네스

**Juan Ramón Jiménez**

1881년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안달루시아의 항구도시 모게르에서 태어났다. 세비아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1900년에 첫 시집 『수련』과 『바이올렛의 영혼』을 출판하였다. 1908년에서 1912년 사이에 『비가』부터 『미로』에 이르기까지 여덟 권의 시집을 잇달아 발표한 후 마드리드로 가서 당대의 쟁쟁한 지식인들과 함께 생활하다 1916년 1월 말 미국행 배를 타고 그곳에서 만난 세노비아 캄프루비와 결혼한 후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다. 1956년 10월 25일 후안 라몬 히메네스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나 사흘 뒤인 28일에 아내 세노비아가 세상을 떠난다. 절망한 시인은 집에 틀어박혀 완벽한 침묵에 들어간다. 세노비아가 죽은 지 1년 반 후인 1958년 5월 29일 아내가 세상을 떠난 병원에서 그녀를 뒤따랐다.

역자 박재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체(Che), 회상』, 『침묵의 시간』, 『서른 살, 최고의 날』 등이 있다.



commons.wikimedia.org

“하얀 나비로 부활한 플라테로는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최고점의 사랑과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다. (...) 시인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시킨 플라테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플라테로와 나』는 플라테로를 통한 ‘서정적 교육’을 통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과거를 안타까워하는 안달루시아의 비가를 넘어 우리 내면에서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순수한 낙원을 ‘지금, 여기’에서 회복하고, 인류가 누렸던 자유와 기쁨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지켜야 하는 존엄성과 희망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60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제인 오스틴 지음

조선정 옮김

얼핏 보면 제인 오스틴의 방식과 소재가 낡고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나쁜 독자들이 범하는 착각에 불과하다.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아이러니한 재능으로 인물을 창조하는 오스틴의 천재성을 『오만과 편견』보다 더 유쾌하게 보여 주는 걸작은 없다. 오스틴이 지닌 고매함의 범위는 셰익스피어적 차원까지 확장할 수 있다.  
— 해럴드 블룸

제인 오스틴은 풍자의 회초리를 들어 사정없이 인물들을 매질하는데, 이러한 풍자에는 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녀의 완벽하고 예리한 감각이 실려 있다.  
— 버지니아 울프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연애 소설

제인 오스틴의 작품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이야기, 기승전결의 균형 잡힌 전개 방식, 선명한 매력을 가진 주인공을 바탕으로 독자를 인간 세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통찰로 이끈다.

영국의 작은 마을 하트퍼드셔에 거주하는 베넷 가족은 하나같이 개성이 넘친다. 아버지는 냉소적인 유머와 내성적인 성격이 뒤섞여 있고, 어머니는 오직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만이 삶의 목적인 단순한 인물이다. 부모님에 비해 첫째 딸 제인은 섬세하면서도 마음이 곱고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영리하고 재치가 넘친다. 반면 셋째 딸 메리는 잘난 척이 심하고, 남은 두 동생인 키티와 리디아는 허영심이 많고 무식한데다



414면 / 12,000원

BBC ‘영국이 가장 사랑한 책’  
「텔레그래프」 ‘문학 사상 가장 빛나는 첫 문장을 가진 걸작 소설’  
노벨연구소 ‘세계문학 100선’ 선정

제인 오스틴

Jane Austen

1775년 12월 16일 영국 햄프셔주 스티븐턴에서 지역 교구의 목사였던 조지 오스틴과 커샌드라의 6남 2녀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1796년에 훗날 『오만과 편견』으로 개작된 ‘첫인상’을 집필하였다. 1797년에는 아버지가 출판사에 ‘첫인상’의 원고를 보냈으나 거절당했다. 초턴 시절 그녀는 가장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하는데 수차례 수정 작업 끝에 35세가 되던 해인 1811년 ‘엘리너와 메리엔’을 『분별과 감성』으로 개작하여 출간하였고, 뒤이어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파크』, 『에마』를 잇달아 출간했다. 1815년에 『설득』을 집필하기 시작해 이듬해 완성하였으나 이때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1817년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역자 조선훈: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을 거쳐 미국 Texas A&M 대학에서 영국 소설과 여성 작가를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직하면서 주로 19세기 영국 문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제인 오스틴의 여성적 글쓰기: 『오만과 편견』 새롭게 읽기』가 있다.



www.europeana.eu

게으르다.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일상은 시골 특유의 비슷비슷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이웃에 부유하고 매력적인 청년 빙리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제인 오스틴의 섬세한 묘사와 함께 펼쳐진다.

61

브루노 슈츠 작품집

BRUNO SCHULZ: PROZA

브루노 슈츠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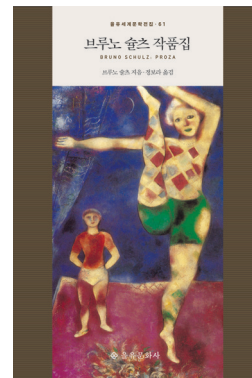
정보라 옮김

슈츠는 상상력으로 모든 것을 변모시키고 확장시키고 왜곡하여 꿈으로 바꾸어 버린다.  
— 체스와프 미워시(198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백년 동안의 고독』을 뛰어넘는,  
어디로 튈지 모를 상상력의 향연

상상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독자를 몽환의 세계로 이끄는 『브루노 슈츠 작품집』은 그의 단 두 권의 중·단편집을 모은 것으로, 비트키에비치, 고프로비치와 함께 폴란드에 실험적인 전위주의 문학을 확립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브루노 슈츠는 폴란드의 카프카로 불리며, 폴란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지만 재능을 더 꽃피우지 못하고 나치에 의해 총살되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1934년에 출간한 단편집과 그 이후 여러 잡지에 소개된 중·단편을 모아 출간한 작품집이 전부이다.

그의 작품 중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라는 캐릭터가 독특하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가로 활동하기도 한 저자가 소설에서도 그림 같은 장면을 묘사하려는 시도를 자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러 장면들이나 도시와 자연의 풍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슈츠 특유의 초현실적인 문체로 묘사하는데, 이것이 그의 작품에 독특한 색을 만들어 낸다.



444면 / 13,000원

황금 아카데미 훈장 수상



commons.wikimedia.org

브루노 슐츠

**Bruno Schulz**

1892년 폴란드 드로호비츠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1934년에 첫 단편집 『계피색 가게들』을 출간했으며 이후 문단의 주목을 받아 여러 잡지에 중·단편 작품들을 게재했다. 1934년부터 1936년 사이에 발표된 중단편들을 모아 1937년에 『모래시계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작품집으로 출간한다. 1937년 작가로서 최고의 영예인 폴란드 문학 아카데미의 황금 아카데미 훈장을 수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에 나치에 점령당한 드로호비츠에 유대인 구역인 게토가 설정되자 슐츠의 가족도 이곳에 강제 수용되었다. 그곳에서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슐츠는 1942년 11월 19일 거리에서 게슈타포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역자 정보라: 연세대학교 인문학부를 졸업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러시아·동유럽 지역학 석사를 마친 뒤 폴란드 크라쿠프의 야기엘로인스키대학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받고,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러시아어문학과 폴란드문학을 전공하여 슬라브어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학에서 강의하며 번역에도 힘쓰고 있다. 역서로 『계피색 가게들』, 『모래시계 요양원』,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있었다』, 『구덩이』, 『창백한 말』, 『거장과 마르가리타』, 『고기-어느 도살자의 이야기』 등이 있다.

포목점을 운영하는 아버지는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기이한 언행을 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든다. 바퀴벌레로 변해서 아델라의 빗자루질에 쓸려 나가기도 하고 새에 폭 빠져 다락방에 각종 새들을 키우다 자신도 새가 되려 하는 등 사람들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마술 같은 일들을 펼쳐 보여 추종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심오해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를 하기도 하며, 때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와 담판을 저 포목점을 7년간 번영시키기도 한다. 그런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시간을 되돌린다는 모래시계 요양원에 보내지는데…….

“브루노 슐츠는 생전에 단 두 권의 중단편선만을 남겼으나 이 두 권으로 폴란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의 반열에 올랐으며, 그의 작품들은 전간기 아방가르드 문학의 고전으로 꼽힌다. 특유의 신화적인 상상력과 풍성하고도 남다른 묘사 때문에 슐츠의 작품들은 화면으로도 옮겨 갔다.”

62

송사삼백수

宋詞三百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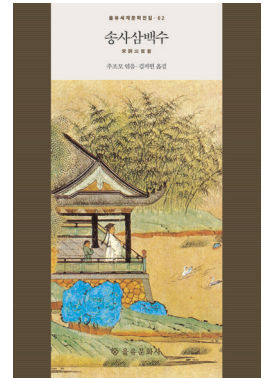
주조모 엮음

김지현 옮김

출간 이후 중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선집

『송사삼백수』는 중국 송대(宋代)의 사(詞)라는 시가(詩歌)의 모음집으로 만청(晩淸) 사대사학자(四大詞學者)로 꼽히는 주조모가 송대의 작품을 대상으로 엄중한 선사(選詞) 과정을 거쳐 사 작가 88명의 작품 3백여 수를 엮은 것을 번역한 책이다. 사는 송대에 접어들어 폭넓은 계층으로부터 애호를 받으며 크게 흥성하였고, 기존의 전통적 중국 시와는 다른 새로움으로 중국 시가 문학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송대에 사를 지었던 주된 작가층은 문인이었지만, 이외에도 황제, 승려, 규방 여인, 기녀 등 그 폭이 매우 넓었다.

사가 지어진 상황 또한 여러 가지여서, 연회에서 즉흥적으로 지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서재에서 고심과 퇴고를 거듭해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 평소에는 근엄한 관료나 진중한 학자로 지내던 문인이라 할지라도 유약한 여인의 속내를 애절한 어조로 호소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사 작품을 보면 시대는 변해도 사람의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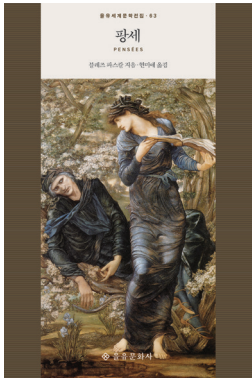
543면 / 15,000원

주조모

**朱祖謀**

1857년에 주광제(朱光第)와 손씨(孫氏) 사이의 4남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7년에 당오대송금원의 사 총집 5종과 사 별집으로 구성된 총 260권 규모의 방대한 사총집(詞總集) 『강촌총서(彊村叢書)』를 펴냈으며, 1924년에는 송대의 대표적 사 작가 88명의 작품 3백여 수를 엄선하여 『송사삼백수』를 출간했다. 이후 1931년에 상해(上海)에서 만 74세로 사망하였다. 창작사집으로는 만년에 펴낸 『강촌어업(彊村語業)』이 있다.

역자 김지현: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당송대 시가 문학에 관련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632면 / 15,000원

블레즈 파스칼  
Blaise Pascal  
1623년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의 클레르몽페랑에서 태어났다. 프롱드 난이 일어나자 클레르몽으로 피신했다가 난이 끝나자 다시 세상으로 나가 소위 사교계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때 만난 자유로운 사유의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후에 집필되는 『팡세』의 대상이 되었다.

역자 현미애: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블레즈파스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가톨릭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63 팡세 PENSÉES

블레즈 파스칼 지음  
현미애 옮김

나는 파스칼에게 어떤 애정 같은 것을 느끼는데,  
그는 나에게 무한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 니체

나의 삶을, 나의 영원을 결정한 작가 파스칼.  
— 모리악

이성과 감성을 혼드는 파스칼의 ‘생각의 단편들’  
프랑스 사상사에 큰 영향을 미친 고전

『팡세』 안에는 계산기를 발명한 과학자, 진리를 위해 싸우는 과격한 운동가, 종교에 대한 독서와 고찰을 멈추지 않는 신앙인, 승합차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의 실천가와 같은 파스칼의 다양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의 언어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깊고, 신비롭다. 블레즈 파스칼은 종교를 해치는 큰 적이 무신론자와 자유사상가라고 보고, 그들에게 자신이 믿는 유일한 진리를 설득하려고 기독교 변증론을 세웠다. 그는 ‘진리’라는 말에 무감각해진 시대를 위해 이 작품을 썼지만, 갑작스럽게 병이 위급해져 완성하지 못했다. 『팡세』는 파스칼이 죽은 뒤인 1670년, 그의 큰누이가 중심이 되어 그의 글 묶음을 모아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 씨의 팡세(생각)』라는 제목으로 펴낸 것이 ‘팡세’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 64 제인 에어 JANE EYRE

샬럿 브론테 지음  
조애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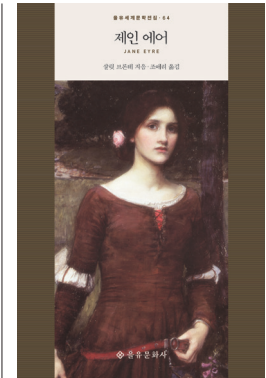
『제인 에어』에서 샬럿 브론테의 천재성과 격정, 분개에 빠져든다.  
— 버지니아 울프

『제인 에어』에서 독자를 휘어잡는 샬럿 브론테를  
능가하는 작가는 거의 없다.  
— 해럴드 블룸

우리는 제인 에어를 읽었다. 너무 재미있어서 밤늦게까지 읽었다.  
한쪽 손을 잃고 장님이 된 로체스터를 만나는 부분이었다.  
— 빅토리아 여왕

제인 에어 열병을 가져온  
문학적인 여성 인권 선언

“최초로 개인의 의식을 그려낸 역사가”로 불리는 샬럿 브론테의 대표작이다. 순응하고 인내하며 봉사하는 여성이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빅토리아 시대에, 현실적인 조건이나 개인적 자질에서 이와 동 떨어진 여성인 제인의 성장을 통해 당대 여성의 삶 전반, 즉 여성의 교육, 고용, 사랑, 결혼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독립적이고 열정적이며 억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여성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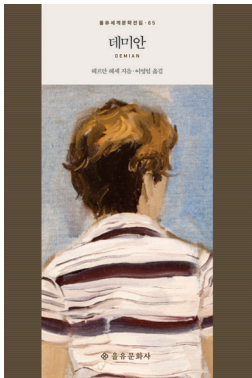


718면 / 18,000원

연세 필독 도서 200선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도서  
「가디언」 선정 가장 위대한 소설  
100선

샬럿 브론테  
Charlotte Brontë  
1816년 4월 21일 영국 북부 요크셔에서 태어났다. 1846년부터 쓰기 시작한 『제인 에어』가 1847년에 출간되자 대중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1854년 아버지의 목사보인 아서 벨 니콜스와 결혼하였으나 이듬해에 결핵으로 서른아홉의 나이로 죽었다.

역자 조애리: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19세기 영미소설과 젠더』, 『성, 역사, 소설』, 『역사 속의 영미소설』 등이 있고, 역서로는 『빌레트』, 『만들레 와인』, 『설득』, 『밝은 모퉁이집』, 『왕자와 거지』 등이 있다.



228면 / 10,000원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칼브의 유서 깊은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첫 시집인 『낭만적인 노래』가 릴케에게 인정받아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에 헤세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헤세는 삶에서 비로써 고뇌와 절망, 그 극복을 위한 정신적 투쟁의 과정을 문학 속에 담아내는 가운데 내면의 길을 통한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해 고투했다. 1946년에 노벨 문학상과 괴테 상을 동시에 받았으며, 1962년 몬타놀라에서 사망했다.

역자 이영임: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헤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 겸임교수다. 저서로 『신화 속 인생, 인생 속 신화』, 『신화와 대중문화』, 『게임소계론 II』 등이 있고, 역서로는 『유리알 유희』가 있다.

## 65 데미안 DEMIAN

헤르만 헤세 지음  
이영임 옮김

『데미안』이 불러일으킨, 온몸을 전율케 하는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 토마스 만

성장에 대한 관통하는 듯한 대담한 묘사,  
전통적인 인도주의의 이상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 노벨 문학상 선정의 글

현대적인 의미에서 위대한 작가다. 복잡하고 섬세하며 암시적이다.  
— 「뉴욕 타임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게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체험이 녹아 있는 자전적 소설로 그의 대표작이다. 그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밑바탕이 된 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세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당시 문학계를 뒤흔든 문제작이다.

## 66 에다 이야기 THE PROSE ED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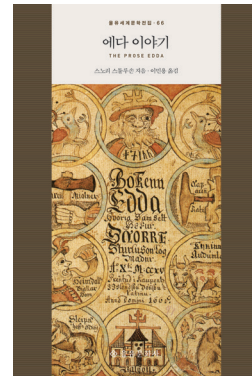
스노리 스톨루손 지음  
이민용 옮김

천지 창조부터 인류의 탄생, 신들의 사랑과 음모, 세계 종말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스케일이 짜임새 있게 구성된 이야기는 게르만 신화의 음울하고 매혹적인 면모를 충실하고 다채롭게 보여 준다.  
— 매일신문

『반지의 제왕』 등 수많은 대작의 기원이 된  
게르만 신화의 출전

신과 거인, 엘프, 난쟁이, 전사 등이 빚어내는  
음울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게르만 신화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게르만 신화집이다. 대중이 읽기 쉽게 신화 이야기를 다듬어 펴낸 다른 도서와 달리 게르만 신화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노리 스톨루손의 『산문 에다』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에다 이야기』는 스노리가 음유 시인들에게 시를 짓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전체 3부로 구성하여 집필한 『산문 에다』 중에서 게르만 신화와 관련된 부분인 1, 2부만을 소개하였다. 1부에서는 창세기에서 종말까지 게르만 신화의 전모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2부에서는 난쟁이의 마법 반지에 얽힌 탐욕과 저주 이야기, 영웅 시구르드(지크프리트)의 비극적인 전설 등 1부에서 소개하지 못한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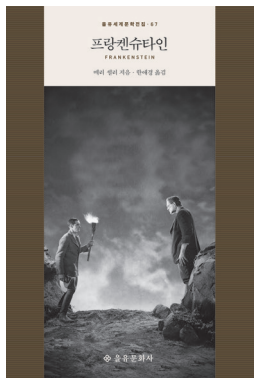


280면 / 12,000원

스노리 스톨루손  
**Snorri Sturluson**

아이슬란드의 시인이자 역사가, 정치가로 1179년 아이슬란드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 태어나 『산문 에다』, 혹은 『스노리 에다』로도 알려져 있는 『신(新) 에다』와 초기 노르웨이 왕들에 대한 전설과 역사가 혼합되어 있는 사가를 묶은 작품 『헤인스크링글라』, 자신의 선조로 여기는 유명한 북유럽 음유 시인 에길의 삶을 다룬 『에길 사가』 등을 집필하였다.

역자 이민용: 서울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인문한국(HK) 교수로 재직 중이다.



299면 / 12,000원

뉴스위크 선정 세계 명저 100  
옵서버 선정 최고의 소설 100  
미국대학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메리 셸리  
**Mary Shelly**  
1797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무정부주의의  
선구자이자 급진적인 정치  
사상가였고, 어머니는 최초의  
여성주의 이론서인 『여성의  
권리 옹호』를 쓴 페미니즘의  
선구자이자 교육자였다. 주요  
작품으로 『마지막 사람』, 『포크너』,  
『마틸다』, 『발페르가』, 『퍼킨  
워백의 풍운』, 『6주간의 여행  
이야기』 등이 있다.

역자 한애경: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다.

## 67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

메리 셸리 지음  
한애경 옮김

신에게 도전한 프로메테우스의 현대판이자  
인조인간을 다룬 SF의 효시가 된 고전

열아홉 살의 메리 셸리가 놀라운 상상력으로 탄생시킨  
과학 소설로 다른 인간이나 남성에 대한 ‘절규’를 담은  
작품이자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 논쟁의 불을 지핀  
선구적인 작품이다. 정본으로 인정받는 1818년 판을  
번역했으며, 페미니즘 코드에 바탕을 둔 신선한 작품  
해설 「타자로서의 괴물, 타자로서의 여성」을 실었다.  
낭만주의 공포 소설 혹은 괴기 소설의 전통에 속하는  
메리 셸리의 대표작인 이 작품은 후대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워더링 하이츠』, 『모비 딕』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위스 제네바의 최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총명한  
젊은이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대학에서 2년간  
화학 연구에 매진하여 발생과 생명의 원리를 터득한 후  
시체와 유골과 동물의 근육, 장기 등을 모아 밤낮없이  
작업하여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체구의 인간을  
완성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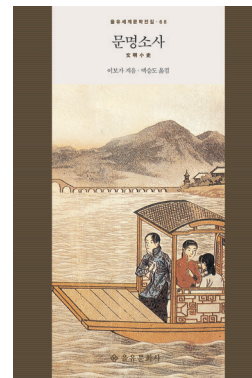
## 68 문명소사 文明小史

이보가 지음  
백승도 옮김

루쉰이 4대 건책소설 작가로 추앙한  
이보가의 장편소설

격변기 중국 관료 사회의 부패와 무능, 설익은  
지식인들의 이중성, 기녀와 같은 기층민들의 실상을  
꼬집은 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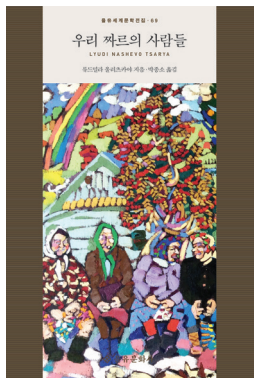
이 작품은 청 정부가 청일전쟁에서 패하고 잇달아  
경자사변(庚子事變)을 겪으면서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고 새 정치, 새 학문을 내세워 근대화를 추진하던  
청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청말 중국  
소설계에서 정치·사회적 비판 의식이 가장 두드러진  
작가 중 하나인 이보가가 다양한 일화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와 미숙하고 충동적인 지식인, 구습에  
얽매어 있는 우둔한 백성 등 다양한 군상들이 새로운  
시대와 문물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문명소사』 속 관료  
사회는 시험을 보고 안 되면 돈으로 관직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꼬였던 일도 인맥과 뇌물이 동원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의 길이 열린다. 혁명 운운 하는  
인물들 역시 유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이처럼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 자신의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은  
새로운 문명을 향한 점진적인 근대화의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



844면 / 18,000원

이보가  
**李寶嘉**  
중국 청나라의 소설가이자  
신문, 잡지 편집인. 1867년  
강소성 무진에서 태어났다. 주요  
작품으로는 『문명소사(文明小史)』,  
『관장현형기(官場現形記)』,  
『남정필기(南亭筆記)』 등이  
있다. 『수상소설』이라는 잡지에  
장편소설을 연재하던 중 폐  
질환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06년 40세라는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

역자 백승도: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장자』에서의 진인(真人)의 담론  
방식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 『늑대의 꿈』, 『장파  
교수의 중국 미학사』, 공역으로  
『도와 로고스』,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등이 있다.



474면 / 14,000원

국내 초역  
제2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 작가의  
단편집  
2005 러시아 '올해의 문학상' 수상  
2006 러시아 '최우수 문학 작품상'  
최종 후보작



commons.wikimedia.org

## 69 우리 짜르의 사람들 LYUDI NASHEVO TSARYA

류드밀라 올리츠키야 지음  
박종소 옮김

올리츠키야는 예리한 소설가이자 현명한 예술가이다.  
그녀가 만든 인물들은 늘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일상생활 속의 감성과 본능을 생생히 담은  
올리츠키야의 소설은 기존 문학이 청송하던 모든 가치관에  
가장 우아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 가디언

엄히고설킨 미로 같은 인간의 삶을 경외와 연민  
그리고 유머로 풀어내는 류드밀라 올리츠키야.  
경쾌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풀어내는 필치가 환상적이다.  
— 슈피겔

우리 모두가 헤엄치고 있는  
신의 세계에서 각각의 인간은 '특별한 경우'다

올리츠키야의 단편 소설 모음집으로, 작가는 이  
작품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현대 러시아에서 '우리  
짜르의 사람들', 즉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영위했으며, 또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  
보여 준다. 시골 벽지에 사는 프랑스 여인에서부터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 두 다리가 없는  
술주정뱅이 상이군인, 성가대의 노래하는 여인, 장님  
노인,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젊은 청년, 의사,  
수학자, 간호사 자매, 성공을 거둔 여성 작가와 그의  
딸들 등 각 단편 작품마다 마주치는 다양한 인물, 성격,  
관계들은 하나의 전체적인 군상을 이루고, 그들이  
모여 만드는 전형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모자이크는 그

어느 작품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준다.  
특히 이 작품집은 지금까지 한국 독자들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소비에트 러시아 시대의 삶의  
모습을 내밀하고도 상세하게 전달한다.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참담하고 힘겨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삶을  
영위해 나간 러시아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상이군인과 그 가족의 삶의  
모습, 스탈린의 대숙청 기간의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일반 소련 시민들이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과 그의  
죽음에 대해 취했던 태도,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궁핍한 러시아의 현실과 꿈을 상실한 러시아 청년들의  
이야기 등을 가감 없이 진실하게 접하게 된다.

“너는 곧 의사들과 돌맹이들, 사람들, 구름의  
아름다움이 바로 한 사람의 장인의 손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미풍이 의사들과 그 그림자들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이 모습을 관찰하는 우리 짜르의 작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고 싸우고  
죽이고 입을 맞춘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작가를  
눈치채지 못하면서.” — 작가 서문 중에서

류드밀라 올리츠키야

**Ludmila Ulitskaya**

1943년 러시아의 바시키르 자치  
공화국에서 태어났다. 1980년대  
말부터 잡지에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영화로 제작된 시나리오  
「리베르티의 자매들」과 「모두를  
위한 여인」의 작가로 유명해졌다.  
1992년에는 문학지 『신세계』에  
단편소설 「소네치카」를 발표했다.  
이 단편은 1994년 프랑스어로도  
번역되어 프랑스에서 ‘올해의  
번역’으로 꼽혔으며 ‘메디치상’을  
받기도 했다. 다른 주요 작품으로는  
『메데아와 그녀의 아이들』, 러시아  
‘부커상’을 수상한 『쿠코츠키의  
경우』, 러시아 ‘올해의 소설상’을  
받은 『당신의 수직 올림』, 러시아  
‘올해의 문학상’을 받은 『우리  
짜르의 사람들』, 러시아 ‘최우수  
문학작품상’을 받은 『번역가  
다니엘 슈타인』 등이 있다. 그녀의  
작품은 지금까지 34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역자 박종소: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어문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  
단계 높은 러시아어1, 2』(공저),  
번역서로는 바실리 로자노프의  
『고독』,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아저씨의 꿈』,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의 『악에 관한 세편의  
대화』, 공역으로 『전쟁과 평화』,  
『말의 미학』, 『무도회가 끝난 뒤』  
등 다수가 있다.



70  
사랑에 빠진 여인들  
WOMEN IN LOVE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지음  
손영주 옮김

로렌스에겐 일상적 경험의 숨어 있는 본질을 끌어내는 천재성이 있다.  
— 아나이스 닐

로렌스는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작가다.  
— E. M. 포스터

제인 오스틴의 문학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문학이 시작되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으로 유명한 작가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또 다른 대표작이다. 제인 오스틴의 문학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문학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작품들 중 하나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세기말적 분위기와 국가와 민족 간의 새로운 개념 정립에 관한 논의, 아울러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대두되었던 연애관과 결혼관의 변화와 이제 막 태동되기 시작한 페미니즘적인 시각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은 그저 단순한 연애담을 다룬 로맨스 소설이 아니다.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의 정치, 역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화두들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의 생각에 새로운 자극을 부여한다.

작가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주제들은 20세기를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이다. 이 작품이 이처럼 복합적인 여러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시 작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여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가



828면 / 18,000원

랜덤하우스가 선정한 20세기 영미  
소설 100  
제9회 유영번역상 수상작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David Herbert Lawrence**  
 1885년 영국 중부 노팅엄셔의  
 탄광촌 이스트우드에서 태어났다.  
 1907년 단편 소설 「서곡」을  
 『노팅엄셔 가디언』지의 단편 소설  
 공모에 제시 체임버스란 이름으로  
 응모하여 당선되었다. 1911년에  
 후퍼가 출판사에 추천했던 소설  
 『흰 공작』이 출간되었다. 1918년에  
 『새로운 시들』을 발표했으며,  
 1921년에 『아론의 지팡이』를  
 완성했다. 1928년에는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완성하고 피렌체에서  
 자비로 출판했다. 이후 건강이  
 나빠진 그는 1930년 2월 초에  
 방스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했으나  
 3월 1일 자진 퇴원했으며 3월 2일  
 방스에서 사망했다.

역자 손영주: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과 영문학을 공부하고 동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을  
 거쳐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영국  
 소설과 비평 이론을 전공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태어난 영국 중부 노팅엄셔의 탄광촌 이스트우드는  
 산업 혁명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언제나 시커먼  
 석탄가루를 뒤집어쓰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동시에 로빈 후드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서우드 숲과  
 들판,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기도 했다. 이 같은  
 복합적 요소는 로렌스의 풍부한 문학적 자산이 돼  
 주었다.

“천재적 작가들의 경우가 대개 그러하듯 로렌스의  
 성취를 한두 마디로 요약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여인들』은 서구 문명의  
 종말을 직감하면서도 새로운 삶의 비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영혼의 치열하고 저절로 고투를 담고  
 있으며, 현대 서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가차 없는  
 해부와 극복을 모색한 영문학사상 가장 중요한  
 걸작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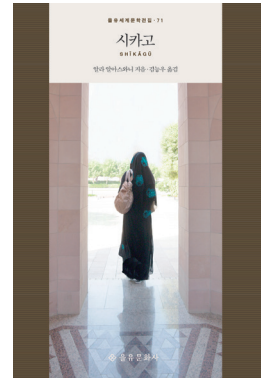
그녀는 사랑이란 개인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개인이 사랑 혹은 그 어떤 관계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빛나는  
 단독의 영혼이 그 자신의 존재 조건들 가운데  
 하나인, 그 자신의 평형 상태의 조건으로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다. 남자는 그녀에게 스스로를  
 내주어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 의해 찌꺼기까지  
 들이마셔야만 했다. (421~422쪽)

## 71 시카고 SHĪKĀGŪ

알라 알아스와니 지음  
 김능우 옮김

미국의 거대도시 시카고에서 살아가는 이집트인들을  
 통해 9·11 이후 심화된 아랍과 서구 문화의 충돌,  
 이집트 독재 정권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야쿠비안 빌딩』으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알라 알아스와니가 자신의 유학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 미국 내 대학에 유학하는 이집트 학생들과  
 이집트계 교수들의 다양한 삶의 단면들을 보여 준다.  
 운동권 출신인 까닭에 이집트에서 의사가 되지 못하고  
 미국으로 유학 온 나지, 콥트인으로 차별을 받아  
 조국을 떠난 카람, 독재 정권의 하수인인 사프와트와  
 그의 끄나풀인 다나나, 조국 이집트를 경멸하고  
 미국을 예찬하는 라오파트 교수, 애인을 이집트에  
 두고 이민 와 미국인 여성과 결혼해 사는 살라흐  
 교수, 성공을 위해 학업에 충실한 타리크, 보수적  
 집안 출신의 샤이마……. 이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전하며 소설은 시카고 내 미국인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미국 내 문제에 대한 아랍인의 시각을  
 보여 준다. 또한 이 이집트 지식인들의 삶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이집트 사회의 부패와 독재 체제를 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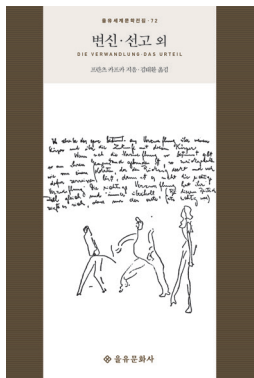


476면 / 15,000원

국내 초역

알라 알아스와니  
**'Ala al-Aswani**  
 1957년 이집트 카이로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2007년에  
 발표된 장편소설 『시카고』는 전작  
 『야쿠비안 빌딩』과 마찬가지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지금도 문필  
 작업과 언론 활동을 통해 혁명의  
 지속과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자 김능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와 대학원 아랍어문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268면 / 12,000원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  
연세 필독 도서 200선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 도서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20세기 현대 문학의 선구자  
카프카는 1883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유대계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카프카의  
주요 작품으로는 『성』, 『변신』,  
『실종자』, 『판결』, 『유형지에서』  
등이 있다.

역자 김태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대학에서  
비교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72 변신·선고 외 DIE VERWANDLUNG·DAS URTEIL

프란츠 카프카 지음  
김태환 옮김

그의 작품들은 비논리적이고 답답한 꿈의 바보짓을  
정확히 흉내 냄으로써, 생의 기괴한 그림자놀이를 비웃고 있다.  
— 토마스 만

나는 카프카의 글에서 가장 고유한 방식으로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거나  
놀라지 않았던 글은 결코 한 줄도 읽어 본 적이 없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이자 모더니즘 문학의 개척자  
카프카의 대표 중단편 모음

카프카는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로  
현대 소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를 제외하고는  
20세기 소설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카뮈, 사르트르, 베케트, 이오네스쿠,  
보르헤스, 마르케스 등 세계적 작가들이 카프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문학을 넘어 연극과 철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 73 노생거 사원 NORTHANGER ABBEY

제인 오스틴 지음  
조선정 옮김

첫 작품이면서 동시에 유고작이라 할 수 있는  
제인 오스틴의 ‘별종’ 같은 작품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중 한 명인 제인 오스틴의  
사실상 첫 장편소설로 1799년 이미 탈고한 후  
‘수전(Susan)’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 팔았으나  
책을 기다리는 사이 다른 소설가의 다른 작품이 같은  
제목으로 나오면서 출간되지 못했다가 작가가 다시  
1816년 원고를 사들인 후 죽고 나서 가족들에 의해  
유고작으로 출간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장편소설 중에서 그녀의 첫 작품에 해당하는  
만큼 주제나 인물 형상화, 서술 기법 측면에서 제인  
오스틴의 초기작 느낌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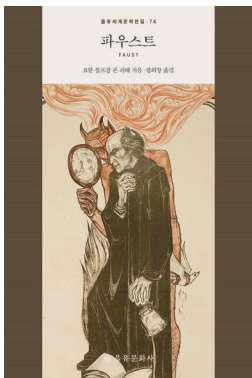
이 책은 또한 ‘시대를 타는’ 소설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타지 않는’ 웃음으로 가득한 작품이다. 당시  
여성의 교육 문제와 결혼관, 상류 계층의 허위의식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시종일관 시대를 넘나드는  
녹슬지 않는 위트를 지니고 있다.



324면 / 12,000원

제인 오스틴  
**Jane Austen**  
1775년 12월 16일 영국 햄프셔  
주 스티븐턴에서 지역 교구의  
목사였던 조지 오스틴과  
커샌드라의 6남 2녀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주요 작품으로 『오만과  
편견』, 『분별과 감성』, 『에마』 등이  
있다.

역자 조선정: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을 거쳐 미국 Texas A&M  
대학에서 영국 소설과 여성  
작가를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832면 / 18,000원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미국대학위원회 선정 SAT

추천도서

노벨연구소 선정 세계문학 100선

## 74 파우스트 FAUST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장희창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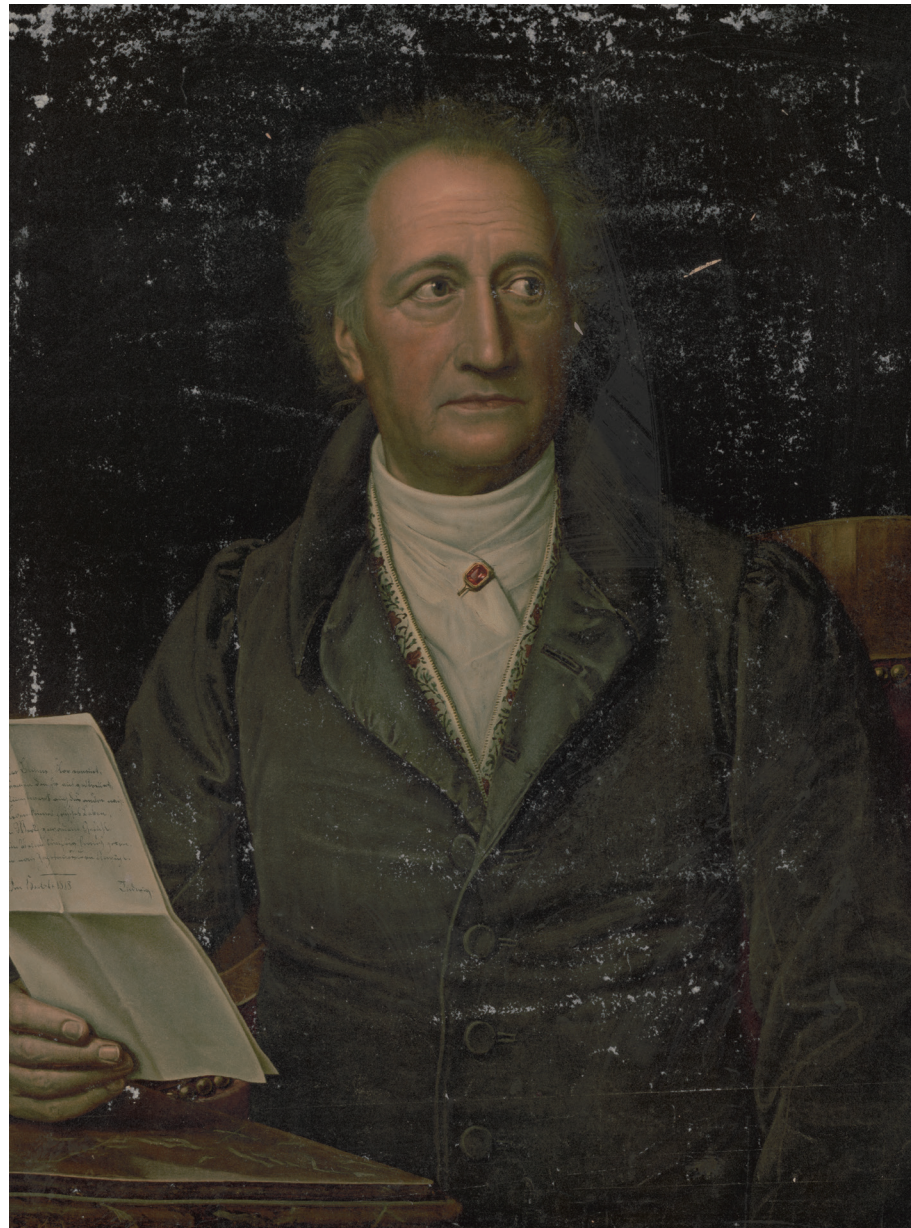
알브레히트 쇠네의 『파우스트』 판본은  
옛 텍스트가 새로운 텍스트일 수 있고,  
우리의 텍스트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슈퍼겔

선한 인간은 어두운 욕망 가운데서도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 파우스트는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한계를 느끼고 자살을 결심한다. 그때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쾌락과 젊음을 약속하는 대신 악마에게 영혼을 맡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한다. 이 계약을 받아들인 파우스트는 첫사랑인 그레트헨을 만나거나 헬레네와 결혼하면서 마음껏 자신만의 삶을 즐긴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악마와의 계약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한다.

중세 봉건사회 말기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 근대 유럽 정신의 방황과 모험을 추적하고 있는 『파우스트』는 괴테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세계 문학사를 통틀어 위대한 걸작의 반열에 올랐다.

불멸의 고전이 된 『파우스트』에는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2003년 괴팅겐대학의 게르만어문학자인 알브레히트 쇠네 교수는 괴테의 원래 의도에 더 가깝게 접근하려는 시도로 기존 판본에서 제외되었던, 일명 ‘발푸르기스의 보따리’라 불린 부분을 과감히 복원하였다. 본 도서는 이렇게 추가된 원고와 정본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년 8월, 황실 고문관인 아버지와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772년 괴테는 베를린의 고등 법원에서 견습 생활을 시작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괴테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젊은 베르터의 고통』의 무대가 된 곳이기 때문이다. 베를린에서 괴테는 약혼자가 있는 샤를로테 부프를 연애했는데, 이 체험은 『젊은 베르터의 고통』에 거의 사실 그대로 담겨 있다. 이후 독일 문학 최초의 사회 소설로 평가받는 『친화력』을 완성했고, 자서전의 백미로 꼽히는 『시와 진실』 1-3부도 탈고했으며, 『서동시집』 집필에도 착수했다. 1821년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를 완성했으며, 죽기 1년 전 대작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1832년 바이마르 자택에서 운명했다.

역자 장희창: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독어독문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동의대 독어독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독서평론집 『춘향이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가 있고, 번역한 책으로 괴테 『색채론』,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귄터 그라스 『양철북』, 『계절음으로 가다』, 후고 프리드리히 『현대의 구조』, 안나 제거스 『약자들의 힘』, 카타리나 하커 『빈털터리들』, 베르너 용 『미메시스에서 시뮬라시옹까지』, 크빈트 부흐홀츠 『책 그림책』, 레마르크 『개선문』, 『사랑할 때와 죽을 때』 등이 있다.

실린 장면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발푸르기스의 밤’을 부록으로 실었다.

“지식への 무한한 갈구, 끝없는 욕망과 탐욕, 자본과 권력과 전쟁이라는 지옥 불에 달구어진 근대 인간 파우스트의 운명, 그것은 또한 현대 문명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렛대일 것이다. (...)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 모든 물질주의의 한계를 돌파하며 인간 정신의 ‘고양 가능성’을 확인해 나간 끈질기고 기나긴 여정. 이것이 『파우스트』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것이다.”

본문 중에서:

그렇다, 나는 이런 뜻을 위해 모든 걸 바쳤으니,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험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기에선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보람찬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인간의 무리를 지켜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멈추어라, 그대는 너무도 아름답구나! (728쪽)

75

러시아의 밤

RUSSKIE NO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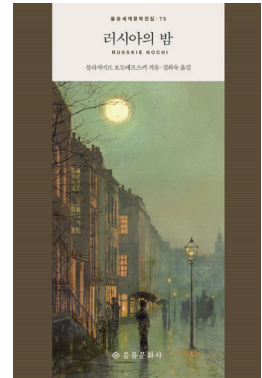
블라지미르 오도예프스키 지음

김희숙 옮김

파우스트와 그의 동료들이 서구의 문명과 역사를 체스 말처럼 다루며 토론하는 산업혁명기의 천일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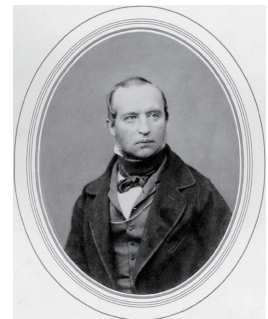
상상력을 자극하는 풍부한 이야기와 여러 철학적 담론들이 펼쳐지는 이 작품은 19세기판 천일야화라 할 수 있다. 천 일에 못 미치는 아홉 번의 밤을 보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철학적이면서도 현학적인 대화와 서구 문명의 병폐를 꿰뚫는 작가의 시선은 천일야화에 버금가는 깊이를 담고 있다. 소설 속에 또 다른 소설이 소개되는 액자식 구성인 이 작품은 작가가 이야기 속 인물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는 주제들을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책에서 소개되는 ‘기사 잠바티스타 피라네시의 작품들’ 이야기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했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건축의 설계도면이 실린 책에 붙잡혀 실제로 설계도면이 건축되기 전까지 영생에 가까운 시간을 살면서 계속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흥시인’에서는 악마 같은 능력을 지닌 박사에게 쉽게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달라고 부탁한 주인공의 파멸을 그리고 있다. ‘이름 없는 도시’라는 이야기는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인류의 미래를 경고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이다. ‘최후의 자살’이라는 다른 이야기에서는 뉘스스가 예견한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인구수에 의해



468면 / 14,000원

국내 초역



en.m.wikipedia.org

블라지미르 오도예프스키  
**Bladimir Odoevskij**  
 1803년(어떤 자료에 의하면  
 1804년) 류리크 혈통을 이어받은  
 유서 깊은 공작 가문의 후손으로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1821년  
 『유럽 통보』에 「허세는 얼마나  
 위험한가」, 「짜증 나는 날들」을  
 게재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823년 번역가이자 시인인  
 라이치의 문학 서클에 가입해서  
 활동했다. 이 시기 『조르다노-  
 브루노와 피에트로 아렌티노-  
 16세기 풍속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나, 두 개의 장을 쓴 채  
 미완으로 남겼다. 1827년 푸슈킨과  
 개인적 교문을 트게 되었고 그와  
 함께 『문학 신문』, 『북방의 꽃들』을  
 위해 일했다. 이후 푸슈킨의  
 『동시대인』 발행에도 도움을  
 주었다. 1843년에는 자볼로츠키와  
 함께 민중을 위한 독서 저널  
 『농촌의 독서』를 발행했다.  
 1843년 『러시아의 밤』을 완성했고,  
 1844년에는 『작품집, 전 3권』을  
 출간했다. 1869년 뇌염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역자 김희숙: 서울대학교 독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학교 슬라브어문학과 학부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보리스  
 필나크의 장식체 소설 연구』와  
 역서로 블라지미르 소로킨의 『줄』,  
 후고 후퍼트의 『마야코프스키의  
 삶과 예술』, 푸슈킨의 『스페이드의  
 여왕』 등이 있다.

기술이 최고조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멸망하게 되는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는 통일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자는 새로운 세기를 책임질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을  
 주장한다. 절대 왕정 지지자이면서도 농노제 폐지와  
 공개 재판 제도, 감옥 개혁 등을 주장하며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속기를 배우기도 했던  
 저자의 이력만큼이나 독특한 이 책은 독자들에게  
 디스토피아에서 걸어 올린 유토피아적인 전망을 맞볼  
 수 있게 해 준다.

“이 책은 식물계와 동물계의 상호 연관, 예술에서의  
 모방 문제, 인간 영혼 속의 선과 악, 도덕성, 박애,  
 관념 철학과 경험 철학, 정치 경제학, 생리학,  
 화학, 수학, 인식과 언어, 예술가 존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과제를 연구하면서 이 모든  
 분야를 서로 접근시키고자 한, ‘모든 것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다.”

76

콜리마 이야기

KOLYMSKIE RASSKAZY

바르람 살라모프 지음

이종진 옮김

『콜리마 이야기』는 존재의 본질을 반영하는 책이다.  
 — 솔 벨로(노벨 문학상 수상자)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천재적인 작가다!  
 — 타르코프스키

살라모프는 러시아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의 모든 거장들 속에서도 물론 위대한 작가다.  
 — 네克拉소프

20세기의 도스토옙스키로 불리는 살라모프의 대표작  
 삶을 재현하는 거대한 모자이크이자  
 한 줌의 다이아몬드 같은 이야기들

『콜리마 이야기』는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20세기의  
 도스토옙스키다”라는 찬사를 받은 바를람 살라모프의  
 대표작 중 하나다. 작가는 이 작품을 17년 동안 콜리마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중노동을 하고 석방된 뒤에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1954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비교적 짧은 단편들로 이뤄져 있으며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주제가 신랄하고, 밝고 생생한 언어로 쓰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콜리마라는  
 수용소가 만든 지옥을 기록한 단순한 회상이나  
 회고록을 넘어서서 새로운 산문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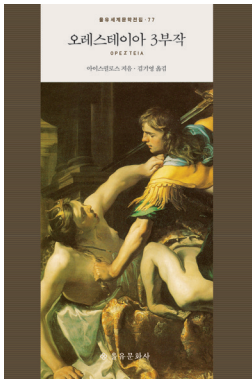


360면 / 12,000원

국내 초역

바를람 살라모프  
**Varlam Tikhonovich Shalamov**  
 1907년 6월 18일 볼로그다시에서  
 태어났다. 1936년 첫 단편  
 「아우스티노 의사의 세 죽음」을  
 『10월』 잡지 첫 호에 발표하며  
 집필 활동을 시작했다. 1954년 첫  
 작품집 『콜리마 이야기』 집필에  
 착수했다. 1961년에는 첫 시집  
 『부싷돌』을, 1964년에 시집  
 『나뭇잎 소리』를 출간했다.  
 198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1982년에는 정신병 환자 요양소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해 크루프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역자 이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학술원)에서 명예 문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슬라브학회,  
 한국노어노문학학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  
 교수로 있다.



272면 / 12,000원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  
시카고 대학 선정 그레이트 북스  
클리프트 패디먼 선정 '일생의 독서  
계획'

아이스킬로스

**Aeschylus**

기원전 525/524년 아티카의 데모스  
엘레우시스에서 에우포리온의  
아들로 태어났다. 기원전  
499/498년에 비극 작가로 정식  
데뷔했는데 15년 만인 기원전  
484년 비극 경연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다. 한 전거에  
의하면, 대(大)디오니시아 제전의  
비극 경연에 19번 참여하여 13번  
우승했다고 한다.

역자 김기영: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고전학과에서 소포클레스 비극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정암학당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77 오레스테이아 3부작 OPESTEIA

아이스킬로스 지음  
김기영 옮김

아이스킬로스는 비극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비극 작가 중에서 가장 진실하게 비극적이다.  
그 누구도 인생의 불협화음으로부터  
그처럼 울려 퍼지는 음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 이디스 헤밀턴

인간은 자신의 죄과에 대한  
신의 응징과 고난을 통하여 지혜에 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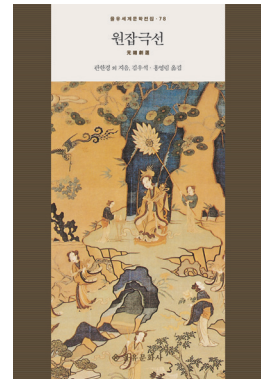
트로이아 원정을 떠나기 위해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친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은 트로이아를 정복한 후 귀향한다. 딸의  
희생에 분노한 아내 클뤼타이메스트라는 정부  
아이기스토스와 계락을 꾸며 아가멤논을 살해한다.  
추방당했던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귀향하여  
누나 엘렉트라를 만나고, 계락을 세워 어머니와 그의  
정부를 살해해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 어머니를 죽여  
복수의 여신들의 추격을 받게 된 오레스테스는 아폴론  
신의 명령대로 도시 국가 아테나이로 가서 아테나  
여신에게 탄원한다. 결국 오레스테스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구원받는다.

## 78 원잡극선 元雜劇選

관한경 엮음  
김우석 · 홍영림 옮김

보는 형식이 아니라 듣는 형식의 연극  
드라마가 아닌 오페라로 불리는 중국 전통극의 효시

『원잡극선』은 중국 전통극 가운데 하나인 원나라  
시대의 잡극이 수록된 작품집이다. 이 책에는 원국  
4대가로 꼽히는 관한경, 백박, 마치원을 비롯해 이호고,  
석근보, 맹한경, 기군상, 정정옥 작가 등 원잡극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잡극은 원나라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로 중국 고전문학사 후반기의  
중요한 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원잡극을 포함한 중국  
전통극은 서구극과는 다른 독특한 형식과 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찍이 20세기 독일의 연극학자 베르톨트  
브레히트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가 주창한 유명한  
서사극 이론에서 추구하는 연극적 실천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송나라 이후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재편의 시기를 산 사회 기층  
민중의 생활과 그들의 생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원잡극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기  
범상한 민중들의 삶의 결 하나하나를 소상히 들여다볼  
수 있다.



836면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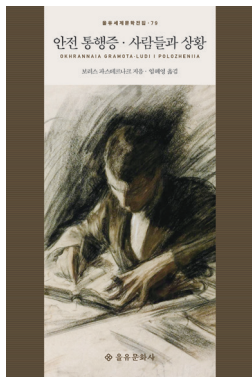
편역 관한경

**關漢卿**

원잡극의 대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원국 4대에 속하는  
인물이다. 원국 4대가에는 관한경  
이외에도 왕실보, 백박, 마치원이  
포함된다. 특히 관한경은 작품을  
집필하면서 동시에 연출을 하고  
배역을 맡기도 했으며 여러 잡극  
작가들과 친분을 쌓으며 왕성하게  
활동해서 잡극을 융성하게 만든  
공로자로 평가받는다.

역자 김우석: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여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인하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자 홍영림: 연세대학교  
중문과에서 중국 고전 희곡을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극예술을 중심으로 중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다.



324면 / 13,000원

79

안전 통행증·사람들과 상황  
OKHRANNAIA GRAMOTA·  
LUDI I POLOZHENIIA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지음  
임혜영 옮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닥터 지바고』의 저자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자전적 에세이

이 책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두 편의 자전적 에세이를 엮은 것이다. 30대 후반에 쓰기 시작해 3년간 집필한 『안전 통행증』과 60대 중후반에 그 속편 격으로 쓴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30여 년간의 작가의 변화와 성숙된 시각을 느낄 수 있다. 『안전 통행증』은 파스테르나크가 예술과 문화 등 일련의 문제에 관한 사상을 피력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꼽으며, 『닥터 지바고』는 소설 형태를 갖춘 “또 하나의 『안전 통행증』의 세계”라고 말할 만큼 무게감 있고 중요한 작품이다. 그가 어떻게 문학의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지를 비롯해 그와 릴케, 마야콥스키, 톨스토이와의 인연도 담고 있다. 또한 파스테르나크 작품 세계의 배경을 알 수 있음은 물론, 격변기의 러시아·소련의 역사와 문화도 읽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사람들과 상황』은 작가가 직접 밝히고 있듯이 첫 자전적 작품인 『안전 통행증』을 보완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만 첨가된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이후 작가의 더 성숙된 시각이 제시될 뿐 아니라 첫 번째 자전적 에세이와 동일한 몇몇 묘사 대상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전작에 비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문장이 눈에 띈다. 3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작가가 ‘쉽고 단순한 문체’라는 고수의 경지에 오른 까닭이다.

“두 자전적 작품은 일찍부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번역되어 온 지 오래다. 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영역이나 독역을 대본으로 한 중역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 원본을 대본으로 한 번역은 전무한 게 사실이다. 독자는 이제 늦게나마 원전을 번역한 여기 두 작품을 통해, 작가의 예술 세계 체험뿐 아니라 그의 철심 평생의 삶에 녹아 있는 러시아 및 소비에트 시기(1890~1960) 역사와 문화 일체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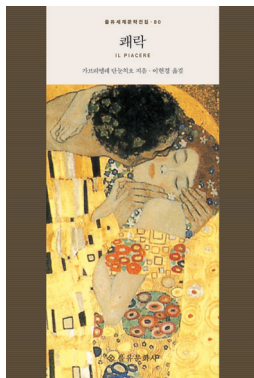
commons.wikimedia.org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Boris Leonidovich Pasternak**

1890년 2월 10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1913년 문집 『서정시』에 시가 처음 발표됐고, 첫 시집 『먹구름 속의 쌍둥이』를 출간한 후, 아세예프 등과 함께 미래주의 그룹에 참여했으나, 1915년 즈음에는 미래주의자들과의 교제를 끊었다. ‘자전적 에세이’란 부제가 달린 『사람들과 상황』은 작가가 직접 밝히고 있듯이 첫 자전적 작품 『안전 통행증』을 보완하기 위해 쓴 것이다.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이 결정되었는데, 또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러시아 작가동맹으로부터 제명되었고 그 박해로 인해 수상을 거절했다. 1960년 희곡 『눈먼 미녀』를 집필하다가 5월 20일에 폐암으로 사망한다.

역자 임혜영: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의 동 대학원 노문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역서로 『삶은 나의 누이』, 『스펙트르스키/이야기』, 공역으로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 등이 있다.



495면 / 15,000원

국내 초역

80

쾌락

IL PIACERE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지음

이현경 옮김

지금까지도 단눈치오의 이질적이고 관능적이고  
야수적이고 데카당스한 음악이 울려 퍼진다.

— 베네데토 크로체

데카당스의 기념비적인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책  
공허한 기존 가치와 파멸로 치닫는 현실 세계의 불화를  
그린 이탈리아 유미주의 문학의 걸작

단눈치오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 작품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 “복잡한 사랑의 열정과  
관능적인 모험의 끝은 어디인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 주제를 제시한다.  
1889년 출간된 『쾌락』에는 단눈치오가 경험한 로마  
사교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향락적이고  
세기말적인 분위기의 로마를 계속 등장시키며 귀족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쾌락』은 서사 구조나 표현 방식에서는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미세한 심리  
분석과 비밀스러운 감각들, 지식인의 복잡한 삶을  
심도 있게 파헤치면서 자연주의의 경계를 벗어나,  
오히려 데카당스하고 유미주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특히 안드레아를 둘러싼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  
작품들을 묘사할 때 유미주의는 절정에 이른다.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인용하고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소설의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  
19세기 말부터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리고  
수많은 비유와 은유로 안드레아의 심리를 한층 깊이

있게 표현하여 비난받아 마땅할 부도덕한 행위들을  
오히려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다. 『쾌락』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1918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가브리엘레 단눈치오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삶’이나 ‘예술 작품과 같은 삶’을 인생의 슬로건으로  
삼을 정도로 한평생을 독특하게 살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그는 시인·소설가·극작가였으며  
기자이자 정치가로, 군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 속에는 현실과 문학을 노골적으로  
대조함으로써 자신의 미적 이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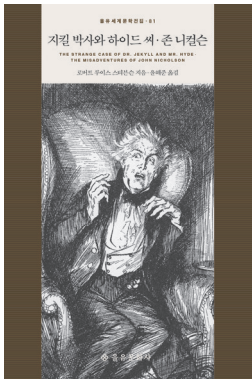
en.wikipedia.org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Gabriele D'Annunzio**

1863년 이탈리아 페스카라의  
유복한 부르주아 가정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883년 갈레세 공작 가문의  
마리아 아르두앙과 결혼하여  
귀족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실현했지만 단눈치오의 여성 편력  
때문에 1890년 파경을 맞았다.  
1895년 초인 사상을 다룬 『바위  
위의 처녀들』을 발표했으며,  
이후 니체와 바그너의 영향을  
받아 초인 사학을 완성했다.  
1897년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국수주의자들과 함께  
연설가로 활동하며 군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쟁 후  
몬테네보소 공작 작위를 받지만  
파시즘 시기에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당을 불신해서 가르다  
호수의 별장에 철거하다가  
1938년에 사망했다.

역자 이현경: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비교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제1회  
‘번역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탈리아 정부가 주는  
‘국가번역상’을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76면 / 12,000원

「옵서버」지 선정 가장 위대한 소설  
100선  
국내 초역 『존 니컬슨의 불행한  
모험들』 수록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Robert Louis Stevenson**  
1850년 에든버러에서 태어났다.  
주요 작품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보물섬』, 『신  
천일야화』 등이 있다. 1894년  
『허미스트의 강독』을 집필하는  
도중 12월 3일에 졸도를  
일으켰다가 사망했다.

역자 윤혜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81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 존 니컬슨

##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 THE MISADVENTURES OF JOHN NICHOL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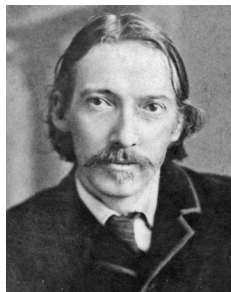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지음  
윤혜준 옮김

어린 시절부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내게 행복의 형태를 가운데 하나였다.  
— 보르헤스

스코틀랜드의 국민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대표작

이 책은 작가 스티븐슨이 ‘크리스마스 소설’로 기획하고  
쓴 두 작품을 담고 있다. 인간의 이중성, 선악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다소  
어둡고 기괴한 느낌을 준다. 반면 『존 니컬슨』은  
플롯이 다소 과장되어 있어 블랙코미디를 연상시킨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와 달리 『존 니컬슨』은  
해피엔드로 끝난다는 점도 다르다. 하지만 두 권 모두  
훌륭한 ‘크리스마스 책’이란 점은 분명하다.



commons.wikimedia.org

82

로미오와 줄리엣

## ROMEO AND JULIET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서경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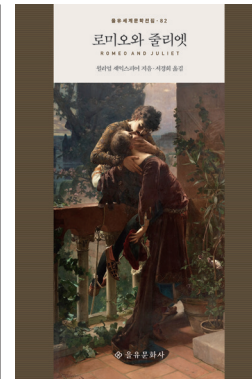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의 등장인물들은 물론 허구의 존재지만,  
그 사실성은 우리의 그것을 능가한다.  
— 헤럴드 블룸

셰익스피어가 곧 연극이다.  
— 빅토르 위고

그는 한 시대를 위한 작가가 아니라 온 시대를 위한 작가다.  
— 벤 존슨

섬세하면서도 함축적인 언어로  
세기의 로맨스가 된 고전

오늘날 명실 공히 글로벌 문화 아이콘 가운데 하나가  
된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햄릿』과 함께 연극 무대에 가장 많이 오를 뿐만  
아니라 오페라, 발레,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예술 문화 및 대중문화 장르에 특별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4백 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 낸 이 작품의 두  
연인은 이제 시간을 초월한 낭만적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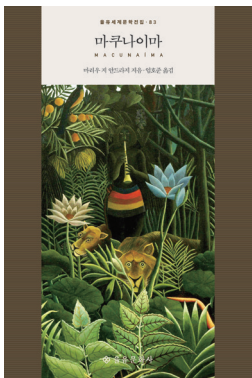


248면 / 12,000원

미국대학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년 스트랫 퍼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셰익스피어가 고향을  
떠나 런던에 있는 극단에 합류한  
것은 158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곳에서 배우  
겸 극작가로 활동하면서 명성을  
쌓아 갔다. 1595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오늘날의 셰익스피어를 있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다.

역자 서경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타난 탈가부장제적  
결혼의 이상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광주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다.



264면 / 12,000원



commons.wikimedia.org

### 83 마쿠나이마 MACUNAÍMA

마리우 지 안드라지 지음  
임호준 옮김

브라질 문화 정체성 ‘식민주의’의 문학적 표현이자  
유럽 카니발 문학의 정수를 보여 주는 걸작

『마쿠나이마』는 1920년대 브라질 모더니즘 문화 운동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브라질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이다. 아마존 정글 출신의 반영웅(反英雄) 마쿠나이마가 정글을 떠나 도시로 와서 브라질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을 빼앗기 위해 식인 거인과 싸워 이긴 후 다시 정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브라질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모색을 유쾌하고 토속적인 풍자 속에 녹여 낸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브라질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이후 브라질의 모든 문화 텍스트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1969년에는 브라질 신영화 운동인 시네마 노부(Cinema Novo)의 자장 안에서 조아킹 페드루 지 안드라지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주요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 소설은 ‘식민주의’를 잘 나타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주의란, 브라질의 문화 정체성이 곧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가 혼합된 브라질의 역사가 말해 주듯 다른 지역의 문화를 마구 먹어 치워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쿠나이마』는 형식적인 면에서 원주민, 아프리카, 포르투갈, 브라질의 다양한 신화, 노래, 제의, 텍스트 등을 왕성하게 흡수한다. 언어적인 면에서도 브라질 민중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다양한 원주민 방언을

포르투갈어에 합병시킴으로써 식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장르적인 면에서도 설화, 편지문, 노래, 기도문 등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가 뒤섞여 있다. 『마쿠나이마』는 브라질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가장 브라질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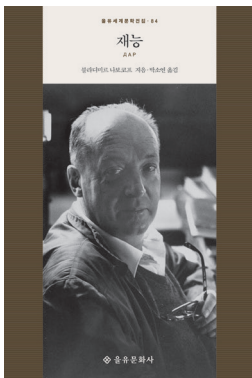
“『마쿠나이마』는 창작 방법과 형식 면에서 브라질 모더니스트들이 주창한 ‘식민주의’를 실천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 이 작품의 식인 모티프는 카니발의 그로테스크한 육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마쿠나이마』는 20세기의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카니발 문학의 정수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마리우 지 안드라지

**Mário de Andrade**

마리우 지 안드라지는 1893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다. 예술원을 졸업하던 1917년에 첫 시집 『시 한 편만 다 피 한 방울이 있네』를 출간했으며 브라질 북동부와 내륙 지방을 여행하기도 했다. 1926년 집안 농장이 있는 아라카루아라로 가서 『마쿠나이마』를 쓰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2년 만에 완성되어 1928년에 출판되었다. 1928년 오스바우지 지 안드라지가 『식인 잡지』를 창간하고 「식인종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식민주의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식인종 선언」의 문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마쿠나이마』는 식민주의의 실천을 넘어 브라질 민족의 탄생에 대한 알레고리로 평가받고 있다. 마리우 지 안드라지는 1945년 2월 25일 상파울루에 있는 그의 집에서 5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역자 임호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한 후 스페인 마드리드대학교에서 스페인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에 재직하면서 스페인어권 현대 문학과 영화를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시네마 슬픈 대륙을 품다: 세계화 시대 라틴아메리카 영화』, 『스페인 영화: 작가주의 전통과 국가 정체성의 재현』, 역서로는 『백 년 동안의 고독』, 『현대 스페인 회곡선』 등이 있다.



676면 / 18,000원

## 84 재능 ДА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지음  
박소연 옮김

온갖 러시아 문학의 뮤즈들이 등장하고  
지적 유희가 돋보이는 체스 같은 소설

이 소설은 나보코프 스스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향수 어린 작품(BBC와의 인터뷰)”으로 꼽았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망명 생활의 슬픔과 기쁨”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나보코프 스스로 자신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러시아어 소설로 손꼽은 『재능』은 그만큼 작가의 전작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작품은 나보코프를 작가로 성장시킨 러시아문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소설이자 자신의 정신과 영혼의 뿌리가 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선사한, 돌아갈 수 없는 조국 러시아에 대한 절절한 연서이기도 하다.

『재능』은 특히 구상에서 완성까지 5년이라는 집필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그의 전 작품 중에서 최장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나보코프는 『재능』을 집필하면서 시인 호다세비치에게, “『절망』 이후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은 끔찍하게 힘든 작품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토로가 이해될 만큼 이 작품에는 다수의 문학적 인용과 문화·역사적 인용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 미술, 자연과학 등에 이르는 나보코프의 방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이 녹아 있다.

또한 이 소설은 나보코프의 탐미주의자이자 유태주의자로서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된 다양한 소설 구성 기법들, 기만과 속임수로 점철된 소설 구성

원칙, 심지어 한 문장 안에서 일어나는 시제와 시점의 예기치 않은 변화, 현실과 상상의 복잡한 교차, 객관적 묘사와 내적 독백의 융합, 작가와 타인의 목소리 결합 등, 복잡한 서사 구조를 갖춘 작품이다. 거기에 다양한 유형의 언어유희가 한몫 거든다. 상충되는 형용어구의 병치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 산문 안에 녹아 있는 시의 운율과 리듬, 한마디로 소설 작법을 총망라한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재능』의 세계는 나의 다른 소설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환영의 세계이다. 나는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러시아어로 썼던, 혹은 쓰게 될 마지막 소설이다. 소설의 여주인공은 ‘지나’가 아니라 러시아 문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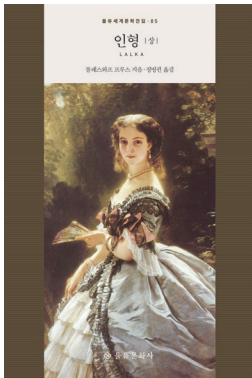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영역본 서문 중에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Vladimir Nabokov

20세기가 낳은 러시아문학의 거장이자 미국문학의 대표작가로도 인정받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1899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1925년 베라 슬로닌과 베를린에서 결혼했으며 1926년에는 첫 번째 장편 『마센카』를 출간했다. 이후 『킹, 퀸, 잭』, 『루진의 방어』, 『공적』, 『카메라 옵스쿠라』 등을 발표했다. 1955년에는 나보코프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롤리타』가 출간되었으며 이 작품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교수직을 접고 본격적으로 집필에 전념한다. 이후 『창백한 불꽃』, 『말하라, 기억이여』, 『나보코프의 4중주』, 『투명한 물체들』 등을 출간하며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 갔다. 1974년 『어릿광대를 보라!』를 발표한 이후 마지막 장편인 『오리지널 오브 로라』의 집필을 시작했지만 결국 미완으로 남았다. 1977년 스위스 로잔에서 서거했다.

역자 박소연: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각 권 644면, 660원 /  
각 권 18,000원

국내 초역



commons.wikimedia.org

85·86

인형

LALKA

볼레스와프 프루스 지음

정병권 옮김

프루스는 폴란드 소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주의자이며,  
『인형』은 19세기 폴란드 최고의 소설이다.  
— 스타니스와프 바라인차크(하버드대학 폴란드 문학 교수, 시인)

폴란드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폴란드 최고의 소설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고  
영화, 연극, TV 연속극으로 방영된 인기작

『인형』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체스와프 미워시를 비롯한 많은 문학 평론가들에게 폴란드 최고의 소설로 인정받는 작품으로,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풍부한 묘사와 단순하고 명쾌한 언어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폴란드의 몇몇 건물에 “이 집에 1878년부터 1879년까지 볼레스와프 프루스가 소설 『인형』에 등장시킨 인물 스타니스와프 보쿨스키가 살았다. 그는 1863년 봉기에 가담했고, 시베리아에서 유형을 살았으며, 상인이었고, 수도 바르샤바의 시민이었다. 그는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자선가였고, 학자였다. 그는 1832년에 출생했다” 같은 문구를 담은 기념물이 있는데, 이 기념물들은 애독자들이 그 건물에서 소설 속의 가공인물이 살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만든 것이다.

이렇게 독자들이 기념물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경우는 세계문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2015년 9월 5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민 책 읽는 『인형』의 날’ 행사 때 전국의 학교, 문화 회관, 도서관, 서점, 공중 독서실 등 1천6백여 장소에서 전 국민이 동시에 『인형』을 읽었을

정도로 『인형』은 폴란드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폴란드 귀족들의 완고한 특권 의식, 이기심, 도덕적 해이, 경제관념의 부재, 노동에 대한 경시, 시대 변화에 대한 무지, 이성적 사고 불능 등 폴란드의 근대화애 장애가 되는 봉건주의적 잔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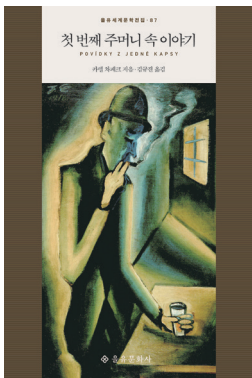
“이 소설에는 작가의 온화한 심성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크세소프스키 부부나 마루세비츠 등 아무리 사악한 인물들도 인간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 준다. 혹은 스타르스키처럼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무위도식하는 철면피 같은 인물은 끝까지 스스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지만, 그의 부도덕적인 행위 ‘덕택’에 다른 사람이 비로소 사실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함으로써 그의 악행에도 순기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볼레스와프 프루스

**Bolesław Prus**

1847년 호루비에수프의 몰락한 귀족 집안에 태어났다. 1879년에 국제문학협회 회원이 되었고 이 해에 소설 『스타시의 모험』을 발표했다. 다음 해에 폴란드 문학으로는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묘사한 중편소설 『돌아오는 물결』과 단편소설 『미하우코』를 발표했다. 1882년 일간지 『새소식』의 편집장이 되었으나 이듬해 폐간되어 다시 『바르샤바 신문』으로 복귀했다. 『침묵하는 목소리들』, 『어린 시절의 죄』, 『실수』, 『초소』, 『인형』, 『여성 해방론자들』, 『파라온』, 『삶의 가장 일반적인 이상들』, 『어린이들』 등 많은 작품을 연재하고 발표했다. 1912년 65세의 나이로 바르샤바에서 사망했다.

역자 정병권: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문학 석사를, 폴란드 야기엘로인스키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폴란드어과 교수로 근무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다. 저서로 『폴란드어-한국어 사전』, 『폴란드사』, 『동유럽 발칸, 민주화와 문화 갈등』(공저) 등이 있고, 번역서로 『자작나무 숲』, 『빌코의 아가씨들』, 『포즈난 가정교사의 회고』, 『개종자』 등이 있다. 공역으로는 『판 타테우시』, 『헤르베르트 시선』이 있다.



300면 / 13,000원

카렐 차페크  
Karel Čapek  
1890년 1월 9일, 체코  
북부 크라코노세 지역의  
말레스바토노비체에서 태어났다.  
1920년에는 형 요세프와 공동  
집필한 희곡 「R.U.R(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으로 오늘날  
보통명사가 된 ‘로봇’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탄생시켰다. 여러 번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나치스 독일에 저항하는 정치  
성향 때문에 끝내 수상자가 되지  
못했으며 1938년 12월 25일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대표작으로 철학 소설 3부작  
『호르두발』, 『별동별』, 『평범한  
인생』과 『도롱뇽과의 전쟁』,  
희곡 「R.U.R」, 「곤충 극장」,  
「마크로폴로스의 비밀」 등이 있다.

역자 김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명예교수로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부총장과  
동유럽학대학장을 지냈다.

## 87 첫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 POVIDKY Z JEDNÉ KAPSY

카렐 차페크 지음  
김규진 옮김

‘로봇’이라는 단어를 만든 공상과학소설의 대부,  
미스터리와 철학을 결합해  
특별한 탐정 소설을 완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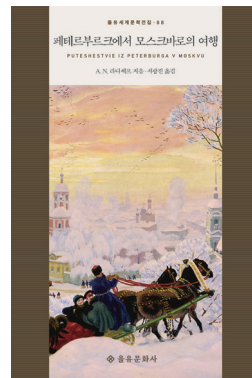
체코 문학사 천 년 동안 체코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작가 카렐 차페크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깊은 철학적 사유와 행동하는  
지성을 보여 주며 철학자, 저널리스트, 번역가  
및 평론가 등으로도 활발히 활동해 체코 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감당해 온 체코의 ‘국민 작가’다.  
『첫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에서 카렐 차페크는  
탁월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선보이며, 깊은  
철학적 사유를 유쾌한 추리 소설 형식으로 풀어내어  
미스터리로 철학의 반열로 끌어올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이 위대한 작가의  
인간에 대한 성찰과 독보적인 발상, 천재적인 감각을  
자랑하는 유머와 유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88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 PUTESHESTVIE IZ PETERBURGA V MOSKVU

알렉산드르 라디셰프 지음  
서광진 옮김

백 개의 아가리를 가진 괴물들이 판치는  
제정 러시아 사회를 고발하는 거대한 고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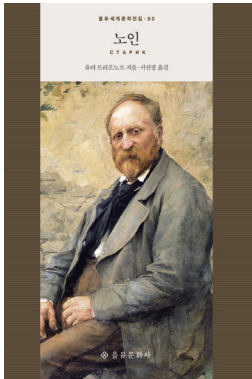
라디셰프는 명실상부 ‘혁명의 예언자이자 선구자’란  
평가를 받으며 러시아적 저항 정신의 첫 자리에  
놓이는 인물이다. 1918년 7월 30일에 개최된 소비에트  
인민위원회는 레닌의 주도 아래 ‘사회주의와 혁명의  
위대한 활동가들’ 및 작가, 시인들의 동상 제작을  
의결했는데,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라디셰프  
동상이었다. 이러한 라디셰프의 혁명가적 모습은 소설  
곳곳에서 잘 드러난다. 주인공인 ‘나’는 모스크바까지  
가는 길에 여러 도시와 역참을 거치면서 다양한 계급의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러시아의 본모습을 깨달아  
간다. 라디셰프는 그들 중에 안하무인격의 관리와 귀족  
가문의 족보를 정리하는 일에 거의 모든 것을 바친  
인사 관리국 서기 등을 등장시켜 당시의 기득권층을  
풍자하고 있다. 아울러 농노제를 타파하고 귀족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 성격 때문에 19세기의 위대한 망명 지식인이었던  
게르첸은 이 작품을 ‘거대한 고발장’이라 정의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 작품은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근대 러시아 소설이  
태어나던 자리를 잘 보여 주고 있다.



332면 / 13,000원

알렉산드르 라디셰프  
Aleksandr Radishchev  
1749년 8월, 오늘날  
사라토프(펜자) 현에서 출생했다.  
1789년 『포도르 바실리예비치  
우샤코프 생애전』을 출간했으며  
1790년 『토볼스크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을  
발표했다. 다소 급진적인  
작품들로 예카테리나 여제의  
본노를 산 라디셰프는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이후 형량이 낮아져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났다.  
1792년 『중국 무역에 관하여』를  
출간, 1792년부터 1796년까지  
『인간, 죽음, 불멸에 관하여』를  
집필했으나 사후 출간되었다.

역자 서광진: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모스크바 국립 대학  
문학사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400면 / 15,000원

국내 초역  
1951년 스탈린상 수상  
1965년 레닌상 후보  
1981년 노벨 문학상 후보

유리 트리포노프  
**Yuri Trifonov**  
1925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1963년 잡지 『즈나냐』에 투르크메니스탄 운하 건설을 다룬 장편소설 『갈증의 해소』를 연재하고, 1965년 레닌상 후보에 올랐다. 1978년 『노인』을 발표하고, 이후 독일 소설가 하인리히 뵐의 추천으로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1981년 3월 갑자기 심장암으로 입원, 그해 3월 28일 치료를 받는 중에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역자 서선정: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러시아 학술원 러시아문학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Y. Trifonov*

## 89 노인 СТАРИК

유리 트리포노프 지음  
서선정 옮김

20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트리포노프의 유작!

저자는 이 작품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지시할 수 없는 온갖 작은 일들로 인한 우연이야말로 삶의 실존적 본질이라고 말한다. 역사의 물결 속에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수많은 개인의 삶이 얹혀 있고, 그것이 함께 뒤섞여 시대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난 1919년의 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벌어진 대혼란은 사람들의 물결이 만들어 내는 역사와 사건을 표현하지만, 그 속에 휩쓸린 개인의 삶은 그러한 흐름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별성과 고유성을 갖는다. 작가는 이 점에 주목하여 감정과 생각이 빠진 사건의 건조한 기록 속에는 역사적 진실의 실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 90 돈키호테 성찰 MEDITACIONES DEL QUIJ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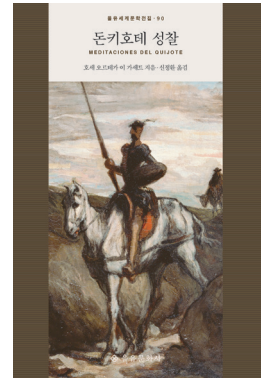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지음  
신정환 옮김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니체 이후 유럽 최고의 작가일 것이다.  
— 알베르 카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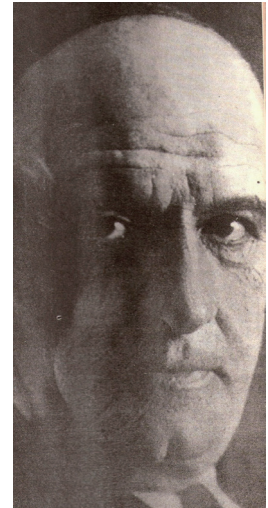
‘니체 이후 최고의 작가’라 불리는 오르테가 이 가세트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원천이 되는 작품

이 책은 『돈키호테』를 해설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돈키호테주의(세르반테스주의)를 다룬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 당시의 스페인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땅이었다. 과거를 존중하고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적 태도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박제화해 놓고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오르테가는 이것을 반동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반동주의는 과거를 불러내어 현재를 지배하게 한다. 오르테가는 돈키호테를 통해 반동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한다.

돈키호테는 새롭게 탄생한 근대의 영웅이다. 그는 피상적이고 표층적인 근대적 인식론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인 풍차를 향해 돌격하고 마에세 페드로의 인형들과 싸운다. 비록 놀림의 대상이 되는 비극적 삶이지만 그는 자신을 둘러싼 물질성과 속물성에 맞서 이상을 찾고, 근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심층의 세계를 살아간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험에 뛰어들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나’가 된다. 내면에 영웅의



373면 / 14,000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José Ortega y Gasset**  
 스페인의 20세기 대표적 철학자이자 탁월한 문화비평가로, 스페인의 근대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철학자로 간주된다. 1912년부터 마드리드 센트랄대학교 형이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을 설파했고, 인문학적 성찰이 넘치는 대중적인 글을 발표하여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오르테가의 사상은 조국인 스페인에서보다 국제적으로 더 명성을 떨쳤으며 토마스 만, 헤르만 헤세, 알베르 카뮈 등 위대한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표작인 저서로는 『돈키호테 성찰』, 『적추 없는 스페인』, 『예술의 비인간화』, 『관객』, 『대중의 반역』, 『칸트』, 『사랑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역자 신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페인 마드리드대학교에서 중남미 문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의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두 개의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해』, 『환멸의 세계와 매혹의 언어』, 『지중해, 문명의 바다를 가다』 등이 있고, 역서로는 『돈키호테의 지혜』, 공역으로 『세르반테스 모범 소설』, 『히스패닉 세계』, 『마술적 사실주의』 등이 있다.

잔재를 품고 있는 인간의 삶은 불투명한 미래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연속이다.

오르테가는 이 작품에서 스페인의 운명을 투사하면서,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자신의 세계를 만든 돈키호테처럼 스페인이 역사의 전설을 힘차게 부르길 소망하고 있다. 논리 정연한 철학이 부족했던 스페인의 종교적 배타성과 자폐성이 근대로의 진입로를 막았다고 주장한 오르테가는 독일의 합리주의와 현상학 등을 소개하며 보수와 진보, 내륙과 해안, 신앙과 이성 등으로 갈라진 ‘두 개의 스페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돈키호테주의인데, 『돈키호테 성찰』은 그의 이러한 사상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오르테가는 스페인이라는 ‘상황’에서 세르반테스가 어떻게 사물에 접근하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문체를 창조했는지 연구한다. 이는 『돈키호테』가 피상적이라는 편견을 깨고 ‘소설로서의 심층’을 보여 줌으로써 스페인에 고질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아 온 개념을 정립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돈키호테 성찰』에서 『돈키호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작품은 세르반테스 시대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명료하게 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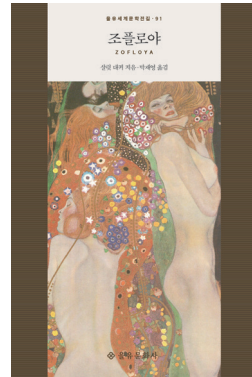
## 91 조플로야 ZOFLOYA

샬럿 대커 지음  
 박재영 옮김

출간 당시 외설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은 고딕 로맨스 소설

『조플로야』의 시대적 배경은 15세기이지만, 1806년에 출간된 작품이다. 그래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 주인공 빅토리아는 한 남자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순결한 약혼녀가 있는 남자를 갈망한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질투와 분노를 조플로야라는 인간의 모습을 한 사탄에게 조종당하면서 내용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이는 인간에게 부모의 본보기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면서, 조플로야라는 사탄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인간의 욕망과 질투가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는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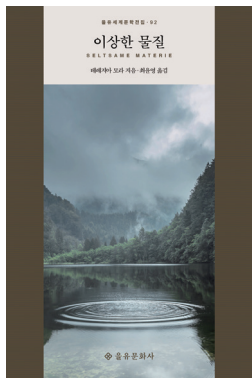
하지만 『조플로야』를 단순히 독자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한 교훈 소설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저자가 원한 것은 여성의 자치성, 자유, 욕망, 인권의 표출이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샬럿은 이 작품을 통해 이런 여성성을 성공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444면 / 15,000원

샬럿 대커  
**Charlotte Dacre**  
 1771년 말 아니면 그다음 해 초 영국 런던에서 대금업자이자 급진적인 문필가로 알려진 아버지 조너선 킥과 어머니 데버라 리라의 딸로 태어났다. 1805년에는 『세인트 오머 수녀의 고백』을, 이듬해 5월에는 『조플로야 — 15세기 베네치아의 로맨스』를 출간했다. 이듬해에는 소설 『자유인』을 출간하는데, 그 인기가 대단해서 연말까지 3판을 찍었다. 1825년 11월 7일 신넷의 나이로 런던의 랭커스터 플레이스에서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마쳤다.

역자 박재영: 미국 에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학부와 석·박사 통합 과정을 공부하고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338면 / 14,000원

잉게보르크 바흐만 문학상 수상작  
수록

## 92 이상한 물질 SELTSAME MATERIE

테레지아 모라 지음  
최윤영 옮김

서글픈 변방의 유년 시절과 주인공의 성장을  
느릿느릿한 어조로 아름답게 그린 작품

『이상한 물질』은 테레지아 모라의 첫 작품집으로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 장려상을 받았으며 여기에 실린 단편 「오펜리야의 경우」로 1999년에 독일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잉게보르크 바흐만 문학상을 수상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외에도 테레지아 모라는 활발한 창작 활동을 보이며 뷔르트 문학상, 베를린 문학 작업실의 오픈 마이크 문학상, 라이프치히 도서전 시전상, 독일서적상, 브레멘 문학상, 졸로투르너 문학상, 문학의 집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현대 독일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었다.

『이상한 물질』에는 모두 10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는데 변방의 고향에서 보낸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이 주를 이룬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성년으로 입문하기 전 단계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섬세하고 차분한 시각으로 세상을 관조하고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공통적으로 국경 지대의 시골이다. 다만 시골이라 해도 도시의 대척점에서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길을 잃기 쉬운 늪지대가 있거나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번두리 모습으로, 낙후되고 답답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몽환적이면서도 동시에 지독히 현실적인 변방의 풍경을 스산하지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집은 독자들에게 ‘테레지아 모라’라는 낯설지만

독특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잘 보여 준다.

“이상한 물질은 안정된 물질과는 반대 극에 서 있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대체로 사회에서 소외된 주변부 존재들이지만 이들은 이상한 물질처럼 바로 이러한 그들의 타자성과 변방성, 주변성으로 인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하게 만드는 군상들이다.”

테레지아 모라

**Terézia Mo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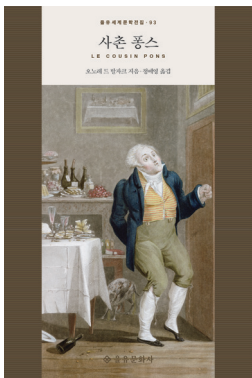
1971년 헝가리에서 독일 소수 민족으로 태어나 헝가리어와 독일어를 모두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1990년 독일 통일 후 베를린으로 이주했으며 훔볼트대학에서 헝가리어문학과 연극을 전공했다. 1998년 전업 작가로 데뷔했으며 시나리오 「갈증」으로 베를린 문학 작품상을 수상했다. 1999년에는 「이상한 물질」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데뷔했으며 본 작품집에 수록된 「오펜리야의 경우」로 잉게보르크 바흐만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후에 뷔르트 문학상, 오픈 마이크 문학상,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역자 최윤영: 서울대

독어독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본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사실주의 소설의 침묵하는 주인공들』, 『한국문화를 쓴다』, 『서양문화를 쓴다』, 『카프카 유대인 몸』,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이 있으며 역서로 『개인의 발견』, 『목욕탕』, 『영혼 없는 작가』, 『훔볼트의 대륙』 등이 있다.



commons.wikimedia.org



436면 / 15,000원

국내 초역

오노레 드 발자크  
Honoré de Balzac

1799년 투르에서 자수성가한 부르주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1829년 이미 수차례의 사업 실패를 경험한 발자크는 첫 작품인 『마지막 올빼미당원』을 출간했다. 그로부터 20여 년간 초인적인 집필 능력을 보이며 방대한 전집 ‘인간극’을 창조해 나갔다. 1850년 발자크는 오랜 연인이었던 한스가 부인과 것처럼 고대하던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 뒤 서거했다.

역자 정예영: 서울대학교 불문과와 동 대학원 불문과를 졸업했다. 2005년 파리 8대학에서 「발자크의 『인간극』에서의 이미지의 정신분석」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 불문과 교수이다.

### 93 사촌 풍스 LE COUSIN PONS

오노레 드 발자크 지음  
정예영 옮김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그리고 복합적인 작가 발자크는  
문명이라는 괴물과 그 모든 갈등, 야심, 격정들을 보여 준다.  
— 볼들레르

발자크 외에는 셰익스피어만이 이만큼 폭넓고 생생한 인류를 창조했다.  
— 에밀 졸라

모든 악덕과 미덕의 목록을 재작성하고  
욕망의 전형을 창조해 낸 사실주의 거장의 걸작

『사촌 풍스』는 발자크가 평생 동안 집필한 200편이 넘는 소설들 중에서 거의 마지막 완성작 가운데 하나로, 국내 초역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발자크 평전』에서 이 작품을 발자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하며 “그의 눈길이 이보다 더 명확한 적은 없었으며, 인물을 형상화하는 그의 손길 이보다 더 확고하고 냉정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만년의 걸작인 이 작품은 사실주의 소설의 전형을 보여 준다. 유행에서 뒤쳐진 노총각이자 식중 취급을 받는 풍스의 비극적 일대기는 “신의 섭리를 남용하는” 풍속화가들을 비판하는 저자의 마지막 결말처럼 권선징악형 소설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현실적인 한편의 풍속화 같은 이야기를 보여 준다.

### 94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조너선 스위프트 지음  
이혜수 옮김

내게는 걸리버 여행의 결말이 인간의 영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느껴진다.  
— T.S.엘리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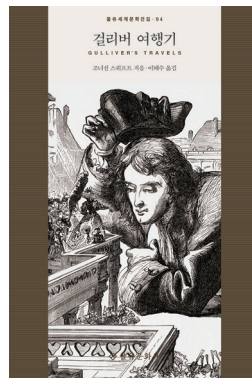
스위프트는 평범한 지혜가 아니라 숨겨진 하나의 진실을 캐내  
그것을 확고하고 비틀 수 있는,  
섬뜩하고 강렬한 비전을 지닌 작가다.  
— 조지 오웰

스위프트는 세계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재미의  
원천이다.  
— 조지 세인츠베리

걸리버의 환상적이고 광기 어린 여행기  
신랄한 인간 비판이 돋보이는 성인용 풍자소설의  
완역본

『걸리버 여행기』는 한국인 대부분이 비록 원전이나 완역본을 읽어 본 적은 없더라도 잘 아는 듯 친밀감을 느끼는 세계 명작이다. 그동안 이 책은 주로 인기 있는 소인국과 대인국 관련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아동문학’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 이 작품은 『천로역정』, 『로빈슨 크루소』 등과 더불어 구한말에 한글로 가장 먼저 번역된 서구 문학 중 하나로 한국인의 상상력에서 오랫동안 커다란 자리를 차지해 왔다. 이처럼 『걸리버 여행기』가 국내에서 일정한 대중적 인기를 누려온 데에는 환상 나라로의 모험이라는 작품의 독특한 상상력이 큰 역할을 했다.

『걸리버 여행기』는 환상 속 나라에서 펼쳐지는



476면 / 15,000원

미국대학위원회가 선정한  
고교 추천도서 101권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양 고전  
200선



Rijksmuseum

조너선 스위프트

Jonathan Swift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뛰어난 문필가인 조너선 스위프트는 1667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친척들 손에 자랐다. 스위프트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한 후 영국으로 건너가 20대 초반을 윌리엄 템플 경의 비서로 지낸다. 템플 경이 서거한 이후에는 앤 여왕 치하 보수주의 토리당의 주장인 로버트 할리의 지원으로 친정부 잡지 『이그재미너』를 편집하고 휘그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팸플릿을 활발히 쓰면서 포우프, 알버스닛, 게이, 파넬 등 당대의 주요 문필가들과 함께 ‘스크리블러스 클럽’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앤 여왕의 서거와 토리당 몰락 이후 결국 더블린으로 돌아와 영국국교회 소속 성 패트릭 성당의 주임 사제로 30년 넘게 봉직하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역자 이혜수: 연세대학교 영문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과에서 공부하고 미국 뉴욕대학에서 18세기 영소설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영문과에서 영소설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인 동시에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확립되어 가던 근대의 초입에 첨예하게 대두되던 신구(新舊) 논쟁, 과학주의, 식민주의, 자아의 문제, 여성 문제 등이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성난 분노로 표출되는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풍자문학’이다. 특히 소인국(릴리퍼트)과 대인국(브롭딩낙), 날아다니는 섬(라퓨타)을 거쳐 이르게 되는 말의 나라(후이눔국)는 완벽한 이성과 언어 능력을 갖춘 말 ‘후이눔’과 짐승보다 못한 흉측한 인간 ‘야후’의 묘한 관계가 펼쳐지는 환상의 공간으로, 인간이란 종(種)에 대한 근원적인 풍자가 전복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으로 뿔어져 나오는 풍자문학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조너선 스위프트는 한마디로 잘 정리되지 않는 호랑이 같은 문인의 느낌을 준다. 그의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에 신이 나고, 사회 부정의에 대한 신랄한 풍자에 속이 시원하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걸리버 여행기』를 읽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이 호랑이 등을 타고 신나게 달려 보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

95

프랑스어의 실종

## LA DISPARITION DE LA LANGUE FRANÇA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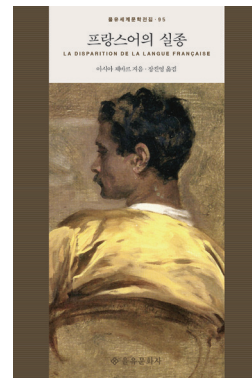
아시아 제바르 지음

장진영 옮김

매년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며  
고전 반열에 오른 아랍 작가의 대표작

이 작품은 일생 동안 두 개의 국가와 언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세계적 작가 아시아 제바르가 즐겨 다루는 주제들, 즉 언어, 역사, 여성의 문제가 대립해 전개된다. 프랑스어/아랍어, 문어/구어, 지배자의 언어/피지배자의 언어, 정복자/피정복자, 식민주의/피식민자, 남성/여성, 가부장제/여성 복종 등등 대립을 넘어 분열로 치달을 수 있는 이들 쌍은 과연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통합에 이를 수 없는 관계일까에 대한 아시아 제바르의 고민과 해답이 담겨 있다.

이처럼 작가가 다루는 주제는 묵직하지만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어둡다거나 딱딱하게 전개되지는 않는다. 수려한 문장과 독특한 구성,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사건들, 인물과 상황에 대한 섬세한 묘사 등으로 소설을 읽는 재미만도 아주 쏠쏠하다. 특히 주인공 베르칸과 나지아의 사랑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큼 매혹적이고, 알제리의 근현대사와 맞물려 벌어지는 사건들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308면 / 13,000원

국내 초역

아시아 제바르  
**Assia Djébar**  
 1936년 알제리에서  
 태어났다. 1953년 바칼로레아  
 시험에 합격하고, 알제리  
 여성으로는 최초로 세브르  
 여자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해  
 역사를 공부하였다. 하지만  
 알제리 이슬람 학생 총연합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시험을 보지  
 않아 퇴학당했고, 이때 첫 소설  
 『갈증』을 내며 ‘아시아 제바르’라는  
 필명을 처음 사용한다. 이 소설이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과 비교되면서 “이슬람의  
 프랑수아즈 사강”으로 불렸다.  
 1980년에 단편집 『그들 거처 안의  
 알제 여인들』을 발표했으며, 이후  
 『사랑, 판타지아, 『그림자 왕비』,  
 『메디나에서 멀리 떨어져서』,  
 『감옥은 넓다』, 『무덤 없는 여인』,  
 『프랑스어의 실종』 등을 발표한다.  
 2007년에 소설 『아버지의 집 그  
 어디에도 없는』을 마지막으로  
 내놓고 2015년 파리에서 눈을  
 감는다.

역자 장진영: 서울대에서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同)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설  
 불어문화권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며,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저 아래』, 『파리의 풍경』(전6권,  
 공역), 『세계창조』, 『돌의 후계자』,  
 『앙드레 말로, 소설로 쓴 평전』,  
 『눈뜬 무렵』, 『세비네』, 『문화적인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등이 있다.

Assia Djébar

“아시아 제바르에게 프랑스어는 ‘무궁무진한  
 보물을 선사해 준’ 언어이고, ‘세상의 다채로운  
 광경을 보는 틈새’로 작용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언어이며 근본적으로 ‘외부의 언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사랑과 관련하여 내밀한 속내를 표현하는  
 데는 프랑스어가 아랍어를 대체하기 힘들다.  
 저자는 프랑스어가 일종의 ‘가면’ 같은 언어인  
 반면 모국어인 아랍어가 ‘동질감’을 확인시켜 주는  
 언어임을 겪은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주인공  
 베르칸에게 투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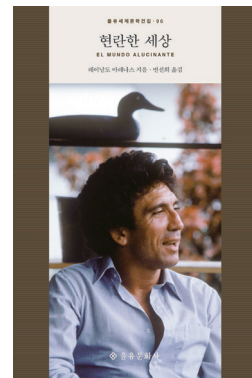
## 96 현란한 세상 EL MUNDO ALUCINANTE

레이날도 아레나스 지음  
 변선희 옮김

몽롱함과 이성 사이를 오가며  
 현실 세계와 환영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소설

『현란한 세상』은 주인공 세르반도 수사의 『회고록』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현실 재현을 거부하고 여러  
 측면에서 현실을 파헤치면서 언어적 충위보다는 과장,  
 풍자, 그로테스크, 아이러니, 알레고리 등의 바로크  
 미학을 통해 영원한 인간 비극을 동정적인 역설로  
 완화시킨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자서전을 넘어 쿠바  
 바로크 전통을 잇는 최고의 문학적 도약으로 작품에  
 우화적이고 신비로운 면을 부여한다. 이 작품은 검열  
 때문에 쿠바에서는 출간이 불가능하여 프랑스에서  
 출간되었으며 1969년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 년  
 동안의 고독』과 함께 최고의 외국어 작품상을 받았다.

소설은 형식면에서도 여느 소설과 달리  
 시작하는데, 하나의 사건을 놓고 장(章)을 중복  
 사용하면서 여러 개의 시점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서  
 인생을 하나의 교리와 하나의 규정 또는 하나의 역사가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신비로 생각하는  
 작가의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현란한 세상』은  
 문학과 재미를 겸비한 작품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올랜드』와 유사한 플롯을 보여 준다. 작가는 세르반도  
 신부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모험 소설을  
 쓰면서, 실질적인 삶의 에피소드들을 환상으로 바꾸고  
 그것들을 새로운 현실의 묘사에서 다른 사건으로  
 바꾸고 있다.



396면 / 16,000원



“아레나스는 현실 세계를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더 나아가 감추어진 무수한 다른 면들을 파헤치려고 한다. 현실은 다양한 양상을 띠 수 있으며, 고정된 한 각도에서가 아닌 여러 다른 각도와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 인생이란 하나의 도그마나 코드 또는 역사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공격해야 할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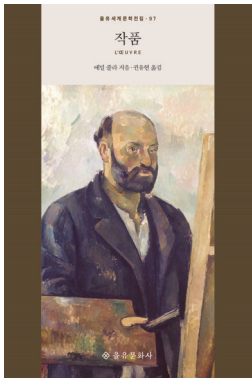
— 오, 위대한 수사여, 너는 어둠 속에서 눈을 반짝이며 굶주려 있는 이 쥐들과 라스 칼다스에 4년 동안 갇혀 있어야 할 것이다. 네가 이제껏 해 본 적도 없고 무엇을 할지 상상도 못해 보았기에 너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너는 이미 감방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들판도 보이지 않고 바다는 더 그렇다. 슬픔을 위해 만들어진 이곳에선 사람조차 찌소리도 못하고 죽어 간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생각할지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이곳에 너를 홀로 놔두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수많은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다. 별로 크지 않은 한 발짝으로 온 감방을 돌고 다시 돌 수 있다. 네 가르마에 손을 대 본다. 네가 외침과 공포의 파열음으로 분해되어 버릴까 봐 나는 때로 겁이 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는 이미 네 계획을 세워 놓았고 그것만을 생각한다. 어느 곳에도 이르지 못할 수백 통의 편지를 쓴다. 그러나 새의 깃털과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쥐들을 쫓기 위해 몽둥이를 옆에 둔 채 글을 쓰고 있다. (95~96쪽)

레이날도 아레나스

**Reinaldo Arenas**

1943년 쿠바의 바티스타 독재 정권 당시 올긴주(州) 아구아스 클라스에서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스토리텔링 콘테스트에서 재능을 인정받아 국립 도서관에서 근무했으며, 1965년 『동트기 전 셀레스티노』를 ‘쿠바 작가와 예술가 연맹’이 후원하는 콩쿠르에 출품해 제1선의 가작상을 받았다. 카스트로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이를 비판하는 소설을 쓰다가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반체제적 글쓰기’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정부에 쫓기는 삶을 살았다. 1980년 극적으로 쿠바를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그곳에서도 편하게 지내지 못했고 1990년 뉴욕에서 에이즈 말기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요 작품으로 『현란한 세상』과 『수위』, ‘5부작’이라 불리는 『동트기 전 셀레스티노』, 『새하얀 스핑크스의 궁전』, 『바다여 안녕』, 『여름 색조』, 『습격』 그리고 시집 『농장』, 『의사를 표시하며 살아갈 의지』 등이 있다.

역자 변선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와 같은 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스페인어과 강사로 재직하며 전문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돈키호테』, 『시간의 지도』, 『카스트로와 마르케스』, 『해가 지기 전에』, 『4월의 음모』, 『동근 돌의 도시』,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이야기』, 『사랑이었던 모든 것』, 『청춘의 지도를 그리다』 등이 있다.



676면 / 18,000원

에밀 졸라

**Emile Zola**

1840년 파리에서 태어난 에밀 졸라는 19세기 후반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현실의 충실한 서기(書記)'로 불렸다. 대표작으로 『테레즈 라캥』을 비롯해 『목로주점』, 『제르미날』, 『작품』, 『나나』 등을 포함한 『루공-마카르가』 시리즈, 그리고 세기말 종교적·철학적·사회적 결산을 담은 『세 도시』 시리즈와 새로운 사회 구축의 뜻을 담은 『네 복음서』 시리즈 등이 있다.

역자 권유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 이화여대, 가천대, 아주대, 세종대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마담 드 스탈 연구 — 마담 드 스탈과 독일체험』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독일론』 및 『코린나』 외 다수가 있다.

## 97 작품 L'ŒUVRE

에밀 졸라 지음  
권유현 옮김

작가가 몸담았던 파리 예술계를 무대로 실제와 허구를 넘나들며 인상과 화가의 삶을 조명한 걸작

『작품』은 에밀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 중 유일하게 실제로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과 예술 작품을 소재로 한 보기 드문 소설이다. 작가 자신과 폴 세잔이라는, 후대의 최고 작가와 화가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소설은 많은 사람의 흥미를 자아낸다. 이 소설이 발간된 것을 계기로 어릴 적부터 이어 오던 우정이 깨져 버린 졸라와 세잔은 엑상프로방스에서의 학창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였고, 그 영향으로 졸라는 화가들의 아틀리에를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회화에 관심을 가졌다. 무엇보다 인상파 화가들에게 관심이 컸던 그는 예술가들을 위한 논설을 신문에 기고했는데, 특히 『작품』 속 대작과 유사하게 묘사되는 '폴발 위의 점심 식사'를 그린 마네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를 펼쳤다. 이러한 사실들만 보아도 『작품』은 그 어떤 소설보다 작가 자신의 체험이 담긴 자전적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 98·99·100 전쟁과 평화 VOINA I MIR

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종소 · 최종술 옮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다.  
— 토마스 만

우리 시대 가장 방대한 서사시이자 현대판 『일리아스』라 할 만하다.  
— 로맹 롤랑

서사시이자 역사소설, 모든 국민의 삶을 그린 광대한 그림.  
— 이반 투르게네프

러시아판 『일리아드』이자 『오디세이』  
대하소설과 심리소설의 본보기를 제시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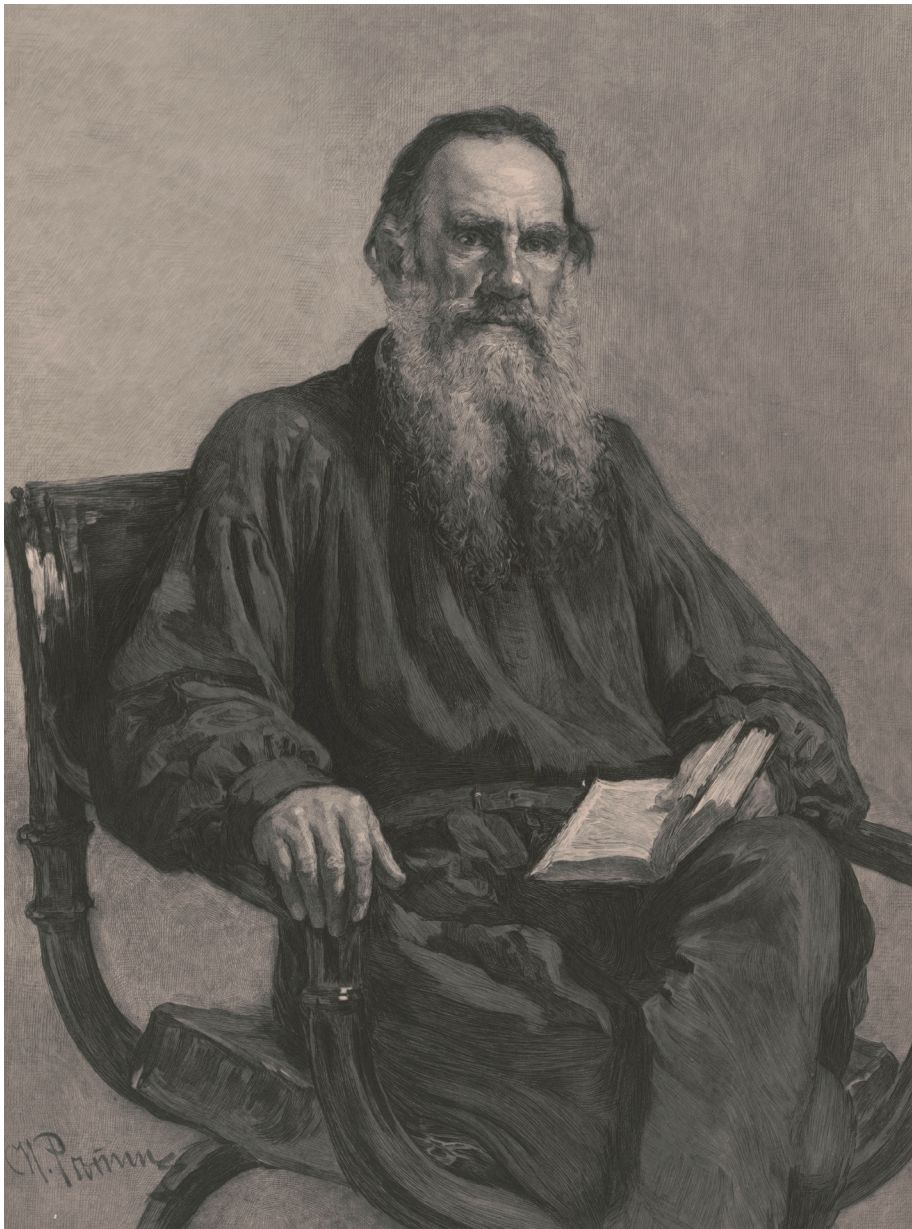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실존했던 인물과 허구적 인물까지 5백여 명이 등장하는 대하소설이다. 『전쟁과 평화』는 소설적 장들과 철학적 장들로 구분할 수 있는 작품으로, 그중 하나를 제거하면 소설 자체가 해체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 작품이 이론 주요 혁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소설적 서사와 철학적 논설의 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전쟁과 평화』가 보이는 철학적 논설은 학술적인 동시에 예술적인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대하소설과 심리소설의 본보기를 제시한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회 세태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삶의 윤리적 문제를 제시한 윤리소설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어느 하나의 장르에 귀속되지 않고 여러 장르가 복합된 『전쟁과 평화』의



각 권 860면, 864면, 852면 /  
각 권 20,000원

『뉴스위크』, 『가디언』, 노벨연구소  
선정 세계 100대 도서



저자를 가리켜 러시아의 비평가 빅토르 시클롭스키는 톨스토이가 “위대한 창조자일 뿐 아니라 낡은 구성을 파괴한 위대한 작가”라고 칭송한 바 있다. 이 작품이 지닌 거대한 서사성을 칭송한 동시대인들은 『전쟁과 평화』를 “러시아의 『일리아드』이자 『오디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톨스토이의 윤리적 입장을 대변하는 작품인 『전쟁과 평화』는 왜 지금까지 이 작가가 대문호이자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세기를 넘어 사랑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최고의 소설 가운데 하나다.

“톨스토이가 ‘나는 민족의 역사를 쓰려고 애썼다’라고 작품에 대해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보면 ‘전쟁’과 ‘평화’, 나란히 놓인 이 단순하고 익숙한 두 낱말에 그가 인간 생존, 삶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담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전쟁’과 ‘평화’는 삶에 대한 두 대척적인 시각이다. 만약 삶이 이기적인 요구, 자신만의 염려, 분열, 적의, 질시, 탐욕이라면 그것은 전쟁이다. 만약 삶이 자신과의 조화, 사회적 평등을 통한 사람들 사이의 조화, 형제애와 가족애를 통한 결집에 대한 지향이라면 그것은 평화다. 소설 전체에 걸쳐 톨스토이는 인간 존재의 이 근원적인 모순을 탐구한다.”

본문 중에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은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은 금이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무엇도 다스릴 수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 만약 고난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것(피에르는 꿈속에서

레프 톨스토이

**Lev Tolstoi**

남러시아 톨라 근처의 야스나야 폴랴나에서 출생했다. 명문 백작가의 4남으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랐으며, 1847년 대학 교육에 실패해 카잔대학을 중퇴하고 향리로 돌아가 지주로서 영지 내의 농민 생활을 개선하려 하였으나, 그의 이상주의는 실패로 끝나고 잠시 방탕한 생활에 빠졌다. 1851년 형의 권유로 군대에 들어가 캅카스에서 사관후보생으로 복무하기도 했다. 1962년 소피아와 결혼한 후, 문학에 전념하여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입을 배경으로 러시아 사회를 그린 불후의 명작 『전쟁과 평화』를 발표했다. 그 밖의 대표작으로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이 있다.

역자 박종소: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어문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한 단계 높은 러시아어1, 2』, 번역서로는 『고독』, 『아저씨의 꿈』, 『악에 관한 세편의 대화』,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 『우리 짜리의 사람들』 등이 있다.

역자 최종술: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문학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상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는 알렉산드르 블로크의 『블로크 시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절망』, 공역으로 리디야 긴즈부르크의 『서정시에 관하여』 등이 있다.

계속 생각하거나 또는 듣고 있었다)은 자기 마음속에서 모든 것의 의미를 결합할 줄 아는 것에 있었다. ‘모든 것을 결합한다고?’ 피에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결합하는 게 아니야. 생각을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해. 단지 이 모든 생각들을 연결시키는 거야. 바로 그것이 필요해! 그래, 연결시켜야 해. 연결시켜야 해!’  
(하권, 48쪽)



www.loc.gov

101  
망자들  
DIE TO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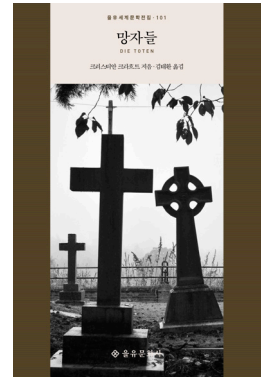
크리스티안 크라흐트 지음  
김태환 옮김

위대한 파우스트적 우화  
—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소설가)

현재 세계 문학이 낳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소설을 상상한다면,  
크라흐트가 그 이상을 구현하는 데 거의 성공한 것 같다.  
— 펠릭스 슈테판(비평가)

헤르만 헤세 문학상, 스위스 도서상 수상작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 크리스티안 크라흐트의 최신작

『망자들』은 크리스티안 크라흐트의 예술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여러 의미에서 이미 죽은 적이 있는 자, 즉 ‘망자들’의 여정을 기묘하고 환상적으로 그려 낸 소설이다. 크라흐트는 1930년대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 독일과 일본을 오가는 주인공들의 삶을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무대 위에 신선하게 펼쳐 보이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특별한 세계 속으로 독자들을 끌고 들어간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허구와 실재의 간극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끌어냄으로써 우리 뇌리에 인상 깊은 몽타주를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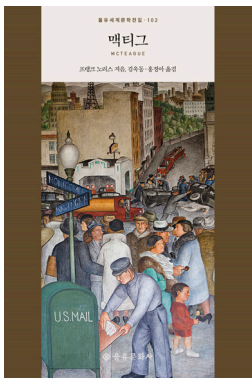
272면 / 13,000원

크리스티안 크라흐트

**Christian Kracht**

1966년 스위스 자넨에서 태어나 스위스,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성장했다. 1995년 첫 소설 『파저란트』를 출간했으며 이후 『1979』, 『메탄』, 『나 여기 있으리 햇빛 속에 그리고 그들 속에』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2016년에 출간한 소설 『망자들』은 여러 평론가의 호평을 받으며 스위스 도서상, 헤르만 헤세 문학상을 수상했다.

역자 김태환: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다. 지은 책으로 『푸른 장미를 찾아서—혼돈의 미학』, 『문학의 질서—현대 문학이론의 문제들』, 『미로의 구조—카프카 소설에서의 자아와 타자』, 옮긴 책으로 『모던/포스트모던』, 『피로사회』, 『변신·선고 외』 등이 있다.



552면 / 16,000원

프랭크 노리스  
Frank Norris  
1870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1893년 청소년이던 새러 폴린스가  
만취한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접하고 영감을 얻어  
『맥티그』를 집필했으며 이후  
‘극물의 서사시’라 불리는 3부작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해 『문어』,  
『자옥』, 『늑대』 등을 선보였다.

역자 김옥동: 서강대학교 인문학부  
명예교수다. 역서로 『위대한  
개츠비』, 『노인과 바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앵무새 죽이기』,  
『이선 프롬』, 『아메리카의 비극』  
등이 있다.

역자 홍정아: 숙명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 102 맥티그 MCTEAGUE

프랭크 노리스 지음  
김옥동·홍정아 옮김

프랭크 노리스는 미국의 에밀 졸라다.  
— 윌리엄 딘 하우얼스(소설가)

미국의 상상력이 빚어낸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  
— 앨프리드 케이진(문학비평가)

헤밍웨이와 피츠제럴드로 이어지는  
작가들의 계보를 이끈 선구적 작품

『맥티그』는 ‘미국의 에밀 졸라’라 불리는 프랭크  
노리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미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설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F. 스콧 피츠제럴드로  
이어지는 계보의 출발점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  
프랭크 노리스는 미국 문학에 자연주의를 도입한  
선구자다. 특히 이 소설은 자연주의를 사실주의의  
극단이 아닌, 낭만주의의 연장선상으로 본 그의 작품  
세계를 뚜렷이 보여 준다. 극적인 요소와 사회 풍자,  
힘 있는 이야기는 비평가와 여러 독자의 주목을  
받았으며, 에리히 폰 슈트로하임 감독에 의해 영화  
<탐욕(Greed)>으로 재탄생하기도 했다.

## 103 천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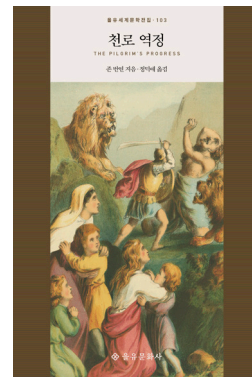
존 번연 지음  
정덕애 옮김

번연은 가장 수수한 흙으로 빚어졌지만  
천상의 불로 만든 본능을 지닌 사람이다.  
— 너새니얼 호손

기적을 통해 직접 영감을 받지 않은 작가가 쓴 최고의 복음 신학서  
— 사무엘 테일러 컬리지(낭만파 시인)

기사도 형식의 재미난 모험담과  
환상적인 꿈으로 풀어낸 구원에 관한 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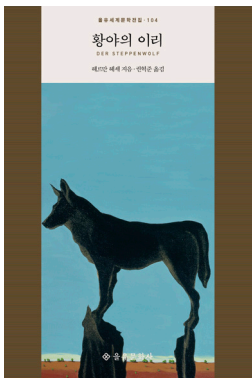
1678년에 초판이 출간된 『천로 역정』은 존 번연이  
1688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11판을 찍은 베스트셀러로  
기사도 이야기와 꿈 이야기가 합쳐진 알레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풍자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도 유명한데, 소설에  
등장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경(卿), 귀부인, 신사 같은 칭호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번 번역서는 종교적 의미를 강조한  
기존 책과 달리, 작품이 지닌 문학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번역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아울러 의인화된  
수백 개의 추상 명사가 지닌 의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했다.



472면 / 15,000원

존 번연  
John Bunyan  
1628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1653년  
존 기퍼드의 독립 교회에 합류한  
번연은 몇 년 후 공개적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며 불법적으로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3개월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의  
대표작인 『천로 역정』은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로 그의 종교심을  
구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자 정덕애: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다. 역서로  
제시 웨스턴의 『제식으로부터  
로망스로』, 버지니아 울프의  
『꿈쩍하게 민감한 마음』, 도리스  
레스의 『다섯째 아이』 등이 있다.



372면 / 12,000원

104  
황야의 이리  
DER STEPPEN WOLF

헤르만 헤세 지음  
권혁준 옮김

한 인간의 영혼에 내재한 질병을 다룬 흥미롭고도  
매혹적인 소설로,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가차 없는 고발이다.  
— 「뉴욕 타임스」

이 작품은 모든 고백서 중에서 가장 무자비한 고백서이자,  
가장 영혼을 뒤흔드는 고백서다.  
— 쿠르트 핀투스

『황야의 이리』는 나에게 오랜만에  
독서가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준 작품이다.  
— 토마스 만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인 고백 소설이자  
‘헤세 열풍’을 선도한 히피들의 바이블

1927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자기 내면의 전기인 동시에  
시대의 기록이라 할 만큼 당시 헤세가 처했던 개인적인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작가는 우스꽝스럽고  
역겨운 세상에서 자신이 철저히 배제된 존재라고  
여겼는데, 그런 시민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내면의  
자살 충동이 작품 속 주인공 하리 할러가 경험하는  
삶의 위기로 표출된다. 『황야의 이리』는 헤세 생전에도  
전쟁을 경험한 후 삶의 의미와 방향에 목말라 있던  
젊은 세대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미국에서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말 탈권위주의, 반전,  
반핵, 환경 운동을 내세우며 미국 및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던 ‘68 학생운동’ 세대와 문명을 등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히피’들이 바이블처럼  
여기고 열독하면서 ‘헤세 열풍’을 선도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와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황야의 이리. 이 문제의 인물이 겪는  
영혼의 병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시대 자체의  
병이라 할 수 있다. 헤세는 1941년에 쓴 후기에서  
“나로서는 『황야의 이리』가 병과 위기를 묘사하는  
소설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과 위기 또는 몰락이  
아니라 그 반대, 즉 치유를 그려 낸 소설임을 독자들이  
알아차린다면 기쁠 것이다”라며 이 작품이 치유까지  
나아가는 소설임을 내비쳤다. 헤세가 의도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주인공의 열린 결말’은 똑같은 잣대로  
평가되는 삶과 자본주의 사회 경쟁에 지친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한다.

“이 소설을 공감하는 독자 역시 흔히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 이 책이 고통과 곤경을  
서술하지만, 절망한 한 인간의 이야기라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인간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내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미리  
처방을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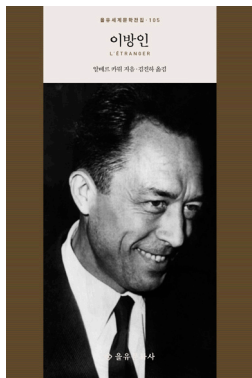
Hermann Hesse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1877년 독일의 칼프에서 태어났다.  
1899년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들』과 산문집 『자정이 지난  
뒤의 한 시간』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1904년 소설 『페터  
카멘친트』로 일약 인기 작가가  
되었다. 『수레바퀴 아래서』 등  
작품을 꾸준히 출간했으며,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자원입대했으나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1919년까지 스위스 베른의  
독일포로후원센터에서 근무하며  
전쟁 포로들을 위해 전쟁과  
국수주의를 반대하는 정치 논문,  
호소문, 공개서한 등을 국내외  
신문과 잡지들에 계속 발표했다.  
이후 『데미안』, 『요양객』, 『황야의  
이리』, 『유리알 유희』 등을 계속  
발표했으며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역자 권혁준: 인천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옮긴 책으로 『다섯 번째 여자』,  
『모래 사나이』, 『카프카 단편집』,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성』,  
『소송』, 『식타르타』 등이 있다.



248면 / 12,000원

105  
이방인  
L'ÉTRANGER

알베르 카뮈 지음  
김진하 옮김

카뮈는 위대한 순수성, 그리고 강한 집중력과  
합리성을 갖춘 스타일리스트다.  
— 노벨상 위원회

나는 카뮈의 어둡고 순수한 작품에서  
미래 프랑스 문학의 중요한 특징들을 확인한다.  
— 사르트르

카뮈의 관심사는 광범위했고, 그의 생각들은  
극작가부터 인디 로커에 이르는 모두에게 스며들었다.  
— 「텔레그래프」

죽음의 파도 속에서 한 개인을 고뇌하게 만든 삶의  
부조리  
알베르 카뮈의 예리한 통찰이 돋보이는 걸작

카뮈가 1942년에 발표한 이 소설은 작가 특유의  
부조리 철학, 개성 있는 등장인물, 대담한 구성과  
하드보일드한 문체 등 여러 특징을 통해 당대의  
문제작이자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했다. 자신의 살인을  
두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  
뫼르소는 합리성을 가장한 억압적인 문명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힘겹게 대응하는 현대인을 그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저자가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이방인』을 간행한  
것은 그의 나이 스물아홉 살 때의 일이다. 젊은 카뮈는  
『이방인』에서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탐구했다. 그리고 주인공 뫼르소를 통해 “인생은 애써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뫼르소는



알베르 카뮈

Albert Camus

1913년 프랑스 식민 치하의 알제리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42년에 자신의 첫 소설이자 대표작이 되는 『이방인』을 출간했으며 이후 철학 에세이 『시시포스 신화』, 희곡 작품 『오해』 등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1947년에는 자신의 또 다른 대표 소설이 되는 『페스트』를 발표했다. 1951년 전체주의를 비판한 『반항하는 인간』을 발표하여 지성계에 큰 논쟁을 촉발한 후에도 『여름』, 『타락』, 『유배지와 왕국』 등 다수의 저서를 발표하며 왕성한 창작욕을 과시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행보를 통해, 실존주의 문학을 주도한 장 폴 사르트르와 더불어 부조리의 철학을 제시한 작가이자 지식인으로 인정받은 카뮈는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대문호의 반열에 올랐다.

역자 김진하: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소르본뉴벨(파리3대학)에 박사 후 과정으로 유학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교수로 있다. 옮긴 책으로는 『말라르메를 만나다』, 『과수원/장미』 등이 있다.

지적인 태도로 인생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인물은 아니다. 일상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가끔씩 내뱉는 투박한 말과 자신의 독백을 통해 생각의 일말을 드러낼 뿐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범죄가 아닌, 필멸의 존재로서 인간이 영위하는 삶은 애써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관심을 보인다.

“카뮈는 삶의 결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작을 말한다. 모든 삶의 결말은 죽음이다. 그것은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삶의 문제는 그 최초의 질문,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카뮈는 특히 부조리 개념으로 삶의 다양한 양상을 조명한다. 그런데 부조리는 철학의 어떤 결말이 아니라 전제다.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이 부조리다. 결국 부조리한 삶을 어떻게 살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이 반항이다.”

본문 중에서:

내가 이끌어 온 이 부조리한 인생 동안 내내, 나의 미래 깊은 곳에서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월을 가로지르며 나를 향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그 바람은 내가 살고 있는 더 없이 현실적인 세월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걸 평등하게 만들고 있어요. 타인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이 나한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의 하느님이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생, 그들이 고르는 운명이 나한테 뭐가 중요해요? 단 하나의 운명만이 나 자신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또 나와 더불어 당신처럼 내 형제라고 자칭하는 수천만의 특권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나요요? (143쪽)

106·107

아메리카의 비극

AN AMERICAN TRAGEDY

시어도어 드라이저 지음

김옥동 옮김

미국 소설의 에베레스트산이요, 세계 소설의 높은 언덕 중 하나다.

— 헤이우드 브라운

시적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 에드먼드 윌슨

시어도어 드라이저는 우리 시대 작가들 가운데 최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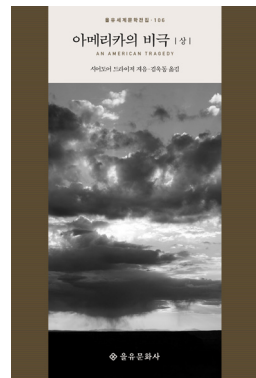
— 스콧 피츠제럴드

미국 자연주의 문학의 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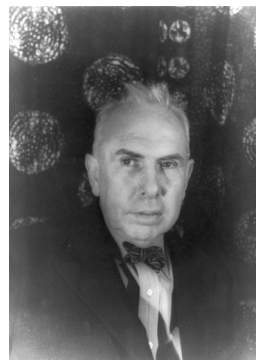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대표작

시어도어 드라이저는 미국 자연주의 문학의 정점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작가로 『아메리카의 비극』은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이 작품에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 상승기에 있던 미국의 적나라한 모습이 담겨 있다. 『아메리카의 비극』에서 드라이저는 19세기 말엽 프랭크 노리스가 미국 문학에 처음 도입한 자연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문학 세계를 선보인다. 특히 그의 첫 작품인 『시스터 캐리』를 발굴하고 출판하도록 노력한 사람이 다름 아닌 프랭크 노리스라는 점이 흥미롭다.

일찍이 저널리스트로 출발한 드라이저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직접 지켜보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다년간 현장 곳곳을 누비며 형성된 저자의 날카로운 문제적 시각이 돋보이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현대 사회가 부를 향유하는 소수와 힘겹게



각 권 804면, 808면  
각권 18,000원



시어도어 드라이저  
Theodore Dreiser

1871년 인디애나주 테레호트에서 출생했다. 시카고에서 신문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발자크, 에밀 졸라 등의 작품을 가까이하며 문학적 소양을 키웠으며 1894년 뉴욕으로 이주하여 점차 창작에 전념하면서 첫 작품인 『시스터 캐리』를 1900년에 선보였으나 내용이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출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한때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잡지 편집자로 성공한 시어도어 드라이저는 소설 『제니 게르하르트』를 비롯해 미국의 전형적인 성공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거인』을 발표한 후 필생의 대작인 『아메리카의 비극』을 1925년에 출판했다. 이 작품은 조지 스티븐스 감독에 의해 <젊은이의 양지>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사술』, 『새벽』 등을 출간하며 꾸준한 활동을 보이던 드라이저는 1945년 심장 마비로 타개했다.

역자 김옥동: 현재 서강대학교 인문학부 명예교수로 있다. 번역서로 『위대한 개츠비』, 『노인과 바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앵무새 죽이기』, 『동물 농장』, 『호밀밭의 파수꾼』, 『그리스인 조르바』, 『맥티그』(공역) 등 30여 권이 있다.

살아가는 다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 준다. 이를 토대로 작품 속에 당대의 현실을 냉철하게 그려 내 미국판 『죄와 벌』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세기 초엽의 미국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길거리 전도사부터 시골 농부, 사업가, 법조인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물의 스펙트럼이 무척 넓다. 지리적 배경도 애디론댁산맥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을 포함하다시피 한다. 시어도어 드라이저는 이 작품을 당시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거울이라 생각했다. 『아메리카의 비극』은 그러한 그의 의도에 부합하는 대작이다.

“주인공 클라이드 그리피스는 여러모로 스코트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비슷하다. 흥미롭게도 이 두 소설은 1925년 같은 해에 출간됐다. (...)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꿈’은 한낱 환상이거나 아예 ‘미국의 악몽’으로 변질됐다. 오죽하면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 칼린이 ‘미국인의 꿈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농담을 하겠는가?”

## 108 갈라테아 2.2 GALATEA 2.2

리처드 파워스 지음  
이동신 옮김

나보코프가 컴퓨터에 능숙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  
그야말로 매혹적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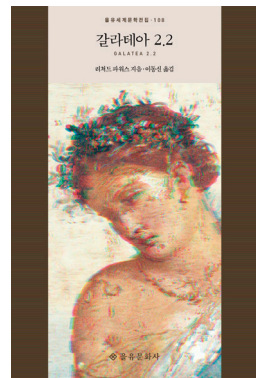
훌륭한 지적 모험,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  
인지 과학에 관한 간략한 안내 그리고 젊은 세대 중 가장 재능 있는  
작가의 자전적 요소를 결합시킨 작품.  
—「워싱턴 포스트」

눈부신 작품이다. 매혹적인 지성과 강렬한 감성을 겸비한 지적 스릴러.  
—「뉴욕 타임스」

인공 지능이 가져다줄 새로운 시대,  
포스트휴먼 시대를 ‘휴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문학적 탐구

한때 물리학을 전공했던 소설가와 컴퓨터 기반의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의 뇌를 모델링하려는 인지과학자가 인공 지능을 교육시켜 인간과 같은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풍부한 문학적 인용과 실제로 물리학을 전공했던 작가의 엄밀한 과학적 고증을 조화시키고 있다. 출간된 해에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뽑혔으며,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미국 장편 문학과 SF의 특성을 가장 잘 조합한 작품으로 회자되고 있다.

소설의 인공 지능 ‘헬렌’은 SF에 등장하는 작위적인 인공 지능 캐릭터에 비해서는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하는 신경망 형태로 구성된 헬렌은 처음부터 엄청난 지능을 타고난 현실 속의



576면 / 16,000원



리처드 파워스

**Richard Powers**

1957년 미국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서 태어났다. 1985년 첫 소설 『춤추러 가는 세 명의 농부』를 출간한 이후 『죄수의 딜레마』를 발표했으며, 1991년에는 『골드 버그 변주』를 발표해 과학과 음악과 문학의 접목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을 들었다. 1995년에 발표한 『갈라테아 2.2』는 컴퓨터에 말을 가르쳐 인간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과정을 성장기처럼 그려 내 인간과 인공 지능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 밖에 『우리 노래의 시간』, 전미 문학상을 받은 『एको 메이커』, 『오르페오』 등을 출간했다. 2019년에는 인간과 숲에 관해서 쓴 『오버스토리』로 풀리처상을 받기도 했다. 2010년 미국문예원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재 그레이트스모키산맥 기슭에 살며 일리노이대학교와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역자 이동신: 한국의국어대학교 영어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포스트휴머니즘과 20세기 미국 소설, SF 소설, 고딕 소설 등을 전공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공 지능과는 달리 인간처럼 성장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성장하는 존재는 인공 지능만이 아니다. 인공 지능을 가르치는 P도 같이 성장한다. 기계에게 문학을 가르치겠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던 그는 헬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능이 무엇인지,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다. 이 질문에 전혀 없이 열렬한 탐구를 시도하는 『갈라테아 2.2』는 인공 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깊이까지 탐구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공 지능인 할에서 시작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스카이넷, 사이버 펑크 소설의 시초인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에 등장하는 윈터뮤트, 워쇼스키 자매가 감독한 <매트릭스> 시리즈의 아키텍트까지 SF 장르가 제공하는 인공 지능은 인간과 공존하기보다는 인간을 지배하려는 공포의 존재인 적이 많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 지능은 자연스럽게 규제와 경계의 대상으로 논의되지만, 그 근처에 특정한 방식의 상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가능성은 그러한 논의가 정말로 현실적인지 묻게 만든다.”

새로운 100권을 준비하며

드디어 을유세계문학전집이 대망의 100권을 발간했습니다. 1959년 국내 최초로 세계문학전집을 출간한 을유문화사는 2008년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전집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편집위원단은 정통 세계 문학의 부활이라는 기치 아래 현대적인 번역과 해설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고전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낯선 문학권인 아프리카, 아랍,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명실상부한 세계문학전집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학적 오브제로서 책의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독자가 책을 보고 만지면서도 작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표지와 글자체를 디자인하고, 하드커버와 사철 제본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편집위원단은 지금까지 출간된 100권과 더불어 새로운 100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번역과 깊이 있는 해설, 고전의 재해석과 새로운 작품의 발굴은 저희 전집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앞으로는 문학의 영역을 보다 확장해서 시와 산문, 희곡, 기행문, 장르소설 등 다양한 문학 분야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형식 속에서 독자 여러분은 문학적 사유와 표현의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시대 작가를 찾아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문학적 성찰을 선보이겠습니다. 10년 전 전집을 발간하며 세계문학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적 갈등과 국가적 패권주의가 심화되어 가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세계문학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을유세계문학전집이 인류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김월희 /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20세기 전환기 중국의 문화민족주의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고대와 근대 중국의 학술 사상과 중국 문학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문적 시민 사회’ 구현을 위한 교양 교육과 인문 교육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깊음에서 비롯되는 것들 — 샹터의 인문적 재구성』, 『살아 움직이는 동양 고전들』, 『고전과 놀이』 등이 있으며, 『고전의 힘, 그 역사를 읽다』, 『문명장치로서의 이야기 — 이야기의 형성하는 힘 그리고 중국』, 『문명 안으로』 등을 공동 저술하였다. 또한 「포스트휴먼과 죽음」, 「선진시기 복수의 인문화 양상」, 「China's Route to Realizing a Universal Civilization」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현 /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에서 서양고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양 고대 그리스의 문학과 신화, 고전기 아테네의 수사학과 철학이 주요 관심 분야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생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비극, 역사,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그리스 문학의 신화적 상상력』, 『천년의 수업』 등의 저서가 있고, 역서로는 『두 정치 연설가의 생애』, 『그리스 지도자들에게 고함』, 『어떤 철학』의 변명』 등이 있다. <차이나는 클라스>,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발견의 기쁨, 동네 책방>, <지식의 기쁨>, <최강 1교시>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서양 고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박종소 /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어문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한 단계 높은 러시아어1, 2』, 번역서로는 바실리 로자노프의 『고독』,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아저씨의 꿈』,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의 『악에 관한 세 편의 대화』, 베네딕트 예로페예프의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 류드밀라 울리츠키야의 『우리 짜르의 사람들』 등이 있으며 공역으로 『말의 미학』, 『무도회가 끝난 뒤』, 『전쟁과 평화』 등 다수가 있다.

손영주 /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과 영문학을 공부하고 동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을 거쳐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영국 소설과 비평 이론을 전공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대 영국 및 영어권 소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Here and Now: The Politics of Social Space in D. H. Lawrence and Virginia Woolf』 등이 있으며 역서로 『사랑에 빠진 여인들』 등이 있다. 제9회 유영번역상을 수상했다.

신정환 / 한국외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한국외대 스페인어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페인 마드리드대학교(Complutense)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두 개의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역사 산책』,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해』, 『지중해, 문명의 바다를 가다』 등이 있고, 역서로는 『돈키호테 성찰』, 『7개의 목소리: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증인들』, 『돈키호테의 지혜』, 『히스패닉 세계』(공역) 등이 있다. 스페인·중남미 문학과 바로크 미학을 중심으로 여러 논문을 썼다.

파리 3대학에서 청년 플로베르의 글쓰기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과 프랑스어권 북아프리카 소설을 연구하고 있다. 계간 『1/n』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불어불문학회, 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에서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다. 논문으로 「플로베르와 책」, 「발자크와 플로베르: 문학적 영향에 대한 불안」, 「『소설의 준비』에 나타난 바르트의 소설론」, 「마그레브의 프랑스어 추리소설연구: 드리스 슈라이비의 알리 시리즈에 나타난 횡단과 전복의 글쓰기」 등이 있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본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독일 사실주의 소설, 현대 소설, 이민 문학과 비교 문학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 『사실주의 소설의 침묵하는 주인공들』, 『한국문화를 쓴다』, 『서양문화를 쓴다』, 『카프카 유대인 몸』,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이 있으며 역서로 『에다』(공역), 『개인의 발견』, 『목욕탕』, 『영혼 없는 작가』, 『홀볼트의 대륙』, 『이상한 물질』 등이 있다.

- 1 『마의 산(상)』 토마스 만, 홍성광 옮김
- 2 『마의 산(하)』 토마스 만, 홍성광 옮김
- 3 『리어 왕.맥베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미영 옮김
- 4 『골짜기의 백합』 오노레 드 발자크, 정예영 옮김
- 5 『로빈슨 크루소』 대니얼 디포, 윤혜준 옮김
- 6 『시인의 죽음』 다이허우잉, 임우경 옮김
- 7 『커플들, 행인들』 보토 슈트라우스, 정향균 옮김
- 8 『천사의 음부』 마누엘 푸익, 송병선 옮김
- 9 『어둠의 심연』 조지프 콘래드, 이석구 옮김
- 10 『도화선』 공상임, 이정재 옮김
- 11 『휘페리온』 프리드리히 뢰들린, 장영태 옮김
- 12 『루신 소설 전집』 루신, 김시준 옮김
- 13 『꿈』 에밀 졸라, 최애영 옮김
- 14 『라이젠』 아르투어 슈니츨러, 홍진호 옮김
- 15 『로르카 시 선집』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민용태 옮김
- 16 『소송』 프란츠 카프카, 이재황 옮김
- 17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 로베르토 볼라노, 김현균 옮김
- 18 『빌헬름 텔』 프리드리히 폰 실러, 이재영 옮김
- 19 『아우스터리츠』 W. G. 제발트, 안미현 옮김
- 20 『요양객』 헤르만 헤세, 김현진 옮김
- 21 『워싱턴 스쿼어』 헨리 제임스, 유명숙 옮김
- 22 『개인적인 체험』 오에 겐자부로, 서은혜 옮김
- 23 『사형장으로의 초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박혜경 옮김
- 24 『좁은 문 · 전원 교향곡』 앙드레 지드, 이동렬 옮김
- 25 『예브게니 오네긴』 알렉산드르 푸슈킨, 김진영 옮김
- 26 『그라알 이야기』 크레티앵 드 트루아, 최애리 옮김
- 27 『유림외사(상)』 오경재, 홍상훈 외 옮김

28 『유림외사(하)』 오경재, 홍상훈 외 옮김  
 29 『폴란드 기병(상)』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 권미선 옮김  
 30 『폴란드 기병(하)』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 권미선 옮김  
 31 『라 셀레스티나』 페르난도 데 로하스, 안영옥 옮김  
 32 『고리오 영감』 오노레 드 발자크, 이동렬 옮김  
 33 『키 재기 외』 허구치 이치요, 임경화 옮김  
 34 『돈 후안 외』 티르소 데 몰리나, 전기순 옮김  
 35 『젊은 베르터의 고통』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정현규 옮김  
 36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 베네딕트 예로페예프, 박종소 옮김  
 37 『죽은 혼』 니콜라이 고골, 이정완 옮김  
 38 『워더링 하이즈』 에밀리 브론테, 유명숙 옮김  
 39 『이즈의 무희·천 마리 학·호수』 가와바타 야스나리, 신인섭 옮김  
 40 『주홍 글자』 너새니얼 호손, 양석원 옮김  
 41 『젊은 의사의 수기·모르핀』 미하일 불가코프, 이병훈 옮김  
 42 『오이디푸스 왕 외』 소포클레스, 김기영 옮김  
 43 『야쿠비안 빌딩』 알라 알아스와니, 김능우 옮김  
 44 『식(飮) 3부작』 마오둔, 심혜영 옮김  
 45 『옛보는 자』 알랭 로브그리에, 최애영 옮김  
 46 『무사시노 외』 구니키다 돗포, 김영식 옮김  
 47 『위대한 개츠비』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김태우 옮김  
 48 『1984년』 조지 오웰, 권진아 옮김  
 49 『저주받은 안뜰 외』 이보 안드리치, 김지향 옮김  
 50 『대통령 각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송상기 옮김  
 51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 로렌스 스톤, 김정희 옮김  
 52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알프레트 되블린, 권혁준 옮김  
 53 『체호프 희곡선』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박현섭 옮김  
 54 『서푼짜리 오페라·남자는 남자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김길웅 옮김  
 55 『죄와 벌(상)』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김희숙 옮김  
 56 『죄와 벌(하)』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김희숙 옮김  
 57 『체벤구르』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윤영순 옮김  
 58 『이력서들』 알렉산더 클루게, 이호성 옮김  
 59 『플라테로와 나』 후안 라몬 히메네스, 박채연 옮김  
 60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조선정 옮김

61 『브루노 솔츠 작품집』 브루노 솔츠, 정보라 옮김  
 62 『송사삼백수』 주조모 역음, 김지현 옮김  
 63 『광세』 블레즈 파스칼, 현미애 옮김  
 64 『제인 에어』 샬럿 브론테, 조애리 옮김  
 65 『데미안』 헤르만 헤세, 이영임 옮김  
 66 『에다 이야기』 스노리 스톨루손, 이민용 옮김  
 67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한애경 옮김  
 68 『문명소사』 이보가, 백승도 옮김  
 69 『우리 짜르의 사람들』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박종소 옮김  
 70 『사랑에 빠진 여인들』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손영주 옮김  
 71 『시카고』 알라 알아스와니, 김능우 옮김  
 72 『변신·선고 외』 프란츠 카프카, 김태환 옮김  
 73 『노생거 사원』 제인 오스틴, 조선정 옮김  
 74 『파우스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장희창 옮김  
 75 『러시아의 밤』 블라지미르 오도예프스키, 김희숙 옮김  
 76 『콜리마 이야기』 바를람 살라모프, 이종진 옮김  
 77 『오레스테이아 3부작』 아이스킬로스, 김기영 옮김  
 78 『원작극선』 관한경 외, 김우석·홍영림 옮김  
 79 『안전 통행증·사람들과 상황』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임혜영 옮김  
 80 『쾌락』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이현경 옮김  
 81 『지킬 박사과 하이드 씨·존 니컬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윤혜준 옮김  
 82 『로미오와 줄리엣』 윌리엄 셰익스피어, 서경희 옮김  
 83 『마쿠나이마』 마리우 지 안드라지, 임호준 옮김  
 84 『재능』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박소연 옮김  
 85 『인형(상)』 볼레스와프 프루스, 정병권 옮김  
 86 『인형(하)』 볼레스와프 프루스, 정병권 옮김  
 87 『첫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 카렐 차페크, 김규진 옮김  
 88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 알렉산드르 라디셰프, 서광진 옮김  
 89 『노인』 유리 트리포노프, 서선정 옮김  
 90 『돈키호테 성찰』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신정환 옮김  
 91 『조플로야』 샬럿 대커, 박재영 옮김  
 92 『이상한 물질』 테레시아 모라, 최윤영 옮김  
 93 『사춘 풍스』 오노레 드 발자크, 정예영 옮김

- 94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이혜수 옮김
- 95 『프랑스어의 실종』 아시아 제바르, 장진영 옮김
- 96 『현란한 세상』 레이날도 아레나스, 변선희 옮김
- 97 『작품』 에밀 졸라, 권유현 옮김
- 98 『전쟁과 평화(상)』 레프 톨스토이, 박종소·최종술 옮김
- 99 『전쟁과 평화(중)』 레프 톨스토이, 박종소·최종술 옮김
- 100 『전쟁과 평화(하)』 레프 톨스토이, 박종소·최종술 옮김
- 101 『망자들』 크리스티안 크라흐트, 김태환 옮김
- 102 『맥티그』 프랭크 노리스, 김옥동·홍정아 옮김
- 103 『천로 역정』 존 번연, 정덕애 옮김
- 104 『황야의 이리』 헤르만 헤세, 권혁준 옮김
- 105 『이방인』 알베르 카뮈, 김진하 옮김
- 106 『아메리카의 비극(상)』 시어도어 드라이저, 김옥동 옮김
- 107 『아메리카의 비극(하)』 시어도어 드라이저, 김옥동 옮김
- 108 『갈라테아 2.2』 리처드 파월스, 이동신 옮김

을유세계문학전집은 계속 출간됩니다.

## 을유세계문학전집 세트

### A 세트

1 『마의 산(상)』 / 2 『마의 산(하)』 / 3 『리어 왕·맥베스』 / 4 『골짜기의 백합』 / 5 『로빈슨 크루소』 / 6 『시인의 죽음』 / 7 『커플들, 행인들』 / 8 『천사의 음부』 / 9 『어둠의 심연』 / 10 『도화선』 / 11 『휘페리온』 / 12 『루쉰 소설 전집』 / 13 『꿈』 / 14 『라이젠』 / 15 『로르카 시 선집』 / 16 『소송』 / 17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 / 18 『빌헬름 텔』 / 19 『아우스터리츠』 / 20 『요양객』

### B 세트

21 『워싱턴 스퀘어』 / 22 『개인적인 체험』 / 23 『사형장으로의 초대』 / 24 『좁은 문·전원 교향곡』 / 25 『예브게니 오네긴』 / 26 『그라알 이야기』 / 27 『유림외사(상)』 / 28 『유림외사(하)』 / 29 『폴란드 기병(상)』 / 30 『폴란드 기병(하)』 / 31 『라 셀레스티나』 / 32 『고리오 영감』 / 33 『키 재기 외』 / 34 『돈 후안 외』 / 35 『젊은 베르터의 고통』 / 36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 / 37 『죽은 혼』 / 38 『워더링 하이츠』 / 39 『이즈의 무희·천 마리 학·호수』 / 40 『주홍 글자』

## C 세트

41 『젊은 의사의 수기·모르핀』/ 42 『오이디푸스 왕 외』/ 43 『야쿠비안 빌딩』/  
44 『식(蝕) 3부작』/ 45 『옛보는 자』/ 46 『무사시노 외』/ 47 『위대한 개츠비』/  
48 『1984년』/ 49 『저주받은 안뜰 외』/ 50 『대통령 각하』/ 51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 52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53 『체호프 희곡선』  
/ 54 『서푼짜리 오페라·남자는 남자다』/ 55 『죄와 벌(상)』/ 56 『죄와 벌(하)』/  
57 『체벤투르』/ 58 『이력서들』/ 59 『플라테로와 나』/ 60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조선정 옮김

## D 세트

61 『브루노 슈츠 작품집』/ 62 『송사삼백수』/ 63 『광세』/ 64 『제인 에어』/ 65  
『데미안』/ 66 『에다 이야기』/ 67 『프랑켄슈타인』/ 68 『문명소사』/ 69 『우리  
짜르의 사람들』/ 70 『사랑에 빠진 여인들』/ 71 『시카고』/ 72 『변신·선고 외』/  
73 『노생거 사원』/ 74 『파우스트』/ 75 『러시아의 밤』/ 76 『콜리마 이야기』/ 77  
『오레스테이아 3부작』/ 78 『원잡극선』/ 79 『안전 통행증·사람들과 상황』/ 80  
『쾌락』

## E 세트

81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존 니컬슨』/ 82 『로미오와 줄리엣』/ 83  
『마쿠나이마』/ 84 『재능』/ 85 『인형(상)』/ 86 『인형(하)』/ 87 『첫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 88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 89 『노인』/ 90  
『돈키호테 성찰』/ 91 『조플로야』/ 92 『이상한 물질』/ 93 『사춘 풍스』/ 94  
『걸리버 여행기』/ 95 『프랑스어의 실종』/ 96 『현란한 세상』/ 97 『작품』/ 98  
『전쟁과 평화(상)』/ 99 『전쟁과 평화(중)』/ 100 『전쟁과 평화(하)』

## 을유세계문학전집 연표

BC 458	오레스테이아 3부작 아이스퀼로스, 김기영 옮김 수록 작품 :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 그리스어 원전 번역 ✎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 ✎ 시카고 대학 선정 그레이트 북스	77
BC 434	오이디푸스 왕 외 소포클레스, 김기영 옮김 수록 작품 :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그리스어 원전 번역 ✎ 「동아일보」 선정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 ✎ 서울대 권장 도서 200선 ✎ 고려대 선정 교양 명저 60선 ✎ 시카고 대학 선정 그레이트 북스	42
1191	그라알 이야기 크레티앵 드 트루아, 최애리 옮김 국내 초역	26
1225	에다 이야기 스노리 스톨루손, 이민용 옮김	66
1241	원잡극선 관한경 외, 김우석·홍영림 옮김	78

1496	라 셀레스티나 페르난도 데 로하스, 안영옥 옮김	31
1595	로미오와 줄리엣 윌리엄 셰익스피어, 서경희 옮김 ✧ 미국대학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82
1608	리어 왕.맥베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미영 옮김	3
1630	돈 후안 외 티르소 데 몰리나, 전기순 옮김 국내 초역 「불신자로 징계받은 자」 수록	34
1670	광세 블레즈 파스칼, 현미애 옮김	63
1678	천로 역정 존 번연, 정덕애 옮김	103
1699	도화선 공상임, 이정재 옮김 국내 초역	10
1719	로빈슨 크루소 대니얼 디포, 윤혜준 옮김	5
1726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이혜수 옮김 ✧ 미국대학위원회가 선정한 고교 추천 도서 101권 ✧ 서울대학교 선정 동서양 고전 200선	94

1749	유림외사 오경재, 홍상훈 외 옮김	27, 28
1759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 로렌스 스톤, 김정희 옮김 ✧ 노벨연구소 선정 100대 세계 문학	51
1774	젊은 베르터의 고통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정현규 옮김	35
1790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 A. N. 라디셰프, 서광진 옮김	88
1799	휘페리온 프리드리히 뢰들린, 장영태 옮김	11
1804	빌헬름 텔 프리드리히 폰 실러, 이재영 옮김	18
1806	조플로야 샬럿 대커, 박재영 옮김 국내 초역	91
1813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조선정 옮김	60
1817	노생거 사원 제인 오스틴, 조선정 옮김	73

1818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한애경 옮김 ✎ 뉴스위크 선정 세계 명저 10 ✎ 옵서버 선정 최고의 소설 100 ✎ 미국대학위원회 선정 SAT 추천 도서	67
1831	예브게니 오네긴 알렉산드르 푸슈킨, 김진영 옮김	25
1831	파우스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장희창 옮김 ✎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 ✎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 도서	74
1835	고리오 영감 오노레 드 발자크, 이동렬 옮김 ✎ 서머싯 몸 선정 세계 10대 소설 ✎ 연세 필독 도서 200선	32
1836	골짜기의 백합 오노레 드 발자크, 정예영 옮김	4
1844	러시아의 밤 블라지미르 오도예프스키, 김희숙 옮김	75
1847	워더링 하이즈 에밀리 브론테, 유명숙 옮김 ✎ 서머싯 몸 선정 세계 10대 소설 ✎ 서울대 선정 동서 고전 200선 ✎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 도서	38

1847	제인 에어 샬럿 브론테, 조애리 옮김 ✎ 연세 필독 도서 200선 ✎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 도서 ✎ BBC 선정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00선 ✎ 「가디언」 선정 가장 위대한 소설 100선	64
	사촌 풍스 오노레 드 발자크, 정예영 옮김 국내 초역	93
1850	주홍 글자 너새니얼 호손, 양석원 옮김	40
1855	죽은 혼 ✎ 니콜라이 고골, 이경완 옮김 ✎ 국내 최초 원전 완역	37
1866	죄와 벌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김희숙 옮김 ✎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 도서 ✎ 하버드 대학교 권장 도서	55, 56
1869	전쟁과 평화 레프 톨스토이, 박종소·최종술 옮김 ✎ 뉴스위크, 가디언, 노벨연구소 선정 ✎ 세계 100대 도서	98, 99, 100
1880	워싱턴 스쿼어 헨리 제임스, 유명숙 옮김	21

1886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 존 니컬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윤혜준 옮김	81
	작품 에밀 졸라, 권유현 옮김	97
1888	꿈 에밀 졸라, 최애영 옮김 국내 초역	13
1889	패락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이현경 옮김 국내 초역	80
1890	인형 볼레스와프 프루스, 정병권 옮김 국내 초역	85, 86
1896	키 재기 외 히구치 이치요, 임경화 옮김 수록 작품 : 설달그믐, 키 재기, 탁류, 십삼야, 갈림길, 나 때문에	33
1896	체호프 희곡선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박현섭 옮김 수록 작품 : 갈매기, 바나 삼촌, 세 자매, 벚나무 동산	53
1899	어둠의 심연 조지프 콘래드, 이석구 옮김 수록 작품 : 어둠의 심연, 진보의 전초기지, 『청춘과 다른 두 이야기』 작가 노트, 『나르시스호의 검둥이』 서문 ✧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 도서 ✧ 연세 필독 도서 200선	9

	맥티그 김옥동·홍정아 옮김	102
1900	라이젠 아르투어 슈니츨러, 홍진호 옮김 수록 작품 : 라이젠, 아나톨, 구스틀 소위	14
1903	문명소사 이보가, 백승도 옮김	68
1908	무사시노 외 구니키다 돗포, 김영식 옮김 수록 작품 : 겐 노인, 무사시노,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쇠고기와 감자, 소년의 비애, 그림의 슬픔, 가마쿠라 부인, 비범한 범인, 운명론자, 정직자, 여난, 봄 새, 궁사, 대나무 꼭문, 거짓 없는 기록 국내 초역 다수	46
1909	좁은 문 · 전원 교향곡 앙드레 지드, 이동렬 옮김 ✧ 1947년 노벨문학상 수상	24
1914	플라테로와 나 후안 라몬 히메네스, 박채연 옮김 ✧ 1956년 노벨문학상 수상	59
	돈키호테 성찰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신정환 옮김	90
1915	변신 · 선고 외 프란츠 카프카, 김태환 옮김 수록 작품 : 선고, 변신, 유형지에서, 신임 변호사, 시골 의사, 관람석에서, 낡은 책장, 법 앞에서, 자칼과 아랍인,	72

	광산의 방문, 이웃 마을, 황제의 전갈, 가장의 근심, 열한 명의 아들, 형제 살해, 어떤 꿈, 학술원 보고, 최초의 고뇌, 단식술사 ✧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 ✧ 연세 필독 도서 200선 ✧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 도서	
1919	데미안 헤르만 헤세, 이영임 옮김	65
1920	사랑에 빠진 여인들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손영주 옮김	70
1924	마의 산 토마스 만, 홍성광 옮김 ✧ 1929년 노벨문학상 수상 ✧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 ✧ 연세 필독 도서 200선 ✧ 「뉴욕타임스」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 ✧ 미국대학위원회 SAT 권장 도서	1,2
	송사삼백수 주조모 엮음, 김지현 옮김	62
1925	소송 프란츠 카프카, 이재황 옮김	16
	요양객 헤르만 헤세, 김현진 옮김 수록 작품 : 방랑, 요양객, 뉘른베르크 여행 ✧ 1946년 노벨문학상 수상 국내 초역 「뉘른베르크 여행」 수록	20

	위대한 개츠비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김태우 옮김 ✧ 「르몽드」 선정 ‘20세기의 책 100선’ ✧ 「타임」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 소설’ ✧ 미 대학생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 소설’ 1위 ✧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학’ 중 2위 ✧ 미국대학위원회 추천 ‘서양 고전 100’	47
	아메리카의 비극 시어도어 드라이저, 김육동 옮김	106,107
	서퍽리 오페라 · 남자는 남자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김길웅 옮김	54
1927	젊은 의사의 수기 · 모르핀 미하일 불가코프, 이병훈 옮김 국내 초역	41
	황야의 이리 헤르만 헤세, 권혁준 옮김	104
1928	체벤구르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윤영순 옮김 국내 초역	57
	마쿠나이마 마리우 지 안드라지, 임호준 옮김 국내 초역	83
1929	첫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 카렐 차페크, 김규진 옮김	87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알프레트 뢰블린, 권혁준 옮김	52
1930	식(蝕) 3부작 마오둔, 심혜영 옮김 국내 초역	44
	안전 통행증·사람들과 상황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임혜영 옮김 원전 국내 초역	79
1934	브루노 숄츠 작품집 브루노 숄츠, 정보라 옮김	61
1935	루쉰 소설 전집 루쉰, 김시준 옮김 ✧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 ✧ 연세 필독 도서 200선	12
1936	로르카 시 선집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민용태 옮김 국내 초역 시 다수 수록	15
1937	재능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박소연 옮김 국내 초역	84
1938	사형장으로의 초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박혜경 옮김 국내 초역	23
1942	이방인 알베르 카뮈, 김진하 옮김	105

1946	대통령 각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송상기 옮김 ✧ 1967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50
1949	1984년 조지 오웰, 권진아 옮김 ✧ 모던 라이브러리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학' ✧ 「타임」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 소설' ✧ 「뉴스위크」 선정 '역대 세계 최고의 명저' 2위	48
1954	이즈의 무희·천 마리 학·호수 가와바타 야스나리, 신인섭 옮김 ✧ 일본 예술원상 수상 ✧ 1968년 노벨문학상 수상	39
1955	옛보는 자 알랭 로브그리에, 최애영 옮김 ✧ 1955년 비평가상 수상	45
	저주받은 안뜰 외 이보 안드리치, 김지향 옮김 수록 작품 : 저주받은 안뜰, 몸통, 술잔, 물방앗간에서, 올루야크 마을, 삼사라 여인숙에서 일어난 우스운 이야기 세르비아어 원전 번역 ✧ 1961년 노벨문학상 수상	49
1962	이력서들 알렉산더 클루게, 이호성 옮김	58
1964	개인적인 체험 오에 겐자부로, 서은혜 옮김 ✧ 1994년 노벨문학상 수상	22

1967	콜리마 이야기 바를람 살라모프, 이종진 옮김 국내 초역	76
1968	현란한 세상 레이날도 아레나스, 변선희 옮김 국내 초역	96
1970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 베네딕트 예로페예프, 박종소 옮김 국내 초역	36
1978	노인 유리 트리포노프, 서선정 옮김 국내 초역	89
1979	천사의 음부 마누엘 푸익, 송병선 옮김	8
1981	커플들, 행인들 보토 슈트라우스, 정향균 옮김 국내 초역	7
1982	시인의 죽음 다이허우잉, 임우경 옮김	6
1991	폴란드 기병 안토니오 무뇨스 몰리나, 권미선 옮김 국내 초역 ✧ 플라네타상 수상 ✧ 스페인 국민상 소설 부문 수상	29,30

1995	갈라테아 2.2 리처드 파월스, 이동신 옮김	108
1996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 로베르토 볼라노, 김현균 옮김 국내 초역	17
1999	이상한 물질 테라지아 모라, 최윤영 옮김 국내 초역	92
2001	아우스터리츠 W. G. 제발트, 안미현 옮김 국내 초역 ✧ 전미 비평가 협회상 브레멘상 ✧ 「인디펜던트」 외국 소설상 수상 ✧ 「LA타임스」, 「뉴욕」,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선정 2001년 최고의 책	19
2002	야쿠비안 빌딩 알라 알라스와니, 김능우 옮김 국내 초역 ✧ 바쉬라힐 아랍 소설상 ✧ 프랑스 툴롱 축전 소설 대상 ✧ 이탈리아 토리노 그린차네 카부르 번역 문학상 ✧ 그리스 카바피스상	43
2003	프랑스어의 실종 아시아 제바르, 장진영 옮김 국내 초역	95

2005	우리 짜르의 사람들 류드밀라 울리츠키야, 박종소 옮김 국내 초역	69
2007	시카고 알라 알라스와니, 김능우 옮김 국내 초역	71
2016	망자들 크리스티안 크라흐트, 김태환 옮김 국내 초역	101